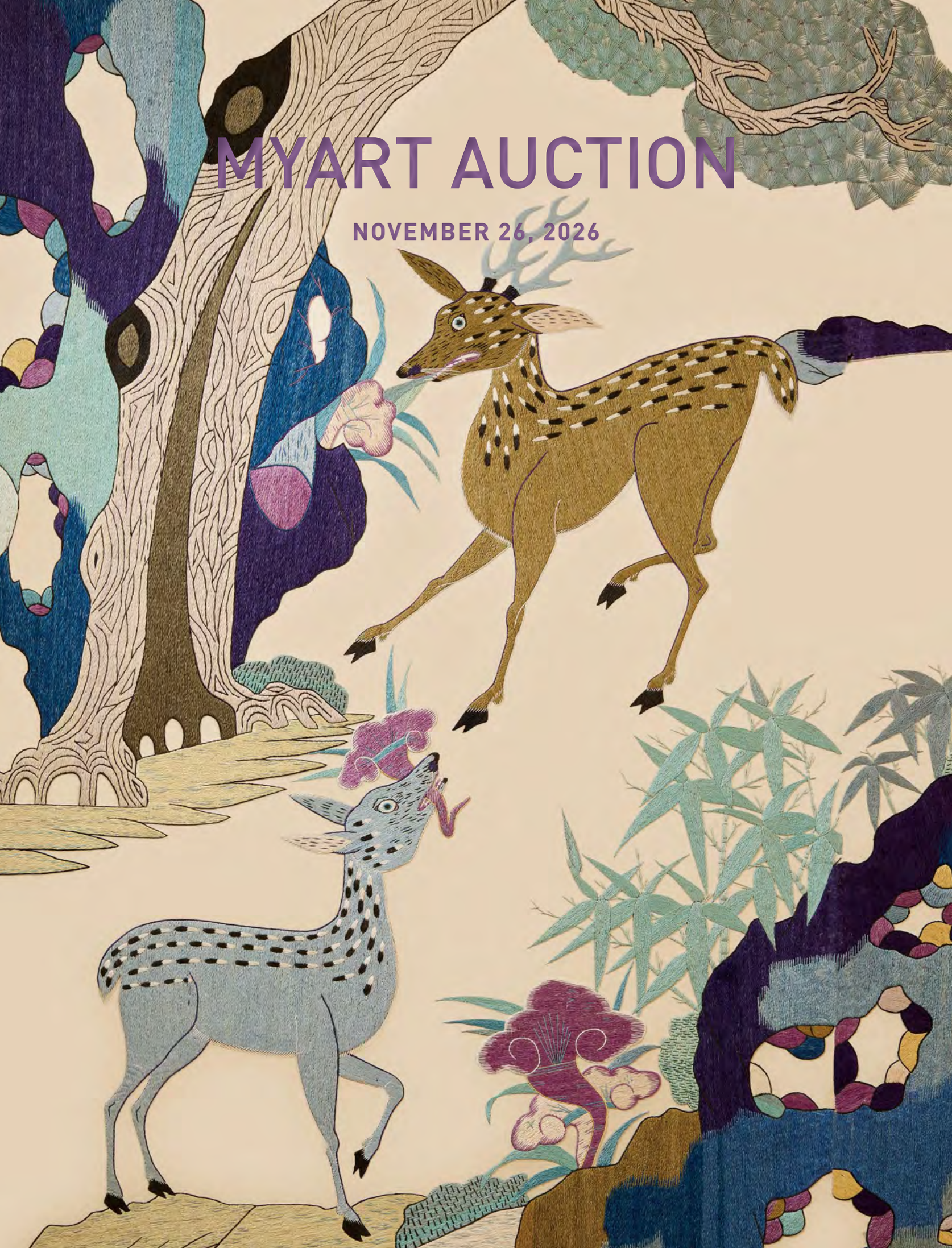
MYART AUCTION

NOVEMBER 26, 2026



(주) 마이아트옥션 제62회 메이저 경매

발 행 처 (주) 마이아트옥션
발 행 2026년 11월 26일

사 진 플래시큐브 스튜디오 | 남기용
디 자 인 원더디자인 | 전지원

Copyright© 2026 MYART AUCTION Inc.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주)마이아트옥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40,000

* 이 도록은 정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이 도록의 오탈자 및 오류를 알려주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MYART AUCTION 62nd

제62회 마이아트옥션 메이저 경매

MAJOR AUCTION

2026.11.26 THU 4PM

LOCATION

마이아트옥션하우스 2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B1

PREVIEW

2026.11.16.MON - 11.25.WED

10AM – 6:30PM

LOCATION

본관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B1, 5F

경매 주요 약관 및 안내

회원가입

㈜마이아트옥션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매는 경매약관에 의거하여 진행되므로, 응찰 희망자는 ㈜마이아트옥션 경매 약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리뷰를 통해 작품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매 응찰을 위해서는 정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정회원 연회비 : 10만원) 정회원은 유료이며, 마이아트옥션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이 발송됩니다.

응찰방법

서면, 현장, 전화 응찰, 비공개 응찰이 가능하며, 서면응찰과 전화응찰은 경매 당일 오후 2시까지 응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금액 응찰 시 우선순위는 서면, 현장, 전화 순입니다.

비공개 응찰의 경우
[비공개 응찰의 자격]
마이아트옥션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마이아트옥션이 요청하는 응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응찰의 진행]
◆ 표시가 된 물품은 입찰 방식으로만 응찰하며
응찰자는 프리뷰 기간 내에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응찰서를 교부받아 입찰금액을 직접 작성하고 봉인하여야 합니다. 최소 입찰금액은 낮은 추정가를 적용합니다.
(낙찰 후에는 구매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매 수수료 및 대금 결제

구매수수료는 낙찰가의 15%(부가세 별도)입니다.
낙찰자는 낙찰가와 구매수수료를 합한 총 구매대금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에 결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농협 317-0009-8112-11 (주)마이아트옥션

작품상태 및 보증

모든 작품은 출품된 상태 그대로 판매되며, 당사에서 구매하신 작품에 대한 보증에 내용은 경매일 기준으로 3년간 유지되며, 당사에서는 작품보증서를 발부합니다. 작품의 보증내용은 ㈜마이아트옥션 경매약관 제14조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증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시, 보증기간인 3년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 후 관련분야 전문가 2인 또는 전문기관 2곳으로부터 서면 형식의 의견을 구한 후 모든 의견이 일치할 시에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이 서화 및 골동품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제외
생존하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양도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작품의 양도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낙찰 철회 시 위약금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위약벌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위약벌의 약정은 당사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작품 설명 자료

이 도록에서 제공하는 작품 설명(Caption) 자료의 기준과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화를 포함하여 도자, 목기, 공예품 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작품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가명

아호, 성명, 한자명, 단 외국 작가는 원어

생몰년

0000- 는 현재 생존, 0000-? 는 몰년미상

작품명

작가가 정한 이름이나, 화제나 작품의 내용을 참고한 자료

제작연도

작품에 포함된 정보 또는 도록 등에 근거한 자료

형태

출품된 작품을 꾸민 방법

재질 및 재료

작품의 바탕 및 제작 재료

크기(cm)

평면 세로×가로 (표구 면이나 액자를 제외한 실제 작품 크기)

입체 높이[고高]×입지름[구경口徑]×밑지름[저경底徑] (도자기)
높이×세로×가로 (목기)

기타 얇고 긴 경우는 길이,
굴곡이 많은 경우는 높이×최대길이,
여러 점인 경우는 대표적인 작품

추정가

당사가 미술 시장의 동향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

작품해설, 탈초·번역

「작품수록처」, 「참고문헌」 등은 작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자료

전(傳)

작품의 경향(필치, 채색, 구도)으로 보아 특정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하는 경우나 작품의 제작부터 판매 그리고 전시기록, 도록 등의 출처(Provenance)가 분명한 경우, 소장인, 감장인, 제발, 배관기 등 내력이 분명한 경우나 관지 인장이 있는 경우라도 전(傳)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추정은 가능하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탈초, 번역

특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하며, 일반적인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탈초, 번역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도록 후면에 게재된 경매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가 및 작품명 가나다순

INDEX

회화·서예

김경원 金景源 1901-1967 2
김기창 金基昶 1914-2001 2
김달황 金達晃 ?-? 56
김명국 金明國 1600-1663 이후 20
김수철 金秀哲 ?-1862 이후 51
김옥균 金玉均 1851-1894 38
김은호 金殷鎬 1892-1979 4
김응원 金應元 1855-1921 23
김정희 金正喜 1786-1856 17, 18
김창수 金昌秀 ?-? 29, 30
남옥 南玉 1722-1770 62
노수현 盧壽鉉 1899-1978 1
박승무 朴勝武 1893-1980 2
박영효 朴泳孝 1861-1939 67
박윤한 朴潤漢 ?-1805 60, 61
변관식 卞寬植 1899-1976 2
변지한 卞持漢 ?-? 54, 55
서광범 徐光範 1859-1897 69
신사임당 申師任堂 1504-1551 21
신위 申緯 1769-1847 43
신익희 申翼熙 1894-1956 39
유덕장 柳德章 1675-1756 50
유혁로 柳赫魯 1851-1945 68
은규 殷奎 ?-? 2
이광열 李光烈 1885-1966 2
이교익 李敎翼 1807-? 6
이남호 李南浩 1908-2001 2
이배원 李培元 1575-1653 47
이상범 李象範 1897-1972 3
이용우 李用雨 1902-1953 2
이유신 李維新 ?-? 28
이은 李垠 1897-1970 35
이응노 李應老 1904-1989 2
이의양 李義養 1768-? 63, 64
이정신 李正臣 1660-1727 46
이조연 李祖淵 1843-1884 66
이하응 李昰應 1820-1898 22, 24, 25
장승업 張承業 1843-1897 27, 31
정몽주 鄭夢周 1337-1392 45
정선 鄭敾 1676-1759 42
정수영 鄭遂榮 1743-1831 11
정해준 鄭海駿 1903-1993 2
조석진 趙錫晉 1853-1920 5
지운영 池雲英 1852-1935 70, 71
진동익 秦東益 1777-1830 이후 65
취원 翠園 ?-? 53
한시각 韓時覺 1621-? 57
허련 許鍊 1809-1892 19
허민 許珉 1911-1967 2
허백련 許百鍊 1891-1977 2
현덕연 玄德淵 1694-? 59
홍낙안 洪樂安 1752-? 15
홍대연 洪大淵 1749-1816 7
홍세태 洪世泰 1653-1725 58
홍장중 洪章中 ?-? 52

작자미상

고사인물도 8폭병풍 8
곡수정속난정회첩 41
괴석화조도 10폭병풍 33
금강산중고찰도팔경 44
남태량 초상, 교지 13점, 준호구 14
등왕각시서 40
묘도 10
문자도 8폭병풍 48
상산사호도 · 해상신선도 9
십이지신도 3폭: 진·사·오 13
월봉당대선사 승휘 진영 12
자수십장생도 34
자수화조도 2폭 49
조령 4점 36
초상화 16
평생도 10폭병풍 26
행행반차도 37
화조영모도 8폭병풍 32

도자

백자녹유장생문병 108
백자명기 14점 일괄 107
백자복숭아형연적 78
백자양이잔 106
백자유병 82, 104
백자잔·화형잔탁 2점 83
백자철채육각연적 73
백자철화계형연적·백자철채추형연적 74
백자철화운룡문호 91, 92
백자철화초문호 98
백자철화초화문소병 72
백자청화그물문잔·잔탁 103
백자청화동화운룡문호 93
백자청화매죽문소호 80
백자청화모란문병 96
백자청화모란문호 101
백자청화복숭아주름문호 100
백자청화산수주름문연적 99
백자청화수복문'임'큰연고간'육'명발 102
백자청화운룡문병 94
백자청화운룡문병 95
백자청화접문육각화장기·백자청화녹문육각소병 79
백자청화철화마형도우 75
백자청화철화복숭아형연적 77
백자청화철화새형연적 76
백자청화화당초문환형연적 81
백자타구 105
백자호 90
분청사기인화국화문대접 87
분청사기철화당초문병 89
분청사기철화당초문호 88
분청사기철화초화문병 97
청자반구병 85
청자상감운학문사이호 86
청자화형접시 84

가구·공예

가마 123
고비 116
고사인물문벼루·벼루함 111
구족연상 113
나전수렵문상 124
나전포도문상 2점 119
동자상 120
동제도철문제량유 126
석제과형연적 110
수파어학문삼형제필통 115
예도 127, 128
은제철보수문다기세트 125
장생문벼루·벼루함 112
지승만자문삼형제필통 114
투각당초수자문주칠상 118
투각장생문목침 2점 122
팔각소반 121
표주박 3점 109
혼서지·유서통 117



PART 1

회화 · 서예

繪畵·書藝

PAINTING·CALLIGRAPHY

Lot.001 - 071

001

심산 **노수현** 1899-1978

心汕 盧壽鉉 No SuHyeon

봉래도 蓬萊圖 Mount Penglai

1946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27×23.7㎝

₩ 2,000,000-5,000,000



蓬萊圖 봉래도
丙戌臘月二八日, 祝學滄大仁生辰 병술년(1946) 12월 28일, 학창 대인의 생신을 축하하며
心汕 심산

[인문] 盧氏壽鉉, 心汕

002

묵로 이용우 1902-1953 외 11인

墨鷺 李用雨 外 十一人 Lee YongU and 11 Other Artists

선면첩 扇面帖 Fan Album

1941 외
첩 Album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16×46.5㎝

₩ 8,000,000-20,000,000





[1폭]
묵로 이용우(墨鷺 李用雨, 1902-1953)

墨鷺 묵로

[인문] 用雨之印







[2폭]
운보 김기창(雲甫 金基昶, 1914-2001)

雲圃 운포

[인문] 基昶, 雲圃

이당 김은호 문하에서 그림을 배웠다. 전통 한국화의 한계를 넘어 파격적인 화풍의 변화를 시도했던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대표적 거장이다. 운포雲圃는 김기창이 등단 초기, 즉 1930년대에 사용한 호이다. 해방 이후로는 포圃의 테두리를 없애고 운보雲甫를 줄곧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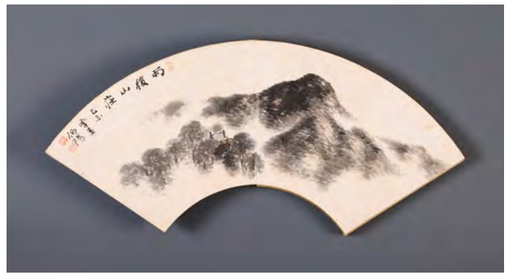


[3폭]
효산 이광열(曉山 李光烈, 1885-1966)

花郎五戒
其曰, 事親以孝, 事君以忠, 交友以信, 臨陣無退, 殺生有擇.
時辛卯仲夏, 於水明樓, 曉山.
화랑 오계
그 조목: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기고,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붕우를 신의로 사귀고, 싸움터에서 물러서지 않고, 살생을 함에 가려서 하라.
때는 신묘년(1951) 5월, 수명루에서 효산이 쓰다.

[인문] 心到天眞, 李光烈印, 曉山

근대 전라북도 전주 지역을 대표하는 시詩·서書·화畵 삼절三絶이자 향토사학자이다.



[4폭]
백양 은규(伯陽 殷奎, ?-?)

雨後山莊 우후산장
乙酉季春 伯陽 을유년 늦봄, 백양.

[인문] 篆雅, 殷奎, 伯陽



[5폭]
양전 이남호(良田 李南浩, 1908-2001)

戊子春 錦秋 무자년(1948) 봄, 금추.

[인문] 李印, 錦秋

경상도 달성 출신으로 화조화, 산수화, 사군자 등 전통 문인화 및 채색·수묵화 분야에서 활동한 작가이다.



[6폭]
운전 허민(芸田 許珉, 1911-1967)

秋水纔添四五尺 가을 물이 겨우 네댓 자 깊이로 불었는데
野航恰受兩三人 들판의 나룻배는 두세 사람을 태울 수 있네
癸未冬日 芸田寫 계미년(1943) 겨울날, 운전이 그리다.

[인문] 木□, 珉, 芸田

시·서·화와 한학을 겸비한 문인화가로 영남의 대유학자 중재 김황(重齋 金榥, 1896-1978)의 문하에서 전통 한학을 깊이 수학하였고, 단아하고 문기 넘치는 수묵화와 사군자, 모란, 산수화 등을 남겼다. 화면의 구절은 당나라 두보의 <남쪽 이웃[南隣]>이란 시의 일부이다.



[7폭]
탄월 김경원(灘月 金景源, 1901-1967)

灘月作 탄월이 그리다.

[인문] 金印, 灘月

안중식, 조석진, 이도영 등에게 사사하였다. 초기에는 세밀한 전통 산수화를 주로 그리다가, 정교한 화조영모화 및 자연 친화적 한국화로 영역을 넓혔다.



[8폭]
원재 정해준(元齋 鄭海駿, 1903-1993)

元齋 원재

[인문] 鄭海駿印, 元齋

충청도 금산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광복 후에 국회의원 및 언론인으로 활동하였고, 그림으로는 화훼에 빼어났다.



[9폭]
심향 박승무(深香 朴勝武, 1893-1980)

深香寫 심향이 그리다.

[인문] 勝武, 深香

이상범, 변관식, 노수현, 이용우, 허백련 등과 함께 한국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동양화 6대가' 중 한 명이다.



[13폭]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 1891-1977)

秋林古亭 추림고정
毅道人 의도인

[인문] 上下千古, 許氏畵印, 毅齋

허백련은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소치 허련의 화맥을 이었다. 남종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한국 근대 동양화 6대가 중 한 명으로, 호남 화단의 정신적 지주이며 거장이다.



[11폭]
양전 이남호(良田 李南浩, 1908-2001)

樹下彈琴圖 수하탄금도
辛巳初秋 錦秋 신사년(1941) 초가을 금추

[인문] 良田, 錦秋



[10폭]
소정 변관식(小亭 卞寬植, 1899-1976)

小亭 소정

[인문] 寬, 植

황해도 옹진 출생으로 소림 조석진의 외손자이다. 청전 이상범과 함께 한국 근현대 수묵산수화의 양대 산맥이자, 근대 동양화 6대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2폭]
고암 이응노(顧菴 李應老, 1904-1989)

顧菴 고암

[인문] 應魯

충청남도 홍성 출신으로 전통적 수묵 문인화의 한계를 깨뜨리고, 프랑스 파리를 무대로 문자추상과 군상群像 시리즈를 개척하여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이다.

003

청전 **이상범** 1897-1972

青田 李象範 Lee SangBeom

춘경산수 春景山水 Spring Landscape

1965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37×53㎝

₩ 7,000,000-15,000,000

乙巳冬 을사년(1965) 겨울
青田畵 청전 그리다.

[인문] 李象範, 青田



004

이당 **김은호** 1892-1979

以堂 金殷鎬 Kim EunHo

어옹 漁翁 Fisherman

1972
액자 Framed
비단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Silk
129.5×36.3㎝

₩ 5,000,000-10,000,000

八月九月蘆花飛 팔월 구월에 갈대꽃이 어지러이 날리는데
南溪老人垂釣歸 남쪽 시냇가 노인은 낚시질 하다 돌아가네[1]
壬子春節, 以堂作於以墨軒. 임자년(1972) 봄철에 이당이 이묵헌에서 그리다.

[인문] 致中和, 金殷鎬印, 絡青軒

1) 당나라 장지화(張志和, 730-810)의 <어부漁父>라는 시의 일부이다.



005

소림 **조석진** 1853-1920

小琳 趙錫晉 Cho SeokJin

귀래도 歸來圖 Returning Home

액자 Framed
비단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Silk
38.5×113.8㎝

₩ 15,000,000-30,000,000

歸來圖 귀래도
小琳 소림

[인문] 吟詩入畵中, 華里溪館

조선시대 귀거래도歸去來圖는 중국 동진東晉의 시인 도연명(陶淵明, 365–427)이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지은 『귀거래사歸去來辭』를 회화로 표현한 작품이다. 도연명은 세속의 명예와 부귀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은일의 삶을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세계는 후대 문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귀거래도는 도연명이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나 전원에서 한가롭게 생활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그려졌으며, 중국에서 형성된 도상이 고려 말과 조선시대에 전해져 문인들이 즐겨 감상하는 고사인물화의 주제로 자리 잡았다.

소림 조석진(小琳 趙錫晉, 1853–1920)은 조선 후기 화원 임전 조정규(琳田 趙廷奎, 1791–?)의 손자로, 조부에게 그림을 배워 전통 화원화풍을 계승하였다. 산수와 인물, 화조, 어해 등 다양한 화목에 능하였으며, 중국 명·청대의 화풍과 전통적인 남종문인화풍을 수용하여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하였다. 특히 중국의 고사와 시문을 소재로 한 산수인물화를 다수 제작하였으며, 『시중화詩中畫』, 『점석재총화點石齋叢畫』 등 중국 화보와 관련된 화풍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석진은 조선 말기 도화서 화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근대기 미술교육과 서화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전통 회화가 근대 한국화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작품은 도연명이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전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화면 오른쪽에는 산기슭을 따라 소나무와 버드나무가 우거진 저택이 자리하고 있으며, 왼쪽에는 넓고 고요한 강물과 작은 배를 배치하였다. 저택은 기와지붕과 창호, 난간과 담장 등을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건물 안과 주변에는 작은 인물들을 그려 한적한 생활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구성은 『귀거래사』의 '童僕歡迎 稚子候門[동복이 반기고 어린 자식들은 문 앞까지 마중 나와 있네.]', '三徑就荒 松菊猶存[뜰의 길은 황폐해졌지만, 소나무와 국화는 그대로 있네.]' 등의 구절을 연상시킨다. 특히 저택 주변에 버드나무를 강조한 구성은 도연명의 별칭인 오류선생五柳先生을 상징하는 회화적 전통과도 연결된다.

화풍에서는 전통적인 남종산수화의 부드러운 필묵과 화원화풍의 치밀한 묘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화면 상단의 산세는 가는 먹선과 짧은 필획, 태점을 반복하여 표현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엷은 청록색 담채를 가하여 원근감과 부드러운 색채감을 나타내었다. 화면 왼쪽의 강물은 여백을 넓게 남기고 수평 방향의 담묵으로 잔잔한 수면을 표현하였다. 반면 오른쪽 근경의 소나무는 굴곡진 줄기와 촘촘한 솔잎을 정교하게 묘사하고, 저택의 건축적 구조와 주변의 인물은 세필로 그려 세부적인 표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넓고 아득한 자연 경관과 인물의 일상적인 공간을 대비시키면서 화면에 안정감과 깊이감을 부여한다.

본 작품의 횡형 구도와 강물, 배, 저택, 수목을 결합한 구성은 중국의 전傳 이공린(李公麟, 1049-1106)의 <도연명귀은도陶淵明歸隱圖>와 구영(仇英, 1494-1552)의 <연명귀거래사도淵明歸去來辭圖> 등 전통적인 귀거래도 도상과 비교할 만하다. 조선시대에도 귀거래도는 여러 장면으로 구성한 병풍이나 특정 구절을 독립적으로 표현한 단폭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1583년 간행된 『전주정절선생집箋註靖節先生集』에 수록된 김시(金禔, 1524-1593)의 <귀거래도> 삽화 등은 관련 도상의 전승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본 작품 역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면서 강변의 넓은 수면과 산기슭의 저택을 하나의 화면에 배치하여 귀향의 여정과 전원생활의 정취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화면 왼쪽 상단에는 '귀래도歸來圖'라는 화제와 '소림小琳'이라는 관서가 있으며, 두 과의 인장이 찍혀 있다. 본 작품은 전통적인 산수화의 필묵과 섬세한 경물 묘사, 은은한 담채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조선 말기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조석진의 산수화풍과 고사인물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특히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담긴 은일의 이상을 평온한 강변 풍경과 정교한 건축물, 수목의 표현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작품의 미술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도판]
김시, <귀거래도>, 『전주정절선생집箋註靖節先生集』 수록, 1583년,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참고문헌]
1. 이종숙, 「朝鮮時代 歸去來圖 연구」, 『미술사학연구』245, 한국미술사학회, 2005.
2. 선승혜, 「『箋註靖節先生集』에 실린 金禔(1524~1593)의 陶淵明의 초상화와 귀거래도」, 『민족문화연구』6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3. 오행수, 『소림 조석진(1853~1920) 인물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006

송석 **이교익** 1807-?

松石 李敎翼 Lee Gyolk

쌍치도 雙雉圖 Pair of Pheasants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23.7×31.2㎝

₩ 3,000,000-7,000,000

倣畵師 화원의 화풍을 따라 그리다.
松石 송석

송석 이교익은 조선후기 산수도와 화접도를 잘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다. 비상하는 새의 역동적인 모습은 생동감 있으며, 연한 먹과 맑은 담채가 조화롭다.



007

화은 **홍대연** 1749-1816

花隱 洪大淵 Hong DaeYeon

누각산수인물도 樓閣山水人物圖 Landscape with Figures

1782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28.5×39㎝

₩ 5,000,000-15,000,000

畵山水畵樓閣, 畵中人主之, 眞山水眞樓閣, 世無居之者. 于嗟乎世人能不愧畵中人.
산수를 그리고 누각을 그리니, 그림 속 사람이 그 산수와 누각의 주인이 되도다. 참된 산수와 참된 누각이 있다 한들, 세상에 이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이가 없도다. 아! 슬프다, 세상 사람들은 그림 속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문] □□

華隱爲翠梧軒居士寫于壬寅孟秋之上澣.
화은이 취오헌 거사를 위해 임인년(1782) 초가을 상순에 그리다.

[인문] 大淵

홍대연(洪大淵, 1749-1816)의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계선繼善, 자정子靜, 호는 화은花隱, 華隱이다. 홍서봉(洪瑞鳳, 1572-1645)의 후손이며 홍세섭(洪世燮, 1832-1884)의 큰할아버지이다. 벼슬은 돈녕도정敦寧都正을 지냈다. 유작으로 <산수인물화첩山水人物畵帖> 등이 전한다.



008

고사인물도 8폭병풍

故事人物圖八幅屛風

Figures from Historical Anecdotes, Eight-Panel Folding Screen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각 94.5×54.7㎝

₩ 30,000,000-50,000,000









[1폭]

□□先生, 如無□□顧之恩, 竟□隆中, 一老□止耶. 吾□爲先生□之出處□也, 非先生□也. 嗟乎先生人中龍
□...□ 선생이 아니면 누구이랴. 아, 선생의 사람 사이의 용이다.

[인문] 謙齋

제갈량(諸葛亮, 181-234)이 은거해 지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삼국 시대 촉蜀 제갈량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남양군南陽郡의 융중隆中에 은거해 초옥草屋을 짓고 농사지으며 은거하고 있다가, 세 번이나 그곳을 찾아온 유비(劉備, 161-223)의 정성에 감동하여 세상에 나왔으니, 이것이 이른바 삼고초려三顧草廬 고사이다.



[2폭]

□□在手無心□□六韜藏胸□□機而非忘□□
孰謂渭川釣□□之叟, □作周□
揚之

[인문] 謙齋

태공망 강상(太公望 姜尙, B.C. 1127-B.C. 1030)이 위수渭水에서 낚시로 세월을 보내는 광경을 그린 것이다. 위수 가에서 낚시질하던 여상이 주 문왕(周文王, B.C. 1112-B.C. 1050)의 초빙을 받고서 사부師傅로 추대되었는데, 나중에 문왕의 아들인 무왕(武王, 재위 B.C. 1049-B.C. 1043)을 도와서 은殷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3폭]

畫中人是夢中人歟, 夢中人是畫中人歟. 固知夢與畫, 惚焉如捉影, 如何畫與眞, 洶然若合符.
그림 속 사람이 꿈속 사람인가, 꿈속 사람이 그림 속 사람인가. 본래 꿈과 그림이란 것이 희미하여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음을 알지만. 어찌하여 그림과 실제가 이토록 부절을 맞추듯 맞아떨어지는가.

[인문] 謙齋

사자使者가 초상화를 들고 부열傅說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그린 것이다.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꿈에서 상제上帝가 어진 재상을 내려 주는 꿈을 꾸고서, 그 모습을 초상화로 그려 사방에 수소문하여 찾도록 하였다. 결국 부암傅巖이란 곳에서 담을 쌓고 있던 부열을 찾아 그를 재상으로 삼았는데 훌륭한 치적을 남겼다고 한다.



[4폭]

果再聘時□□三聘□時耶. 禮何□□, 何□□有君如湯, 豈肯作耕田老叟, 以成湯求賢之心, 尙恐不幡然改志.
과연 두 번째 초빙인가, 세 번째 초빙인가. 예는 어찌하여 □...□ 임금이 만약 탕 임금과 같았다면 어찌 굳이 밭을 가는 노인이 되어 탕 임금이 현자를 구하는 마음을 이루어 주지 않으려 했으랴. 오히려 갑자기 뜻을 바꾸지 않았을까 두려워진다.

[인문] 謙齋

탕湯 임금이 이윤(伊尹, ?-?)을 초빙하러 사자使者를 보낸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탕 임금이 그가 어질다는 명성을 듣고 사자를 보내서 신야薪野에 은거하여 농사를 짓던 그를 초빙하였으나, 처음에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세 번째 사자가 왔을 때 문득 마음을 바꾸어, 요순堯舜의 도를 직접 세상에 한 번 행해 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가서 마침내 탕 임금을 도와서 그로 하여금 왕천하王天下를 이루게 하였다.



[5폭]

人其老, 鬚則皓, 餐芝而老耶, 年老而皓耶. 生於何代, 老於何代, 基局光陰, 凡幾年所. 嗟乎四翁, 伊呂之儔耶, 巢許之侶耶. 多事哉, 胡爲乎爲漢定是非, 吾欲問畫中翁.
사람이 늙었고, 수염은 희니, 영지를 먹어서 늙은 것인가, 나이가 늙어서 수염이 센 것인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 어느 시대에 늙었으며, 바둑을 둔 세월은 몇 년이란 말인가. 아, 네 노인은 이윤伊尹, 여상呂尙의 무리인가, 소부巢父, 허유許由의 짝인가. 참으로 쓸데없었도다. 어찌하여 한漢나라를 안정시키려 시시비비를 가리려 했는지, 나는 그림 속 늙은이에게 물어보고 싶도다.

[인문] 謙齋

상산사호商山四皓가 바둑을 두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상산사호는 중국 진秦에서 한漢 초기에 상산商山에 숨어 살았다고 전해지는 은자隱者 네 사람, 즉 동원공東園公,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 녹리선생甪里先生이다. 한 고조(高祖, 재위 B.C. 202-B.C.195)가 태자太子 영盈을 폐하고 척 부인戚夫人의 아들 조왕趙王 여의如意를 세우려 하자, 장량(張良, B.C. 262-B.C.186)이 여후呂后에게 사호四皓를 불러 태자를 보좌하게 하도록 건의하였다. 이에 사호가 나와 고조의 마음을 돌려 태자를 폐하지 못하게 했던 고사가 전한다.



[6폭]

洗耳翁洗耳, 曷若洗心. 飮犢翁飮犢, 曷若不飮.
無論洗與不洗, 飮與不飮, 此翁以後更無此翁, 豈不高哉.
세이옹洗耳翁이 귀를 씻음이 어찌 마음을 씻은 것보다 나을 것이며, 음독옹飮犢翁이 송아지에게 물을 먹인 것이 어찌 먹이지 않은 것보다 나을 것인가. 씻거나 씻지 않거나, 먹이거나 먹이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이 노인 이후로 이만한 노인이 다시 없었으니, 어찌 고상하지 않은가.

[인문] 謙齋

허유(許由, ?-?)가 귀를 씻고, 소부(巢父, ?-?)가 송아지를 끌고 상류의 물을 먹이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요堯 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맡아달라고 말을 하자, 허유는 못 들을 말을 들었다고 여겨 영수潁水에 귀를 씻었다. 그의 벗 소부가 마침 송아지에게 물을 먹이려다 허유에게 그런 말을 듣고는 내 송아지 입이 더러워진다고 여겨 상류로 올라가 물을 먹였다고 한다.



[7폭]

皓髮老□, 其眞石耶人耶. 看□□□曰隱君子出, 而□□□□, 是亦松僊子, 露跡三宵, 留□十年者非耶. 觀子房願從遊之語, 可以據得也夫.
흰 머리의 노인은 참으로 돌인가 사람인가. □...□ 장자방이 '어울려 노닐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한 것을 살펴보면, 터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인문] 謙齋

장량(張良, B.C. 262-B.C. 186)이 어려서 황석공(黃石公, ?-?)에게 신발을 신겨드리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장량이 어렸을 때, 하비下邳의 다리 위에서 황석공이란 노인을 만났는데, 황석공이 일부러 신발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자 장량이 신발을 주워 그의 발에 신겨 주었다. 수차례 신발을 떨궈도 장량이 공손히 주워오자, 드디어 황석공은 장량에게 《태공병법太公兵法》을 전수하였고, 나중에 장량은 한漢 고조(高祖, 재위 B.C. 202-B.C.195)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였다.



[8폭]

雪滿橋頭, □□日行色爲誰, □□淸致聳雙肩, 政是騷人氣像.
눈 쌓인 다리 위에 □□행색을 한 이는 누구인가. □□ 맑은 운치에 두 어깨가 솟았으니, 참으로 시인의 기상이다.

[인문] 謙齋

당나라 맹호연(孟浩然, 689-740)이 매화를 찾아 다니는 광경을 그린 것이다. 맹호연이 일찍이 좋은 시를 지으려고 고심을 거듭하였는데, 어느 날 나귀 등에 타고서 눈발이 휘날리는 파교灞橋 위를 지나갈 때에야 그럴듯한 시상이 떠올랐다고 한다. 이를 두고 송나라 소식(蘇軾, 1037-1101)이 <증사진하충수재贈寫眞何充秀才>라는 시에서 "또 보지 못했는가, 눈 속에서 나귀를 탄 맹호연이, 눈썹을 찌푸리고 시를 읊느라 어깨가 산처럼 솟은 것을.[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 皺眉吟詩肩聳山.]"이라고 읊었다.

009

상산사호도·해상신선도

商山四皓圖・海上神仙圖
Immortals and Figures

가리개 Screen
비단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Silk
각 145×36.5㎝

₩ 8,000,000-20,000,000

해상신선도海上神仙圖은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 위에서 구름을 탄 신선들을 그린 그림이다. 원경에는 중국 신화의 여선女仙인 서왕모가 아래를 살피고 있으며, 다른 인물들보다 작게 그려 원근법을 주었다. 근경에는 팔선이라 불리는 호리병을 들고 절름발이에 쇠지팡이를 짚은 이철괴李鐵拐, 해박한 지식과 검술 능력을 모두 갖춘 여동빈呂洞賓이 손에 부채를 들고 수염을 만지고 있다. 그 뒤로 정수리에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는 유자선柳子仙이 피리를 불고 있다. 본 작품 속 신선들은 궁중장식화인 요지연도에서도 확인된다. 요지연도는 서왕모가 사는 곤륜산崑崙山의 요지瑤池에서 열린 잔치장면을 그린 것으로, 이곳에 참석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신선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상산사호商山四皓는 중국 진秦나라 때 학정을 피해 산시성陝西省 상산商山에 은둔하며 살았던 네 사람의 은사隱士를 가리킨다. 동원공東園公·하황공夏黃公·기리계綺里季·녹리선생甪里先生을 말하며, 바둑을 두고 약초를 캐며 한가롭게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호皓란 본래 희다는 뜻으로 이들이 모두 수염과 눈썹, 머리카락이 백색이기 때문이라 한다.





010

묘도

貓圖
Cats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58.4×36.2㎝

₩ 15,000,000-30,000,000

碧梧綠蕉古石, 合爲山家淸嘗之物, 而二烏圓胡爲乎來. 長夏淸晝, 渠無所伺, 相與就靜地而息機耳. 是亦物之安其所也. 覽者其取之歟.
벽오동, 푸른 파초, 고색창연한 돌은 산속 집에서 맑은 운치를 즐기는 물건인데, 저 두 마리 고양이는 어찌하여 이곳에 찾아왔는가. 긴 여름날 맑은 대낮에 저놈들도 노리는 것이 없으니, 아마 함께 조용한 곳을 찾아와 기심機心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로다. 이 또한 미물까지도 제자리를 찾아 평안한 모습이니, 보는 이들 또한 이를 본받을 수 있을까.

본 작품은 오동나무와 파초, 괴석이 어우러진 정원을 배경으로 한가롭게 쉬고 있는 두 마리 고양이를 그린 작품이다. 화면 상단에는 무성한 오동나무 잎이 펼쳐지고, 그 아래로 파초와 괴석을 배치하여 청아한 산거山居의 풍경을 조성하였다. 화면 하단의 두 고양이는 서로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왼쪽 고양이는 몸을 웅크린 채 고개를 돌려 주변을 바라보고 있으며, 오른쪽 고양이는 앞발을 들어 얼굴을 손질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동작을 보인다. 고양이의 털과 무늬는 섬세한 필선을 통해 정교하게 묘사하였으며, 오동나무와 파초, 괴석은 장식적인 표현을 가미하여 화면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화면 좌측 중단의 제발에서는 오동나무와 파초, 괴석을 산속 거처에서 감상할 만한 청아한 경물로 소개하고, 이곳에 찾아온 두 마리 고양이가 한여름의 고요한 낮에 아무것도 노리지 않은 채 기심機心을 내려놓고 쉬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특히 '상여취정지이식기이相與就靜地而息機耳'라는 구절은 세속적인 욕심과 계산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누리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전통 회화에서 고양이는 장수를 상징하는 길상적 소재로 널리 그려졌으나, 이 작품은 고양이의 평온한 모습을 통해 자연에 순응하는 삶과 무욕의 경지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제발의 마지막에 '시역물지안기소야是亦物之安其所也'라고 하여 만물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편안함을 얻는 이치를 강조하고, 이를 바라보는 감상자 역시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권하고 있다. 이처럼 본 작품은 고양이의 생태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문인적 자연관과 삶의 철학을 담아낸 작품이다.



011

지우재 **정수영** 1743-1831

之又齋 鄭遂榮 Jeong Soo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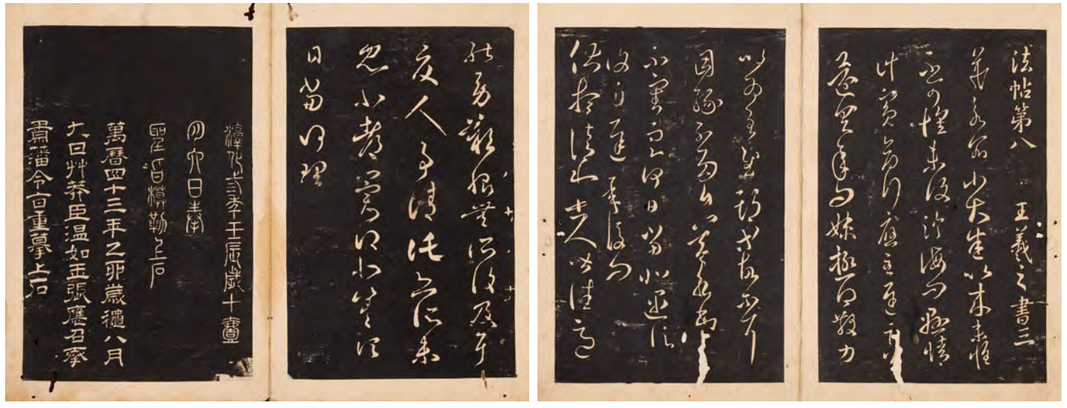
순화각첩 이면 시화 淳化閣帖裏面詩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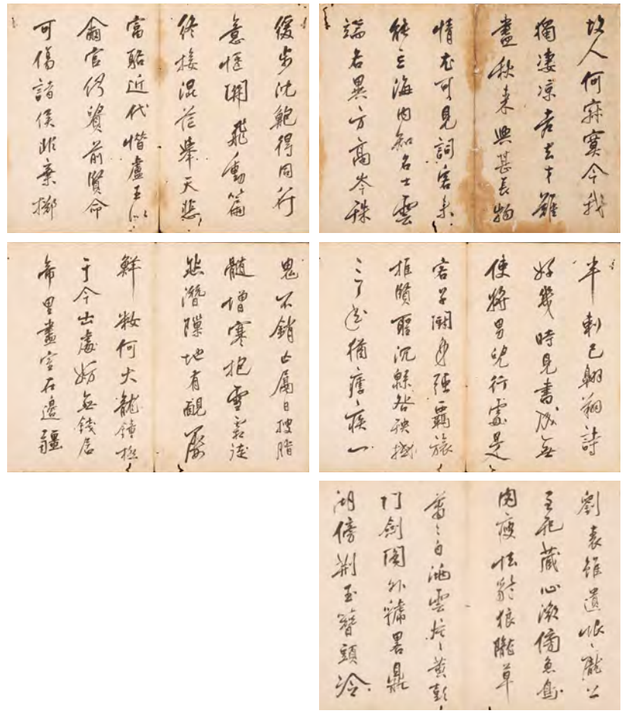
Poetry and Paintings on the Verso of Model Calligraphy from the Chunhua Pavilion

첩 Album
종이에 먹,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Ink on Paper
31×21㎝

₩ 3,000,000-6,000,000







취암翠菴이라는 사람과 지우재 정수영(之又齋 鄭遂榮, 1743-1831)이 《순화각첩淳化閣帖》의 뒷면에 글씨와 그림을 적은 1첩의 글씨첩이다.

원래 《순화각첩》은 북송北宋 때 왕희지(王羲之, 303-361) 등 중국 고대 명가의 글씨를 모아 판각한 법첩인데, 출품된 이 첩은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제8첩만 남았다. 첩의 표제는 '순화각첩淳化閣帖'이다. 안쪽 첫면에 '證訓閣重摹淳化法帖'라는 제첨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준훈각遵訓閣, 즉 명나라 숙왕(肅王, 명 태조 주원장의 14남)의 왕부王府에서 다시 모각한 것이다. 명나라 홍무洪武 25년(1392)에 숙왕이 북송 원본 석각을 바탕으로 난주에서 극히 정밀하게 모각해낸 서법 판본으로 이를 숙부본肅府本, 난주본蘭州本이라 한다. 이 첩은 후대 중국과 조선의 문인·서화가들이 서법을 익힐 때 최고의 교본으로 숭상되었는데, 지금 출품된 첩은 후대에 이 숙부본을 따라 재차 모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첩 뒷면의 글씨는 대부분 취암翠菴이란 사람의 행서로 보이는데, 누구의 필체인지는 미상이다.

맨 처음 10면에 걸쳐 행서로 쓴 글씨는 당나라 두보(杜甫, 712-770)의 <기팽주고삼십오…삼십운[寄彭州高三十五使君適虢州岑二十七長史參三十韻]>이라는 시이다. 즉 중국의 변새시인邊塞詩人으로 유명한 팽주彭州 자사 고적(高適, 704?-765)과 괵주虢州 장사 잠삼(岑參, 715-770) 두 사람에게 동시에 보낸 오언배율 장편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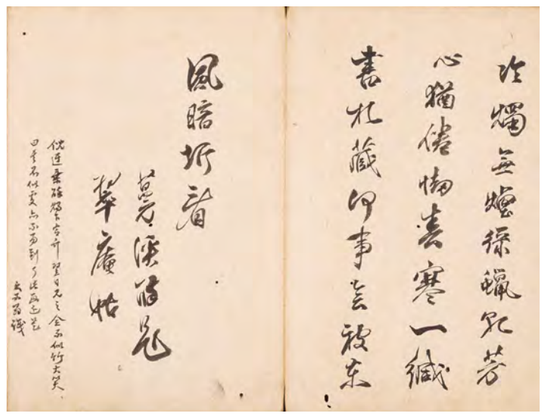
다음에 4면에 걸쳐 실린 것이 정수영이 그린 그림과 글씨인데, 취암의 글씨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다.

앞의 2면에 걸쳐 실린 그림은 정수영의 <파초도芭蕉圖>인데, 화제를 살펴보면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蔓溪, 卽此翁舊號也. 乘醺放筆, 傍若無人, 未知何年寫此顚狂若此耶. 更閱此帖, 翁年至七十二時, 則甲戌仲夏也.
之又齋自書.
만계蔓溪는 바로 이 노인의 옛날 호이다. 취기에 의지해 마음껏 붓을 휘두르면서 곁에 아무도 없는 듯 여겼으니, 어느 해에 이 그림을 그렸기에 이처럼 미치광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다시 이 그림을 살펴보니, 노인의 나이 72세에 이르렀을 때이니, 갑술년(1814, 순조14) 5월이었다. 지우재가 스스로 쓰다.

이 화제를 통해 지우재가 72세 때인 1814년에 그린 파초 그림이고, 만계蔓溪가 지우재의 옛날 호이며, 정수영이 훗날 다시 이 그림을 보면서 화제를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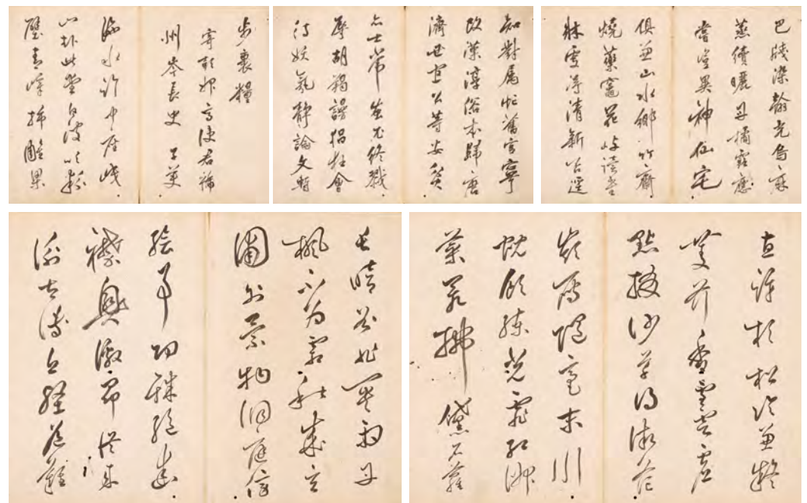
참고로 연경재 성해응(硏經齋 成海應, 1760-1839)은 정수영의 파초 그림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는데,“정군방은 호가 만계, 다른 호는 지우재이다. 그림에 빼어난 운치가 있어, 일찍이 떨어지는 폭포 및 매화, 대나무, 파초를 그렸는데, 매우 기이하였고, 사물 묘사가 가장 빼어났다.[鄭君芳, 號蔓溪, 又號之又子. 畵有逸趣, 嘗畵飛瀑及梅竹芭蕉甚奇, 其狀物爲最.]”라고 하였다.《硏經齋全集續集 冊16 書畵雜識 題蔓溪畵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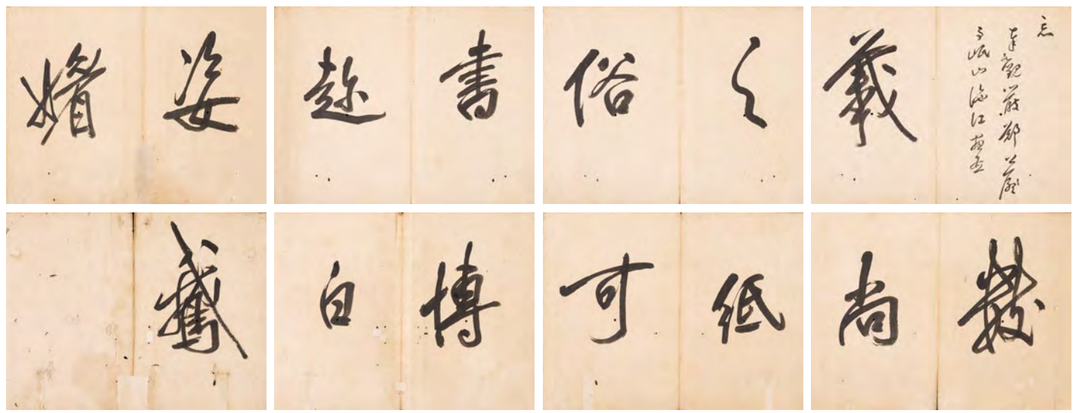
다음 2면에 걸쳐 수록된 행서도 정수영의 글씨인데, 당나라 전후(錢珝, ?-?)의 <펼쳐지지 않은 파초[未展芭蕉]>라는 시이다.

冷燭無煙綠蠟乾 차가운 초에 연기 없고 푸른 밀랍 말랐는데
芳心猶卷怯春寒 꽃다운 마음은 봄추위 두려워 여전히 말려 있네
一緘書札藏何事 한 통의 편지 속에 무슨 사연 감추었나
會被東風暗拆看 봄바람 불어오면 가만히 풀어보게 되리라

앞의 <파초도>와 내용이 꼭 맞는 시를 골라 쓴 것으로 보인다. 글씨 끝에 “만계사제취암첩蔓溪寫題翠庵帖”이라 관지를 적어, 만계가 취암의 글씨첩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적은 사실을 밝혀 놓았다. 그리고 말미에 잔글씨로 부기한 내용이 있는데, 재미 있는 예찬(倪瓚, 1301-1374)의 고사를 빌어 자신의 파초 그림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倪迂乘醉, 燭下寫竹, 翌日見之, 全不似竹, 大笑曰, 其不似處, 亦不易到耳. 此畵近是.
之又齋識.
예우(예찬)가 취기가 올라 촛불 아래서 대나무를 그렸는데, 이튿날 보니 조금도 대나무를 닮지 않았다. 크게 웃으며 “닮지 않은 곳 또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는데, 이 그림 또한 그와 가깝다고 하리라.
지우재가 기록한다.



다음부터 다시 취암의 글씨가 끝까지 이어지는데, 수록된 시는 두보의 <봉관엄정공청사…10운[奉觀嚴鄭公廳事岷山沱江畫圖十韻]>이란 시이다. 이 시는 두보가 성도成都에 머물던 시절, 자신의 후원자인 엄무(嚴武, 726-765)가 근무하는 관청 벽에 그려진 민산岷山과 타강沱江의 산수 벽화를 감상하고 지은 10운의 오언배율이다.



다음으로 1면에 1자씩 14글자가 적혀 있는데, 당나라 한유(韓愈, 768-824)의 <석고가石鼓歌>에 나오는 일부 구절이다.
羲之俗書趁姿媚 왕희지의 속된 글씨는 예쁜 자태만을 추구하니
數紙尙可博白鵝 몇 장의 종이로 그저 흰 거위나 바꿀 만하도다

012

월봉당대선사 승휘 진영

月峯堂大禪師勝輝眞影

Portrait of Master Wolbongdang Seunghwi

액자 Framed
비단에 채색 Color on Silk
90.5×62㎝

₩ 10,000,000-20,000,000

月峯堂大禪師(勝輝)眞影 월봉당대선사(승휘)진영

若求眞去妄 猶棄影勞形 若體妄卽眞 似處陰影滅 眞造心源 無智無得 不取不捨 無對無修
만약 참됨을 깨달아 망상을 없애려 한다면, 이는 그림자를 벗어나고자 몸을 괴롭힘과 같고, 만약 망상이 본래 참됨임을 체득한다면, 마치 그늘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곧장 마음의 근원으로 나아가면, 지혜라 할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으며,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으며, 마주할 대상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으리로다.

화면 우측 상단에는 '월봉당대선사승휘진영月峯堂大禪師勝輝眞影'이라는 화제가 있어 월봉당月峯堂 승휘勝輝의 진영임을 알 수 있다. 승휘는 1863년 조성된 고성 화암사 <지장시왕도>의 화기와 속초 보광사 <현왕도>의 복장원문에 별좌비구別座比丘로 기록된 인물이다. 두 불화는 1863년 금강산 화엄사(현 고성 화암사)에서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를 위해 개설된 수월도량水月道場 불사 때 함께 조성되었다. 특히 <지장시왕도>의 화기에는 '별좌비구 월봉당승휘(別座比丘 月峯堂勝輝)', <현왕도>의 복장원문에는 '별좌비구 월봉승휘(別座比丘 月峯勝輝)'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의 법호와 법명, 불사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승휘가 19세기 중엽 금강산 화엄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불화 가운데 <지장시왕도>는 화엄사에 봉안되었으며, <현왕도>는 산내 암자인 안양암에 봉안되었다가 1938년 정화담鄭華潭 스님이 속초에 보광사를 창건하면서 이안한 것으로 전한다. 특히 <현왕도>의 복장원문에 기록된 시주질에는 철종과 철인왕후가 등장하여 당시 불사가 왕실 인물과도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당나라 화엄종의 제4조인 청량국사淸涼國師 징관澄觀이 황태자의 질문에 답하여 마음의 근본과 깨달음의 요체를 설한 『답황태자문심요서答皇太子問心要書』의 구절을 발췌하여 적었다. 내용은 참됨과 망상이 본래 둘이 아니며,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근원에 곧바로 이르러야 한다는 불교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진영에 배치함으로써 승려가 지향하는 깨달음의 경지와 수행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화면 중앙의 승휘는 산수화 병풍을 배경으로 가부좌한 채 정좌하고 있다. 어두운 회색 장삼 위에 붉은 가사를 걸쳤으며, 오른손으로는 염주를 쥐고 왼손으로는 주장자를 잡고 있다. 이마와 눈가, 양볼에 나타난 깊은 주름과 짧은 수염, 머리카락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노승의 풍모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가사의 붉은색과 청색 장식끈, 병풍의 흑색·청색·황색을 대비시켜 장엄하면서도 안정적인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인물의 이목구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세밀한 필선과 짙고 선명한 채색, 정형화된 좌상 구도 등에서 조선 후기 승려 진영의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진영에 기록된 승휘의 법호와 법명은 1863년 불화의 화기 및 복장원문에 나타나는 기록과 일치하여, 19세기 금강산 화엄사 불사에 참여했던 승려 승휘의 모습을 전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고문헌]
김미경, 「속초 보광사 소장 <現王圖>와 腹藏願文 검토」, 『문물연구』34, 동아문화재단, 2018.



013

십이지신도 3폭: 진·사·오

十二支神圖三幅: 辰·巳·午

Twelve Zodiac Deities, Three Panels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122×70㎝ 외

₩ 18,000,000-35,000,000

본 작품은 십이지신 중 진신辰神, 사신巳神, 오신午神을 그린 3폭으로 구성되었다. 십이지신은 십이지지에 대응하는 수호신으로 각 방위를 지키며 재앙을 물리치는 존재로 여겨져왔다. 불교에 습합된 이후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사찰의 각종 의식에서 도량을 장엄하고 잡귀를 막기 위해 십이지신을 그린 번을 제작하였다. 의식용 번의 경우 십이지신번 외에도 오방오제위번, 사직사자번, 오여래번, 사보살번, 팔금강번, 오계수호신장번, 십대명왕번 등이 있다.

본 작품의 세 신장은 각각 용, 뱀, 말의 머리에 사람의 신체가 결합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진신은 청색 상의와 백색 하의를 입고 철퇴와 같은 지물을 비스듬히 들고 있으며, 사신은 붉은색 상의를 입고 무기를 잡은 채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신은 붉은색 의복을 입은 모습으로 봉 형태의 지물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한 쪽 다리를 굽혀 역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세 폭 모두 신체를 비틀거나 다리를 들어 올린 자세로 묘사되었으며, 몸을 휘감는 붉은색과 녹색의 천의가 화면에 강한 운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십이지신번은 서울 도선사 소장 <십이지신번>(19세기 말),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십이지신번 초본>(19세기 말), 장성 백양사 소장 <십이지신 번>(20세기) 등이 현전하고 있으며, 특히 오신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2지신도 초본>(구10370)과 동일한 도상이어서 불화 제작에 사용된 초본의 활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

[참고문헌]
이영미, 「朝鮮 後期 儀式用 幡畵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24.



[참고도판]
<12지신도 초본>, 104.3×67.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구10370).







014

남태량 초상, 교지 13점, 준호구

南泰良肖像, 敎旨十三點, 准戶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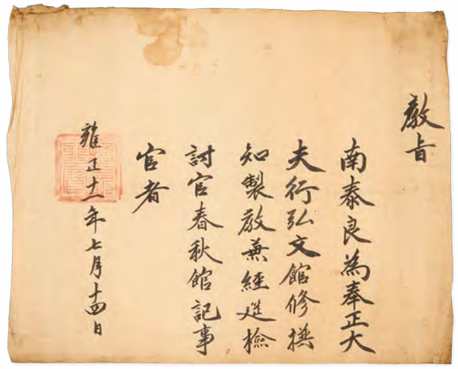
Portrait of Nam Taeryang, Thirteen Royal Documents, and Household Register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62.2×35.5㎝ 외

₩ 30,000,000-50,000,000

남태량(南泰良, 1695-1752)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유능幼能, 호는 광릉거사廣陵居士이다. 생부는 남효명(南孝明, ?-?)이며 부친은 남제명(南悌明, 1685-1705)이다. 1727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다음 해에 지평과 헌납이 되었다. 1745년에는 대사간大司諫을, 1753년에는 도승지都承旨를 지내고 이후에 이조참판吏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영정이 후손에 의해 이천군에 전해지고 있다. 조선 태조부터 숙종 대까지 역대 군주와 명사의 사적을 모아 《대동휘찬大東彙纂》을 편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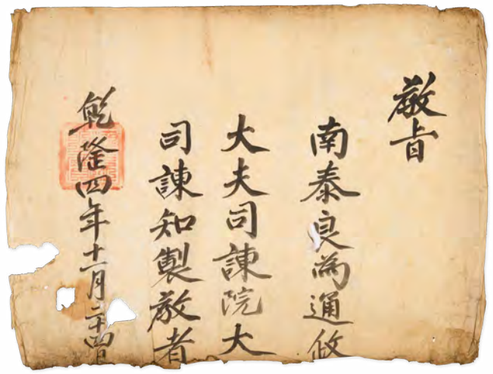




홍문관 수찬에 임명하는 교지

敎旨 교지
南泰良爲奉正大夫行弘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者
남태량위봉정대부행홍문관수찬지제교겸경연검토관춘추관기사관자
雍正十一年七月十四日 옹정 11년(1733) 7월 14일

[인문] 施命之寶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하는 교지

敎旨 교지
南泰良爲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知製敎者
남태량위통정대부사간원대사간지제교자
乾隆四年十一月二十四日 건륭 4년(1739) 11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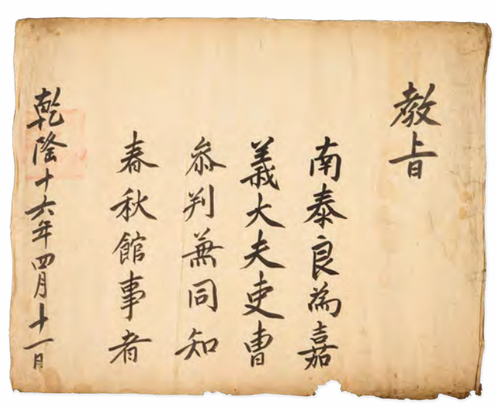
[인문] 施命之寶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하는 교지

敎旨 교지
南泰良爲奉正大夫行弘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者
남태량위봉정대부행홍문관부수찬지제교겸경연검토관춘추관기사관자
雍正十一年八月初二日 옹정 11년(1733) 8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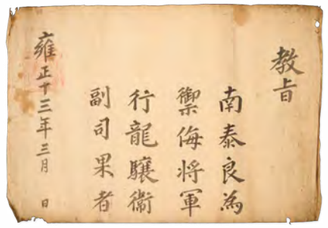
[인문] 施命之寶



이조 참판에 임명하는 교지

敎旨 교지
南泰良爲嘉義大夫吏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者
남태량위가의대부이조참판겸동지춘추관사자
乾隆十六年四月十一日 건륭 16년(1751) 4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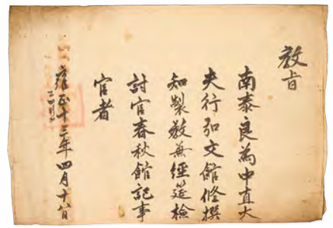
[인문] 施命之寶



어모장군 용양위 부사과에 임명하는 교지

敎旨 교지
南泰良爲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者
남태량위어모장군행용양위부사과자
雍正十三年三月日
옹정 13년(1735)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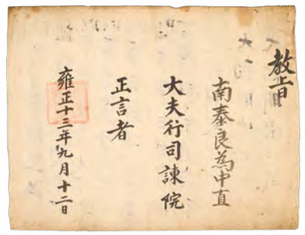
[인문] 施命之寶



홍문관 수찬에 임명하는 교지

敎旨 교지
南泰良爲中直大夫行弘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者
남태량위중직대부행홍문관수찬지제교겸경연검토관춘추관기사관자
雍正十三年四月十八日
옹정 13년(1735) 4월 18일
乙卯別加 을묘별가

[인문] 施命之寶



사간원 정언에 임명하는 교지

敎旨 교지
南泰良爲中直大夫行司諫院正言者
남태량위중직대부행사간원정언자
雍正十三年九月十二日
옹정 13년(1735) 9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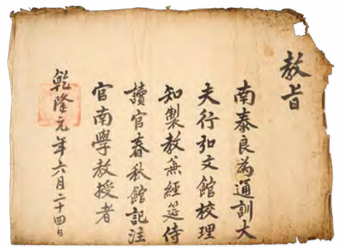
[인문] 施命之寶



어모장군 용양위 부사직에 임명하는 교지

敎旨 교지
南泰良爲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直者
남태량위어모장군행용양위부사직자
乾隆元年五月日
건륭 원년(1736) 5월

[인문] 施命之寶



홍문관 교리에 임명하는 교지

敎旨 교지
南泰良爲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南學敎授者
남태량위통훈대부행홍문관교리지제교겸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남학교수자
乾隆元年六月二十四日
건륭 원년(1736) 6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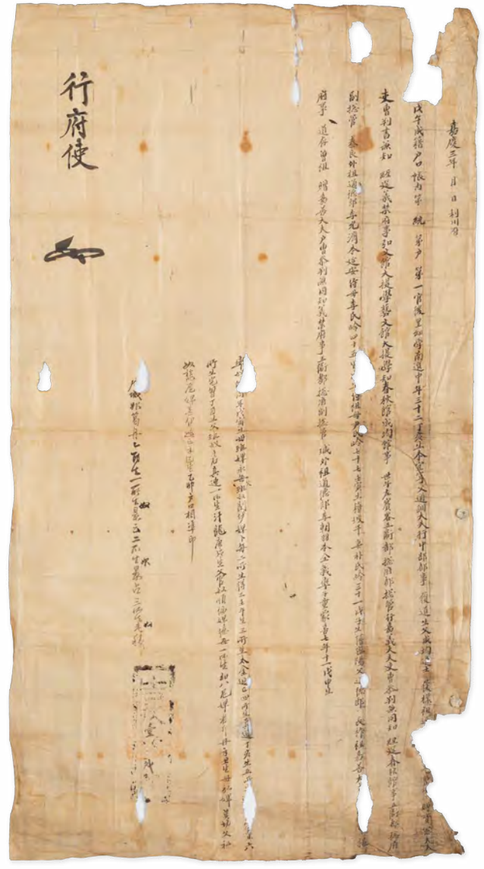
[인문] 施命之寶



사헌부 지평에 임명하는 교지

敎旨 교지
南泰良爲知製敎兼司憲府持平者
남태량위지제교겸사헌부지평자
乾隆二年九月初七日
건륭 2년(1737) 9월 7일

[인문] 施命之寶



남선중 준호구 南選中準戶口

경기도 이천부利川府 관후리官後里에 거주하는 호주戶主 남선중(南選中, 1767-?)을 위해 가경嘉慶 3년(1798, 정조22)에 발급한 준호구이다.[1] 남선중은 남태량의 증손이다.

이 준호구를 통해 파악된 인적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남선중은 당시 나이 32세로 정해년(1767, 영조43)에 태어났고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부친은 통훈대부 남이도南履度이고, 생부는 성균진사 남이박南履樸이며, 조부는 남문로南文老, 증조는 증 자헌대부 이조 판서 남태량이다. 외조는 통덕랑 이윤제李允濟이고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이박에 시모侍母, 시조모侍祖母까지 기록되어 있다.
처는 밀양박씨密陽朴氏로 31세이며, 부친은 통덕랑 박장조朴長祚, 조부는 박도존朴道存, 증조는 박함朴瑊, 외조는 이조우李朝羽이다.
이밖에 솔노비率奴碑와 그 소생所生까지 다수의 명단이 자세히 적혀 있다. 남태량의 고신告身, 초상화와 함께 전해져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1) 준호구準戶口는 조선 시대에 관아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 호적)의 내용을 인증해주면서 발급해주던 호구 확인서이다. 조선 시대에는 통상 3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정비했는데, 이때 백성들이 호주(세대주)의 신청에 따라 발급받았는데, 개인이 신분을 증명, 과거 시험 응시, 소송의 증빙 자료, 노비 소유권 확인, 가문 과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준호구에는 한 가구의 상세한 신분 정보가 담겨 있다. 발급 연월일, 발급 관청, 호주의 직역, 성명, 나이, 본관으로부터, 호주의 4조 즉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외할아버지는 물론 처妻의 성씨, 나이, 본관 및 처의 4조, 함께 거주하는 자녀와 나이, 소유하고 있던 노비의 명단과 나이를 종합적으로 수록하였다.
조선 시대의 호적대장 원본은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민간에서 발급받아 집안에 보관하던 준호구들은 상당수 전해 내려오고 있어서, 조선 후기의 신분 제도, 가족 제도, 사회 구조, 노비 제도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역사적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015

노암 **홍낙안** 1752-?

魯庵 洪樂安 Hong NagAn

과거시험 답안 科擧試券 Civil Service Examination Paper

미표구
종이에 먹 Ink on Paper
68×198㎝

₩ 6,000,000-15,000,000

이 문서는 조선 후기의 문신 홍낙안(洪樂安, 1752-?)이 제출한 과거시험 답안 3종으로 소과가 1종, 대과가 2종이다. 홍낙안이 실제 치른 시험답안으로 의미가 있다.

홍낙안은 본관이 풍산豊山, 자는 인백仁伯, 호는 노암魯庵이다. 뒤에 이름을 희운羲運으로 바꾸었다. 안동 출신으로 홍복호(洪復浩, 1731-?)의 아들이다. 남인이지만 천주교에 적대적인 공서파에 속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승훈, 윤지충, 권일신 등을 천주교인을 고발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다.

첫 번째 답안지는 28세 때이던 1781년(정조5)에 제출했던 소과 답안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가계와 이력을 적는 사조란四祖欄이 있어서 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자신: 유학幼學 홍낙안, 나이 28세, 본관은 풍산豊山, 거주지는 서울.
-부친: 통훈대부 행 양성현감陽城縣監 수원진관병마절제도위, 복호復浩
-조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양보亮輔
-증조: 증가선대부 예조참판 겸동지경연 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 오위도총부부총관 행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지제교 겸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 중우重禹
-외조: 성균생원 박상진朴象眞, 본관은 반남潘南.

이에 따르면 이 답안지는 홍낙안이 28세 때인 1781년(정조5)에 치른 답안임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시험 제목은 "江淮發運辭行日 語東南民力竭(詩)"인데, 북송의 설규(薛奎, 967-1034)가 강회발운사江淮發運使로 부임하러 떠나며 작별 인사를 하자 당시의 재상 왕단(王旦, 957-1017)이 "강남 지역 백성들의 힘이 이제 다하였네[東南民力竭矣]."라고만 말했던 고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시로 개진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홍낙안이 제출한 시는 결국 낙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답안은 1790년(정조14) 증광문과에서 제출한 송頌이다. 별지에 적은 내용에 따르면, 이 답안은 경과慶科 증광문과增廣文科 별시別試 중에 전시殿試에 제출된 것으로 병과(丙科) 22위로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험문제는 "一有元良, 萬國以貞(頌)."으로 오직 한 사람의 훌륭한 세자가 있으면 천하 만국이 이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홍낙안은 중국의 사례를 들어 삼대三代 시대부터 훌륭한 태자가 있어서 온 천하가 편안했음을 논증한 뒤, 지금부터라도 어릴 때부터 세자에 대한 교육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세 번째 답안 또한 1790년(정조14) 증광문과에서 제출한 대책문對策文이다. 나중에 추기追記한 기록에 따르면, 시험일자는 경술년(1790) 9월 17일이었고, 원자元子의 탄강을 기념하여 증광시增廣詩를 치렀는데, 이 답안은 회시會試의 종장終場에 제출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시관試官으로 이병모(李秉模, 1742–1806), 이헌경(李獻慶, 1719–1791), 조상진(趙尙鎭, 1740–1820), 안정현(安廷絃, 1730–?) 등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답안의 내용은 국가의 재용財用이 적재적소에 있지 못하여 국가는 가난하고 백성들은 피폐해지므로, 간사한 아전들이 탐욕을 부리지 못하게 막고, 귀족 가문이 전횡하여 뇌물이 횡행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첫 번째 답안]



[두 번째 답안]



[세 번째 답안]

016

초상화

肖像畵
Portrait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51×37㎝

₩ 5,000,000-15,000,000





017

추사 **김정희** 1786-1856

秋史 金正喜 Kim JeongHui

간찰 簡札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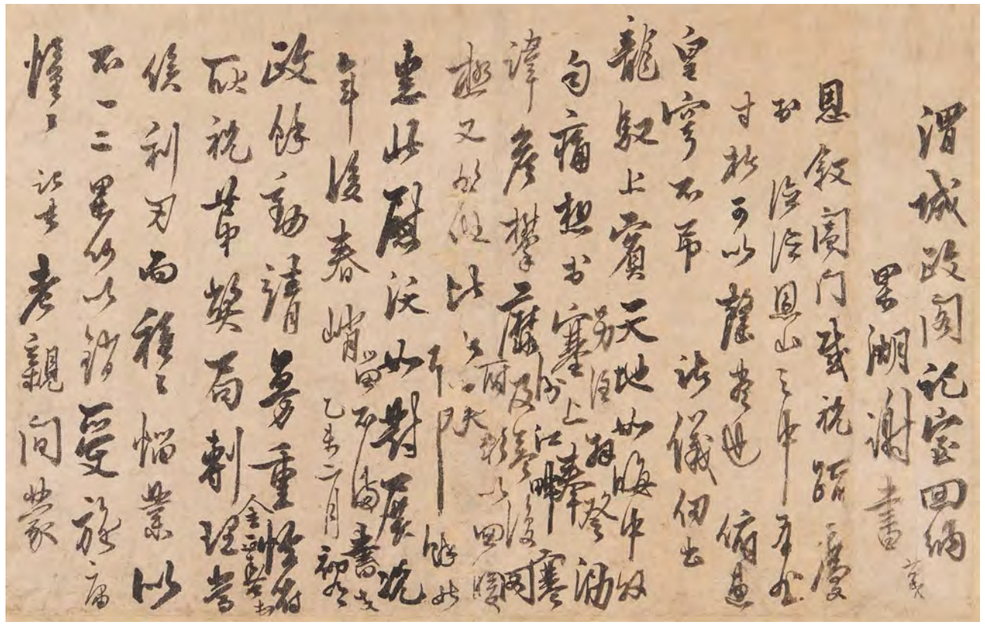
1835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32×50.5㎝

₩ 9,000,000-20,000,000

본 작품은 승지를 지내고 물러나 있던 추사 김정희가 1835년 2월 초9일에 위원 군수渭原郡守 오현문(吳顯文, 1803-1874)에게 보낸 답장이다. 오현문은 1833년 11월 4일에 위원 군수에 임명되어 3년간 재임하였다.

내용은 1834년 11월에 순조 임금의 승하하여 온 나라가 참담한 심정으로 애도하는 정황을 알리고, 상대방이 피폐한 고을을 다스리며 번뇌가 많을 것임을 염려하였다. 이어 자신의 부친(김노경)이 다시 서용되는 은전을 입어 온 집안이 축하하는 근황을 알리면서, 보내온 각종 물품으로 인해 썰렁한 주방이 사치스러워졌음을 감사하는 내용이다.

특히 본 유물은 편지 끝부분에 작성 날짜 1835년 2월 9일과 수신자 및 서명이 명확히 남아 있는 기년작紀年作 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전해지는 추사 간찰의 대부분이 날짜나 피봉皮封이 없어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이 작품은 김정희가 과천 거주 시기에 사용했던 과호果號의 사용 시점과 1830년대 추사 행서체의 변화 양상을 정밀하게 고증할 수 있는 귀중한 원천 자료이다.



渭城 政閣 記室 回納 위원 관아 기실에 회납함

省式 생식

果湖謝書 과호에서 답장함

皇穹不弔, 龍馭上賓, 天地如晦, 中外匀痛, 想於塞上奉諱, 詹攀靡及, 益復罔極. 又□□比, 伏承惠狀, 慰沃如對展, 況年後春峭, 政餘動靖憂重, 恰符耿祝. 第弊局剸理, 當似利刃, 而種種惱業, 似不一二, 果何以銷受, 旋庸憧憧. 記末老親, 間蒙恩叙, 闔門感祝蹈慶於德洽恩山之中, 有非寸楮可以罄盡也. 俯惠諸儀, 認出另注, 拜登渢謝. 江畔寒廚, 頓以回暖耳. 餘姑留不備書式.

乙未二月初九日, 金正喜頓.

하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어 임금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천지가 어두워진 듯 조정과 민간이 한가지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변방에서 국상의 소식을 접하시고, 우러러 사모하지만 도달할 길이 없어 망극한 심정을 더욱 가누지 못하셨을 줄 압니다. 또 근래에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보니, 위안되는 심정이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하였고, 하물며 새해 뒤 봄 추위가 매서운 때에, 정사를 돌보시는 나머지의 일상이 두루 좋으시다니, 내심 기원하던 바와 딱 들어맞았습니다. 다만 피폐한 고장을 다스리면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리하실 테지만, 가지가지 번뇌스러운 일들이 한둘이 아닐 터인데, 정녕 어떻게 삭여내시는지 도리어 걱정으로 두근거립니다.

저[記末]는 늙으신 아버님께서 근래에 특별히 서용敍用되는 은전을 입어,[1] 온 집안이 감격에 겨워 발을 구르며 산처럼 크신 임금의 은택 속에서 감사하고 있으니, 이 고마움은 짧은 종이로 이루 다 적을 수 없습니다.

보내주신 여러 물품들은 특별한 배려에서 나온 것임을 잘 알기에 절하고 가슴에 새기면 감사를 표합니다. 강가의 썰렁한 부엌이 단번에 온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연은 접어두고 예식을 갖추지 못하고 올립니다.

을미년(1835) 2월 9일, 김정희가 조아립니다.

1) 추사의 부친 김노경(金魯敬, 1766-1837)은 익종(翼宗, 1809-1830)이 대리청정을 하던 시절에 김로(金鏴, 1783-?)·홍기섭(洪起燮, 1776-1831) 등과 같이 중직에 있으면서 전권을 행사하고, 이조원(李肇源, 1758-1832)의 옥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1830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재직 중 삼사와 의정부의 탄핵을 받아 강진현의 고금도古今島에 위리안치되었다. 1833년 9월에 방면되었다가 1835년 1월 18일에 상호군上護軍에 임명되면서 정계에 복귀하였다.



[참고도판]
<김정희가 남책에게 보낸 간찰>, 1828, 22×44㎝, 과천추사박물관소장.

[참고문헌]
유기, 「추사 김정희의 간찰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서예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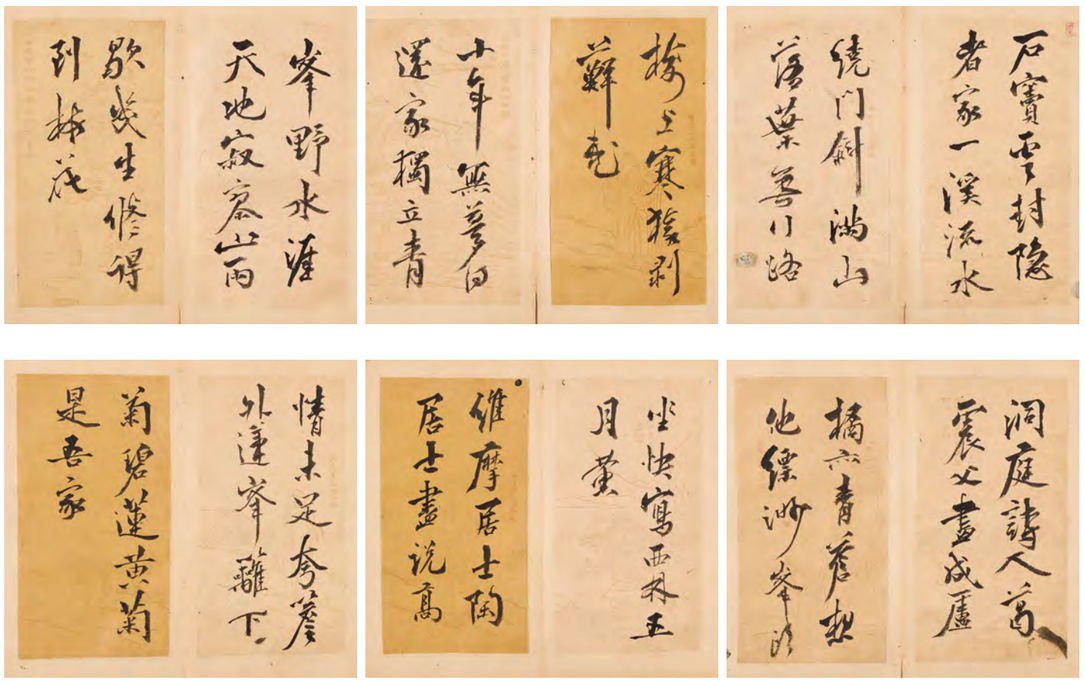
추사 **김정희** 1786-1856

秋史 金正喜 Kim JeongHui

완당심화 阮堂心畵 Calligraphy Album

첩 Album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書_28.5×31cm
畵_23×12cm





₩ 50,000,000-100,000,000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가 당나라와 송나라의 유명한 시 10여 수를 행초서로 쓴 친필 글씨첩이다. 겉표지에는 <완당심화阮堂心畫> 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첨을 누가 썼는지는 기綺란 글자만 확인될 뿐 알 수 없다. 속지의 첫 폭에는 작자 미상의 홍매화 그림이 있다. 본문은 모두 14장 28면에 걸쳐 적혀 있는데, 각 시가 적힌 종이의 색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인장이나 낙관이 남아 있지 않아 누구를 위해 쓴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수록된 시들은 전반적으로 안빈낙도와 은거, 무욕의 삶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추사가 추구했던 삶의 태도와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阮堂心畫(綺□□) 완당심화(기□□)



石竇雲封隱者家 바위 굴이 구름에 덮인 곳이 은자의 집인데
一溪流水繞門斜 한 줄기 시내는 대문 앞을 감돌아 흘러가네
滿山落葉無行路 온 산에 잎이 떨어져 다니던 길마저 사라졌는데
樹上寒猿剝薜花 나무 위 쓸쓸한 원숭이만 이끼 꽃을 벗겨내네[1]

1) 송나라 정사초(鄭思肖, 1241-1318)의 <은자를 찾아가다[訪隱者]>라는 시이다.

十年無夢得還家 십 년 동안 고향 집에 돌아가는 꿈조차 없어
獨立青峯野水涯 푸른 봉우리 들판 시내 가에 홀로 서 있노라
天地寂寥山雨歇 천지는 고요하고 산중의 비마저 그쳤는데
幾生修得到梅花 몇 생이나 수련해야 매화로 태어날 수 있을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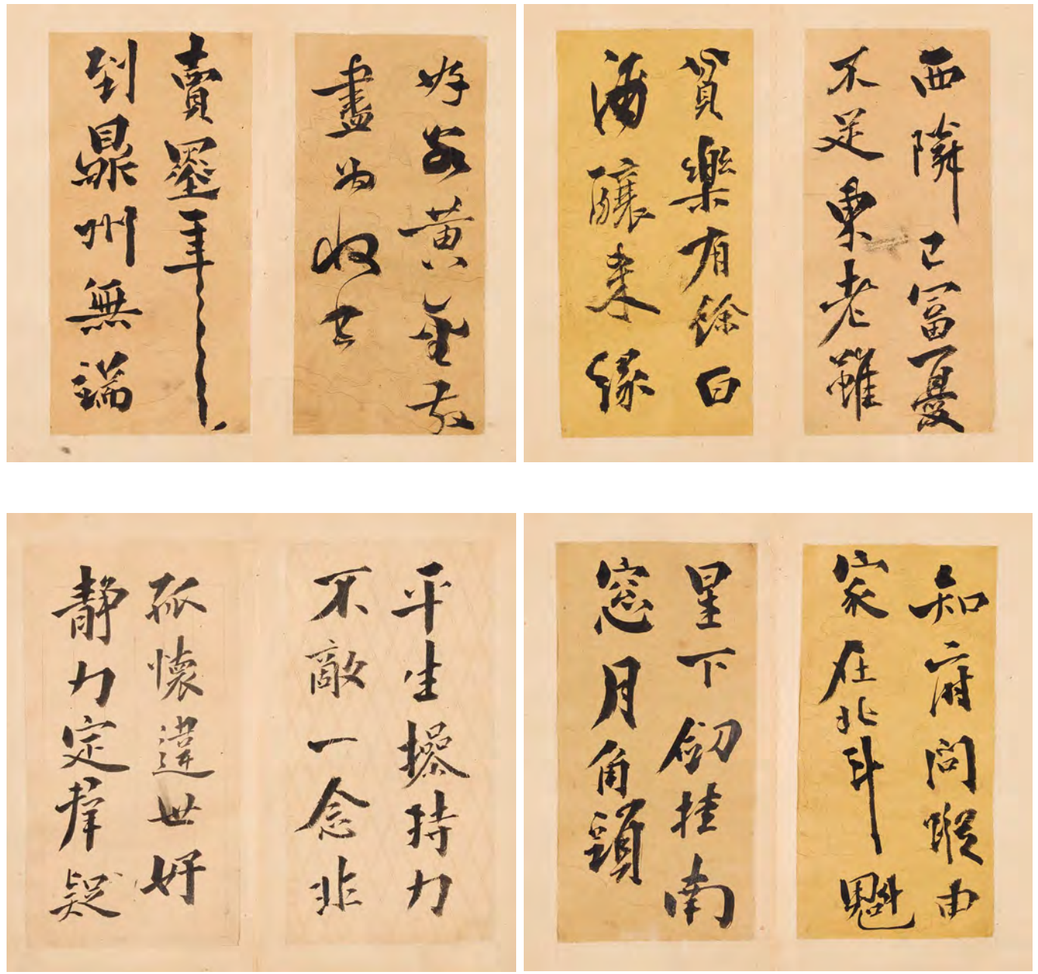
2) 송나라 사방득(謝枋得, 1226-1289)의 <무이산중武夷山中>이란 시이다.

洞庭詩人葛震父 동정산의 시인 갈진부 선생이
畫成盧橘亦清蒼 비파 그림을 완성하니 또한 맑고 울창하네
想他縹緲峰頭坐 상상하건대, 갈진부는 표모봉 꼭대기에 앉아
快寫西林五月黃 서림의 오월에 익은 비파를 시원스레 그려냈으리[3]

3) 청나라 왕사정(王士禎, 1634-1711)의 <갈일룡이 그린 비파[葛一龍枇杷]>라는 시이다. 본문의 갈진부葛震父는 갈일룡(葛一龍, 1567-1640)을 가리키는데, 동정洞庭 출신 시인이자 화가이다

維摩居士陶居士 유마거사와 도연명이
盡說高情未足夸 고상한 정취를 아무리 말한들 자랑하기 부족하리
簷外蓮峰籬下菊 처마 밖에 연꽃 봉우리요 계단 밑엔 국화꽃 피니
碧蓮黃菊是吾家 푸른 연봉 노란 국화 이곳이 바로 나의 집이라네[4]

4) 당나라 사공도(司空圖, 837-908)의 <빗속에서[雨中]>라는 시이다.



西鄰已富憂不足　서쪽 이웃은 부유해도 부족함을 근심하지만
東老雖貧樂有餘　동쪽 노인은 가난해도 즐거움이 넉넉하네
白酒釀來緣好客　막걸리를 담가 내놓으니 반가운 손님 때문이고
黃金散盡爲收書　황금을 모조리 흩음은 책을 모으기 위함이라네[5]

5) 당나라 여동빈(呂洞賓, 796-1016)의 <희녕 원년(1068년) 8월 19일에 호주의 동림사를 지나며[熙寧元年八月十九日過湖州東林]>라는 시이다.

賣墨年年到鼎州　해마다 먹을 팔러 정주 땅에 들어왔건만
無端知府問蹤由　뜬금없이 고을 수령은 내 신분과 내력을 묻네
家在北斗魁星下　내 집은 북두칠성 괴성 아래에 있고
劍挂南窓月角頭　보검은 남쪽 창가 달빛 모퉁이에 걸어 두었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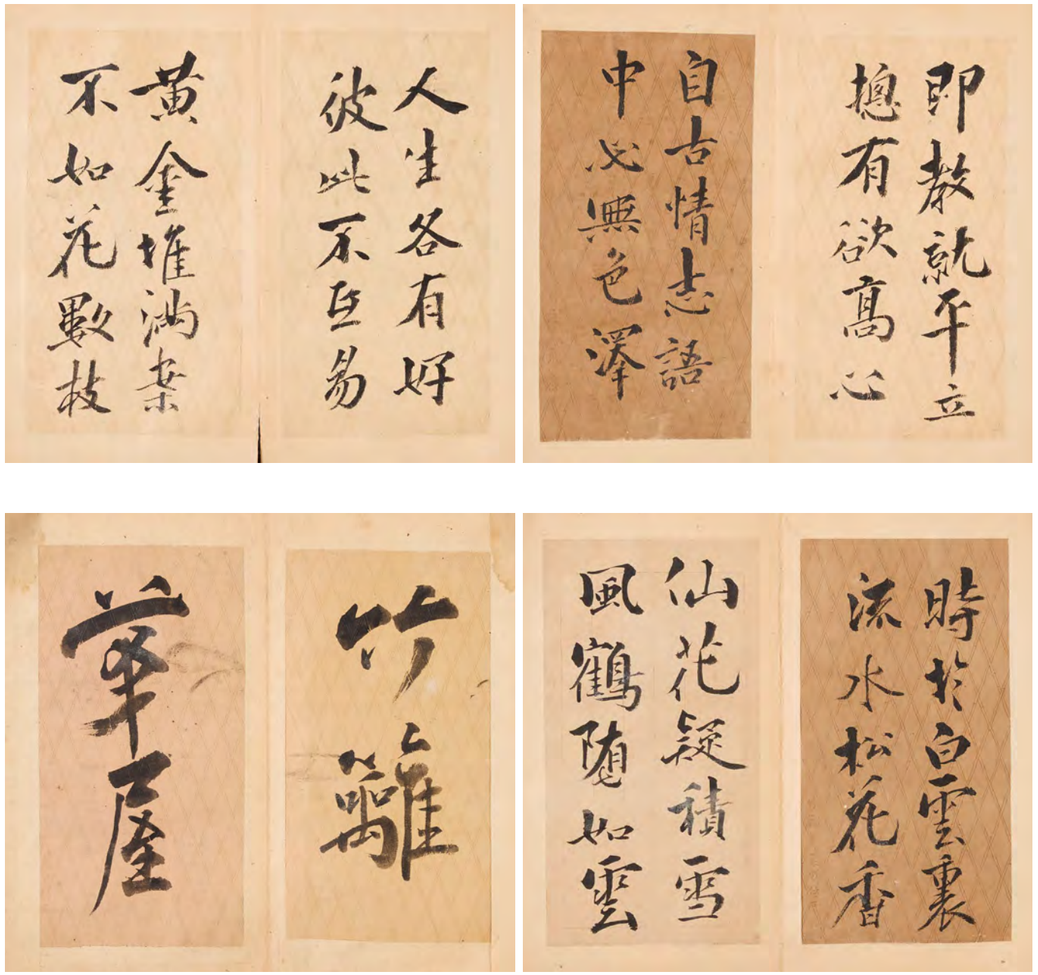
6) 당나라 여동빈(呂洞賓, 796-1016)의 <낭주에서 붓가는 대로 짓다[朗州戲筆]>라는 시이다. 판본에 따라 글자출입이 다소 있다.

平生操持力　한평생 마음을 다잡아 오던 힘도
不敵一念非　그릇된 마음 하나를 당하지 못하네[7]

7) 청나라 왕무굉(王懋竑, 1668-1741)의 <좌우에 쓰다. 2수[書座右二章]> 중의 일부이다.

孤懷違世好　외로이 간직한 마음은 세속의 취향과 등지고
靜力定群疑　내면의 고요한 힘은 대중의 의혹을 가라앉힌다[8]

8) 청나라 계복(桂馥, 1736-1805)의 <소치원에게 드리다[贈蘇卮園]>라는 시의 일부이다.



卽敎就平立　곧장 평평한 땅에 나란히 서게 하더라도
摠有欲高心　모두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

自古情志語　예로부터 참된 마음과 뜻이 담긴 말은
中必無色澤　그 속에 결코 화려한 빛깔과 기교가 없다

人生各有好　인생이란 제각기 좋아하는 바가 있으니
彼此不互易　너와 내가 서로 바꿀 수는 없다네

黃金堆滿案　황금이 책상 위에 가득 쌓여 있어도
不如花數枝　아름다움 꽃 두어 가지만 못하도다

時於白雲裏　때때로 흰 구름에 잠긴 산에 들어가면
流水松花香　흐르는 냇물 위로 송화 향기 감돌았네

仙花疑積雪　신선의 꽃은 흰 눈이 쌓인 듯싶고
風鶴墮如雲　바람 탄 학은 구름처럼 날아 내리네

竹籬 蓬屋　대나무 울타리와 쑥대로 지은 초가집

019

소치 **허련** 1809-1892

小癡 許鍊 Huh Ryun

설옹산관 雪擁山館 Mountain Lodge Embraced by Snow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21×34㎝

₩ 5,000,000-10,000,000

雪擁山館 설옹산관
小癡 소치

[인문] 小癡

흰 눈에 푹 파묻혀 있는 고즈넉한 산속 풍경을 그렸다. 세상과 왕래가 끊어진 채 자연 속의 고요한 겨울철 산중의 운치 있는 정취가 느껴진다.



020

연담 **김명국** 1600-1663 이후

蓮潭 金明國 Kim MyeongGuk

신선도 神仙圖 Immortals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35.5×29㎝

₩ 40,000,000-80,000,000

조선시대 신선도는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불로장생과 무병장수, 길상에 대한 염원을 담은 그림으로, 선비들의 풍류와 은일사상 등이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경윤(李慶胤, 1545-1611), 김명국(金明國, 1600–1663년 이후), 심사정(沈師正, 1707-1769),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수민(李壽民, 1783-1839), 장승업(張承業, 1843-1897) 등 여러 화가가 신선도를 그렸으며, 특히 연담 김명국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도화서 화원으로 도교의 신선과 도사, 불교의 고승 등 초자연적 인물을 표현하는 도석인물화道釋人物畵 분야에서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하였다. 김명국은 중국 명대 절파浙派 화풍의 영향을 받아 강한 먹의 농담 대비와 호방하고 역동적인 필치를 구사하였으며, 바위와 나무, 인물의 옷주름 등을 굵고 꺾임 있는 선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생동감과 필묵의 기운을 강조하였다.

본 작품은 울창한 나무 아래 바위에 앉아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신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화면 중앙에는 머리를 묶고 긴 수염을 기른 노인이 넉넉한 도포를 입고 편안하게 앉아 있으며, 가슴 앞에는 부채로 보이는 지물을 펼쳐 들고 있다. 인물의 왼편에는 작은 술병이 놓여 있어 세속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신선의 풍류를 연상시킨다. 화면 왼쪽에서 뻗어 나온 굵은 나무줄기와 상단을 넓게 덮은 가지와 잎은 인물을 감싸는 듯한 구도를 이루며, 주변의 바위와 풀을 간략하게 배치하여 고요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자연 속에 신선이나 은일한 고사를 배치하여 탈속적인 정신세계를 표현한 수하인물도樹下人物圖의 전통과 연결된다.

화풍에서는 인물의 얼굴과 수염을 가는 필선으로 섬세하게 묘사한 반면, 옷주름과 나무, 바위 등은 비교적 자유롭고 간략한 필치로 표현한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인물의 의습선은 굵고 가는 선을 적절히 혼용하고, 소매와 무릎 부분에서는 꺾임 있는 선을 사용하여 옷의 형태와 양감을 나타내었다. 나무줄기와 바위는 담묵을 넓게 펼치고 부분적으로 농묵을 가하여 깊이감을 표현하였으며, 나뭇잎은 짧고 불규칙한 필획을 중첩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드러내었다. 또한 신선의 의복에는 엷은 황갈색과 청록색의 담채를 가하여 수묵 위주의 화면에 은은한 색채감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세밀한 인물 묘사와 자유로운 필묵, 부드러운 담채가 조화를 이루는 표현 방식은 김명국의 호방한 도석인물화와 함께 산수인물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화풍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인물의 용모와 채색법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명국의 <산수인물도>(본관2530)와 비교할 만하다. 두 작품 모두 긴 수염을 기른 노인을 중심으로 황갈색의 의복과 청록색 옷깃을 표현하고 있으며, 얼굴의 섬세한 묘사와 자유로운 의습선에서 유사성이 확인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전 김명국필 <신선도>(덕수2030)는 신선과 술병 등의 기물을 소재로 하고, 황갈색과 청록색 담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다만 본 작품은 두 작품에 비해 인물이 비교적 정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무와 바위를 부드러운 담묵으로 처리하여 차분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본 작품은 세로 35.5㎝, 가로 29㎝의 비교적 작은 화면으로 제작되었으며, 중앙에 세로 방향의 접힘 흔적이 남아 있어 본래 화첩의 한 면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김명국은 산수와 고사인물, 도석인물 등 다양한 주제를 화첩 형식으로도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소품 회화는 인물의 개성과 주변 자연의 정취를 간결한 화면에 담아내는 특징을 지닌다. 본 작품 역시 인물을 중심으로 자연 경관을 간략하게 배치하고, 자유로운 필묵과 은은한 담채를 통해 신선의 초탈한 정신세계와 은일의 정취를 표현한 작품으로, 조선 중기 도석인물화와 소경산수인물화小景山水人物畵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참고문헌]
1. 백인산, 「조선왕조 도석인물화」, 『간송문화』 77,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9.
2. 김자람, 「김명국 회화와 후대의 시각」,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3. 심영옥, 「조선중기 '수(水)' 소재의 소경산수인물화(小景山水人物畵)에 나타난 도가적 예술관—관폭도(觀瀑圖), 탁족도(濯足圖), 조어도(釣魚圖)를 중심으로—」, 『동양예술』 7, 한국동양예술학회, 2003.





[참고도판]
1. 김명국, <산수인물도>, 54.8×3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2530).
2. 전 김명국필, <신선도>, 종이에 채색, 60.6×40.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2030).



021

전 **신사임당** 1504-1551

傳 申師任堂 Attributed to Shin Saimdang

초충도 8폭병풍 草蟲圖八幅屛風 Plants and Insects, Eight-panel Folding Screen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각 35×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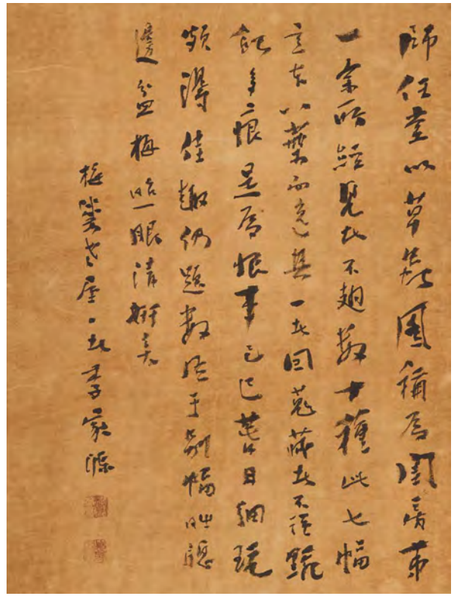
₩ 70,000,000-140,000,000



본 작품은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초충도이며, 8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임당은 시와 글씨, 학문은 물론 그림 실력도 뛰어나 묵죽, 화조, 산수 등을 두루 통한 인물이었다.

본 작품은 신사임당의 대표적인 초충도 작품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비교하면, 동일한 소재의 사용과 화면구성을 볼 수 있다. 6폭 수박을 먹는 쥐, 3폭 맨드라미 주위로 날아드는 나비와 곤충들, 2폭과 4폭 각각 풍성하게 열린 오이와 가지 등 사임당 초충도 주요 소재들을 찾을 수 있다. 우리네 마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연물을 따스한 필치로 담아낸 신사임당만의 소박한 자연미가 두드러지는 한국적인 초충도이다.





[8폭]

師任堂, 以草蟲圖, 稱爲閨房第一. 余所經見者, 不翅數十種, 此七幅, 意者八葉, 而逸其一者. 因蒐藏者不謹, 蟲蝕多痕, 是爲恨事. 己巳暮日, 細玩頗得佳趣, 仍題數語于別幅. 時牕邊盆梅照眼清妍矣.

사임당師任堂은 초충도草蟲圖로 규방의 제일가는 예술가로 칭송을 받았다.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수십 종 이상인데, 이 7폭은 아마도 8폭이었다가 한 폭을 잃어버린 것이라 생각한다. 수장한 사람이 신중하게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벌레의 흔적이 많으니, 이것이 아쉬운 점이다. 기사년(1989)이 저무는 무렵에 찬찬히 열람하며 좋은 흥취를 얻었기에 이에 몇 마디 말을 별도의 폭에 적는다. 때는 창가 화분의 매화가 눈에 예쁘게 들어올 때였다.

梅花老屋主者李家源 매화노옥 주인 이가원[1)]

1) 이가원(李家源, 1917-2000)의 호는 연민淵民이다. 경상북도 안동 출생으로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2-1571) 선생의 14대손이다. 가학家學을 통해 전통 학문을 수련하였고, 명륜전문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며 한국한문학의 학문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1737-1805) 및 실학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참고도판]
전 신사임당, <초충도> 부분, 종이에 채색, 각 32.8×2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신수 3550).



022

석파 **이하응** 1820-1898

石坡 李昰應 Lee HaEung

괴석묵란도 10폭병풍 怪石墨蘭圖十幅屛風

Rocks and Orchids in Ink, Ten-panel Folding Screen

1876
병풍 Folding Screen
비단에 수묵 Ink on Silk
149.5×400㎝

光緒二年丙子閏夏, 老石寫于壽酌樓.
광서 2년 병자년(1876) 윤5월, 노석이 수작루에서 그리다.

[인문] 石坡, 大院君章, 褒烏號不如藏此書[1)]

1) '포오호불여장차서褒烏號不如藏此書'라는 도장으로 황제의 활[弓]인 오호를 품는 것보다 이 책을 간직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 80,000,000-150,000,000



석파 이하응(石坡 李昰應, 1820-1898)은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생부이자 흥선대원군으로, 조선 말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묵란화풍을 이룩한 서화가이다. 추사 김정희의 영향을 받아 묵란화를 익힌 그는 이후 다양한 구도와 필묵법을 모색하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발전시켰으며, 당대부터 그의 난초는 '석파란石坡蘭'이라 불릴 만큼 명성을 얻었다.

이 작품은 화면 좌측에 '光緖二年丙子閏夏 老石寫于壽酌樓'라는 관서와 '석파石坡', '대원군장大院君章'의 인장이 있어 1876년 윤5월 운현궁 수작루壽酌樓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작루는 1865년 경복궁 중건 당시 발견된 수진보작壽進寶酌을 기념하여 운현궁에 건립된 누각으로 전한다. 이하응이 이 작품을 그린 1876년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양주 직곡산방直谷山房에 은거하던 시기를 거쳐 운현궁으로 돌아온 무렵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괴석과 난초를 그린 석란도石蘭圖이면서도 일반적인 묵란도 병풍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구성을 보여준다. 10폭의 화면을 하나의 연속된 풍경으로 구성한 일지병풍一枝屛風 형식으로, 가로 약 4m에 달하는 넓은 화면에 기이한 바위와 굽이치는 언덕을 배치하고 그 사이로 수많은 난초를 펼쳐 놓았다. 특히 화면 양쪽에는 가파른 절벽을 배치하고 중앙에는 높낮이가 다른 언덕과 괴석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난초가 자연 속에 자생하는 듯한 공간감을 형성하였다.

괴석은 옅은 먹의 거친 필선으로 윤곽과 질감을 표현하고, 가장자리에는 농묵의 태점苔點을 찍어 형태를 강조하였다. 반면 난초는 길고 유연한 곡선과 짧고 가는 필선을 교차하여 표현하였으며, 잎과 꽃대의 농담과 방향을 달리하여 화면에 풍부한 변화를 부여하였다. 특히 왼쪽의 가파른 절벽에서 아래로 늘어진 수많은 난초와 중앙의 굽이치는 언덕을 따라 피어난 난초들은 화면 전체에 강한 운동감과 생동감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난초와 괴석을 단순한 문인화의 소재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장대한 풍경 속에 배치한 점은 이 작품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는 두 폭씩 대칭을 이루거나 개별 화면에 난초와 괴석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석파의 석란도와 차별화되는 것으로, 묵란화의 형식을 산수화적인 공간 구성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석파는 1875년경 직곡산방에 은거하면서 괴석과 난초를 결합한 석란화의 구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이후 이러한 형식을 자신의 대표적인 화풍으로 정착시켰다. 본 작품은 그 직후인 1876년에 제작된 것으로, 새로운 석란화 양식을 대형 병풍에 적용한 사례이다. 특히 제작 연대와 장소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기존의 대련식 구성을 벗어나 열 폭 전체를 하나의 화면으로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석파 이하응의 묵란화풍이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023

소호 **김응원** 1855-1921

小湖 金應元 Kim UngWon

괴석묵란도 대련 怪石墨蘭圖對聯 Rocks and Orchids in Ink (Pair)

족자 Hanging Scroll
비단에 수묵 Ink on Silk
각 126×16.8㎝

₩ 2,000,000-8,000,000



石不能言花無語 바위는 말을 못하고 꽃은 말이 없는데
傳聲空谷風兼雨 빈 골짜기에 소리가 들리니 바람 불고 비가 오네

小湖 소호

[인문] 師古, 金應元印, 小湖, 筆精墨良

離騷千載托名尊 이소경은 천 년 동안 그 이름도 존귀하여
九畹香濃醉墨痕 구원에 향기는 짙고 취한 먹의 흔적 남았네

小湖金應元 소호 김응원

[인문] 墨緣, 金應元印, 小湖, 淸風明月不用一錢買



024

석파 **이하응** 1820-1898

石坡 李昰應 Lee HaEung

석란도 石蘭圖 Rocks and Orchids

1888
족자 Hanging Scroll
비단에 수묵 Ink on Silk
121×38㎝

₩ 4,000,000-8,000,000

戊子冬石坡作 무자년 겨울, 석파 그리다.

[인문] 大院君章, 石坡, 剛大[1]

1) '강대剛大'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다[至大至剛]는 뜻으로 맹자가 호연지기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025

석파 **이하응** 1820-1898

石坡 李昰應 Lee HaEung

석란도 石蘭圖 Rocks and Orchids

1889
족자 Hanging Scroll
비단에 수묵 Ink on Silk
133×67.5㎝

₩ 20,000,000-40,000,000

石坡七十叟作 석파 70세에 그리다.

[인문] 大院君章, 石坡, 衰烏號不如藏此書



026

평생도 10폭병풍

平生圖十幅屛風

Scenes from a Life, Ten-panel Folding Screen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각 125.5×31.4㎝

₩ 20,000,000-40,000,000



兩老回婚之宴
두 노인의 결혼 60주년 잔치
以上人生十大行樂
이상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열 가지 즐거움



壽宴子孫獻酌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에서
자손들이 술잔을 올리다



翰林內閣仕進
한림원 내각의 벼슬살이로
나아가다



訓鍊大將隨駕
훈련대장이 임금 행차 때에
가마를 수행隨行



道伯到臨之路
관찰사觀察使가 부임하여
내려오는 길



領相退朝之景
영의정領議政이 조정에서
정무를 마치고 물러나오는 풍경



壯元及第唱榜
장원급제자 발표



結婚新行之儀
혼인식



正卿出入光景
정2품 이상 벼슬아치의 행차



出生後初度日
출생 후 첫 돌잔치

본 작품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화목인 사대부의 이상적 삶의 일대기를 그린 평생도이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단원 김홍도의 화풍을 따르는 모당평생도募堂平生圖 계열로 10폭으로 구성되었다. 돌잔치, 혼인식, 과거급제와 삼일유가, 최초 벼슬길, 관찰사 부임, 판서행차, 정승행차, 회혼례이며 일생의 주요한 통과의례와 성공적인 관직생활 장면을 보여준다. 본 작품은 1폭, 7폭, 10폭을 외에는 일반적인 평생도 순서와 차이있게 장황되었다. 부드러운 담갈색의 채색과 원경의 산수표현이 특징적이다. 평생도는 벼슬을 지낸 사대부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록화이자, 사대부의 일상을 담은 사인 풍속화로 당시 시대관이 반영된 작품이다.

[참고문헌]
서윤정, 「《평생도(平生圖)》의 제작 경향과 변화 양상」, 『한국문화』9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참고도판]
김홍도, <모당 홍이상공 평생도>, 비단에 수묵채색, 75.1×39.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5768).



027

오원 **장승업** 1843-1897

吾園 張承業 Jang SeungYeop

산수인물영모화조 10폭병풍 山水人物翎毛花鳥十幅屛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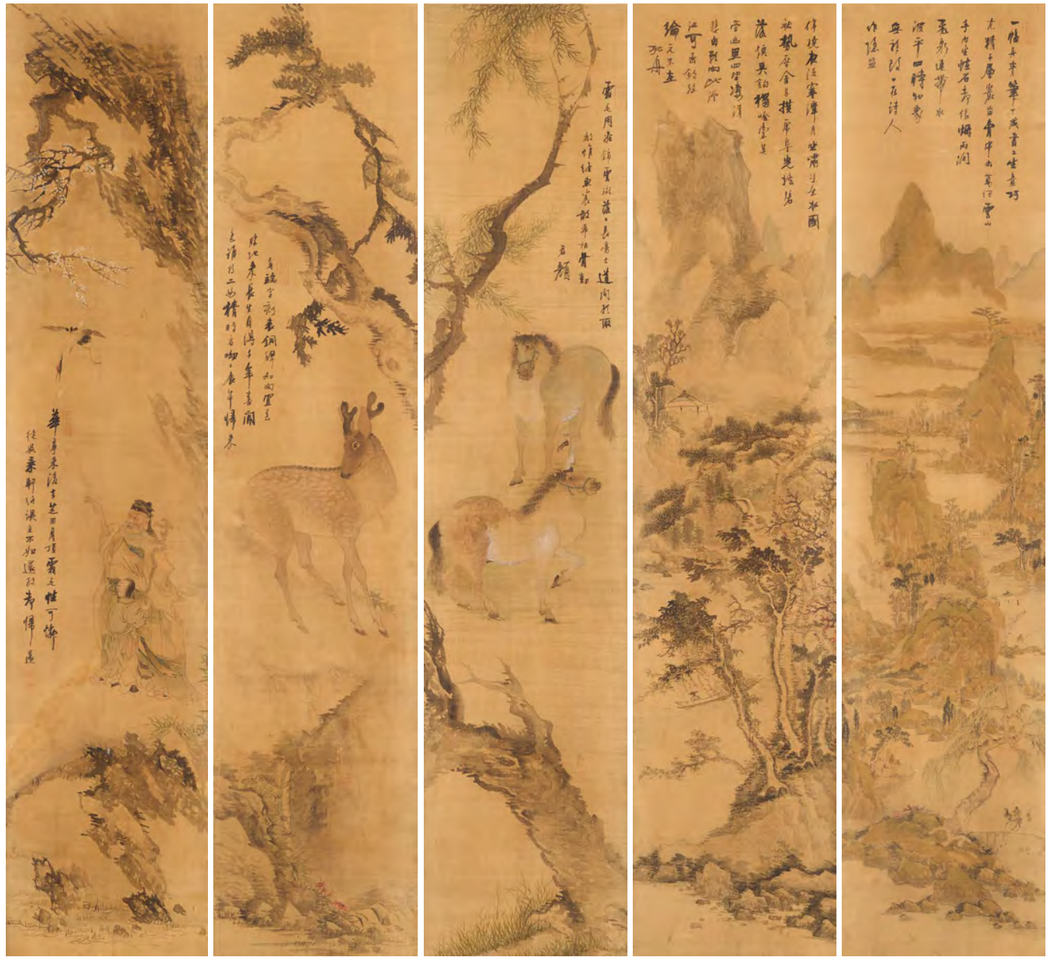
Landscapes, Figures, Birds and Flowers, Ten-panel Folding Screen

병풍 Folding Screen
비단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Silk
각 155×33cm

₩ 80,000,000-150,000,000









[1폭]

一幅丹靑筆下成　한 폭의 그림이 붓 끝에서 완성되니
畵工生意巧尤精　화공의 생동하는 뜻은 교묘하고 정밀하네
千層巖崮胸中出　천 겹의 바위 굴은 가슴속에서 나오고
萬仞雲山手內生　만 길의 구름 산은 손끝에서 생겨나네
怪石却依烟雨潤　기괴한 바위는 안개비 머금어 도리어 촉촉하고
飛泉連帶水波平　날아 내리는 폭포는 물결로 이어져 평온해지네
四時物象無移改　사계절 만물의 풍경은 변함이 없으니
一在詩人作隱盟　늘 시인들이 은거하리라 약속을 맺도다

[인문] 翰墨因緣, □, □



[2폭]

停橈夜泛寒潭月　차가운 연못 위에 밤에 노 젓기를 멈추고
坐嘯凉生水國秋　앉아 휘파람 부니 물의 고장에 서늘한 기운 솟아나네
勢壓金昌橫虎阜　기세는 금창문을 누르고 호구산에 비스듬히 비껴 있고
光搖碧落煥吳鈎　달빛은 푸른 하늘을 흔들며 오구검처럼 빛나도다
獨吟索其牽幽思　홀로 읊조리며 쓸쓸히 깊은 시름 자아내다가
四望凄淸悲白頭　사방을 둘러보니 청량하여 흰 머리가 서글프네
向此溷江可垂釣　맑은 강물을 향해 낚싯대를 드리울 만한데
絲綸元不在孤舟　세상의 공명은 본래 이 외로운 배에 없도다

[인문] 翰墨因緣, □, □



[3폭]

霜毛周盡錦雲斑　흰 털이 온몸에 덮이고 비단 구름처럼 무늬져
落日長鳴大道間　지는 해에 큰 길 한복판에서 길게 울부짖도다
願取敝帷絡惠養　해진 휘장으로라도 덮어주어 은혜롭게 길러 주시면
敢希枯骨動君顔　감히 마른 뼈로도 주인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리[1]

[인문] 翰墨因緣, □, □

1) 이 글은 청나라 원매 (袁枚, 1716-1797)의 「병마病馬」라는 시이다.



[4폭]

角端字刻表銅牌　각단의 이름을 도장으로 새겨 청동 패에 드러내니
知向宜春勝地來　의춘의 빼어난 승경을 향해 찾아왔음을 알겠도다
長生自得千年壽　불로장생하여 저절로 천 년의 장수를 얻으니
閒色誰將二女猜　아담한 그 빛깔 누가 아황과 여영의 자태에 비기겠는가
時看呦呦食苹歸來　때때로 쑥을 먹다 길게 울며 돌아옴을 보니

[인문] 翰墨因緣, □



[5폭]

華亭來後去芝田　학이 화정을 떠나와 신선의 영지밭으로 들어가니
丹頂霜毛性可憐　붉은 정수리 흰 깃털에 그 성품 어여쁘다
徒與乘軒終誤主　수레를 태워 우대하다 끝내 주인을 그르치느니[1]
不如還放却歸還　도로 놓아주어 본래 자연으로 돌아감만 못하리

[인문] 翰墨因緣, □, □

1) 춘추시대 위衛 의공(懿公, ?-B.C. 690)이 학을 사랑하여 수레를 태우고 벼슬을 주었다가 나라를 망친 고사가 있다.



[6폭]

法尙無爲獨得宗　불법은 무위를 으뜸으로 삼으니 홀로 정통을 얻으셨고
五門十善振高風　수행의 다섯 문과 열 가지 선행으로 높은 기풍 떨치셨네
悟將佛化何如妙　깨달으면 장차 부처가 되니 어찌 그리 오묘한가
堪破禪機控是空　선의 기틀을 능히 간파하시어 공空을 잡으셨도다

[인문] 翰墨因緣, □



[7폭]

一片雄姿白錦毛　한 조각 웅장한 자태에 흰 비단 깃털로
高飛萬里見秋毫　만 리 높이 날아올라 터럭 끝까지 살펴보네
金眸爍彩明如電　금빛 눈동자는 번개처럼 밝은 빛을 번뜩이고
鐵爪鉤鋒利似刀　무쇠 발톱 갈고리 부리는 칼날보다 날카롭도다
怒搏栖禽惟自得　깃든 새를 세차게 덮침은 오직 제 뜻대로이고
慣擒狡兔不辭勞　교활한 토끼를 잡는 일엔 수고를 아끼지 않네
雲霄萬里終須到　만 리 아득한 구름 위를 끝내 다다르고 싶으나
爭奈無人爲解絛　아무도 발목 끈을 풀어줄 이 없으니 어이하랴

[인문] 翰墨因緣, □



[8폭]

水楓葉下, 乍湖光淸凉, 涼生商素, 宛如西帝宸遊羅翠蓋, 擁出三千宮女. 絳采嬌弄春色.
물가 단풍잎 떨어지더니, 문득 호숫가 물빛이 맑고 서늘하네. 가을의 맑고 서늘한 기운 솟아나니, 마치 가을 신이 행차하며 푸른 일산을 늘어뜨리고 삼천 궁녀를 거느리고 나온 듯하도다. 진홍빛 비단옷은 마치 봄날의 빛을 희롱하는 듯하구나.[1]

[인문] 翰墨因緣, □, □

1) 이 글은 송 중수(仲殊, ?-?)의 「염노교念奴嬌」라는 사詞의 일부로, 약간의 윤색을 가하였다.



[9폭]

或在江湖或在淵　강호에 노닐다가 혹은 깊은 연못에 머물며
隨時隨處自悠然　때와 장소에 따라 자연스레 유유자적하도다
動中活潑三毬浪　움직일 땐 세 겹의 물결 헤치며 활발발하고
靜裏浮沈一鏡天　고요할 땐 거울 같은 수면에 오르내리네
遠逝勿呑漁父餌　멀리 헤엄쳐도 어부의 미끼를 삼키지 말고
深潛豈躍聖人船　깊이 잠겨서 함부로 성인의 배 위로 뛰어오르랴
藏修頭角成龍去　재능을 감추고 수양하다 마침내 용이 되어 올라가
多作甘霈齊旱年　가뭄 든 해에 풍성한 단비를 골고루 내려 주소서

[인문] 翰墨因緣, □



[10폭]

秋風吹爾過瀟湘　가을바람이 기러기를 불어 소상강을 지나더니
又逐東風復北鄉　또 봄바람 따라 다시 북녘으로 돌아가는구나
萬里雲程高奮迅　만 리 구름 길에 높이 솟구쳐 올라서
九天霜翮快翱翔　구천의 서리 맞은 깃털로 시원스레 날개를 치네
蠻烟瘴雨山川異　남방의 안개와 습한 비에 산천의 풍경 낯설고
燕樹胡沙道路長　연나라 나무 북쪽 모래바람 길은 멀기도 하네
惟有客愁歸未得　오직 나그네만 시름 깊은 채 돌아가지 못하고
獨依斜日望微茫　홀로 지는 해에 의지하여 아득한 곳만 바라보네

吾園張承業　오원 장승업

[인문] 翰墨因緣, □, □





028

석당 **이유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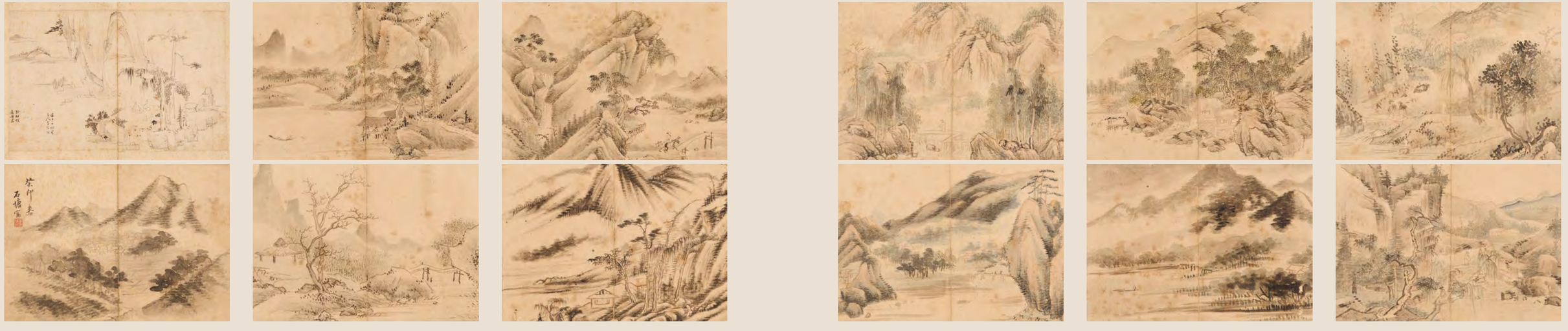
石塘 李維新 Lee YouSin

산수도 12폭병풍 山水圖十二幅屛風 Landscapes, Twelve-panel Folding Screen

1783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각 24.5×35.2㎝

₩ 36,000,000-70,000,000





癸卯春 石塘寫 계묘년(1783) 봄, 석당이 그리다.





석당 이유신(石塘 李維新, ?-?)은 조선 후기 여항閭巷 문인으로 자는 사윤士潤, 호는 석당石塘이다. 그의 구체적인 생몰년이나 삶의 궤적은 상세히 전해지지 않지만, 유재건(劉在建, 1793-1880)의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에 그가 그림을 잘 그렸고 돌을 좋아하는 성품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당대 문인들과 깊이 교유하며 세속의 명리를 떠나 자연 산수 간에 거닐며 마음을 다스리는 문인화의 오랜 전통을 자신만의 필치로 계승했다.

이유신의 화풍적 진면목은 그의 대표작인 리움미술관 소장의 <양류노주도楊柳老舟圖>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추경산수도秋景山水圖> 등 현존하는 주요 작품들을 통해 그 윤곽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에서도 공통으론 나타나듯, 물기를 듬뿍 머금은 습윤濕潤한 윤필潤筆과 서정적인 선염渲染이 화면 전체의 운치를 배가시킨다.

본 작품 역시 이러한 이유신 특유의 조형적 모색과 서정적 필치가 응축된 유물이다. 개별 병풍이나 대형 족자와 달리, 작은 화면에 연작 형태로 담아내는 화첩이라는 감상 형식을 통해 화면 곳곳의 소경들을 밀도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선명히 남아 있는 '공인 봄, 석당이 그리다恭印春石塘寫'라는 관지와 '석당' 낙관은 본 화첩이 그의 진필임을 명증하게 보여준다. 화첩 내부에는 수묵의 맑은 농담과 습윤 전형의 미법米法 점법이 어우러져, 산속 정자에서 고요히 폭포를 바라보는 고사의 시선, 나귀를 타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기려유람騎驢遊覽의 정취, 그리고 한림寒林과 강가에 낚싯대를 드리운 어옹의 모습 등 사계절과 시공간을 아우르는 산수 소경이 조화를 이룬다.

본 작품은 사계절의 변화와 자연 산수의 서정적인 풍경을 안정된 구도와 유려한 필치로 담아냈으며, 수묵의 은은한 농담과 엷은 채색의 섬세한 변용을 통해 조선 후기 신감각파 산수화로 이어지는 경향을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산수 화첩으로서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참고도판]
1. 석당 이유신 <추경산수도>, 30.3×25.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건판17259).
2. 석당 이유신 <양류노주도>, 29.8×43.7㎝, 리움미술관 소장.
3. 석당 이유신 <가헌관매도>, 35.5×30.2㎝, 개인소장.

029

학산 **김창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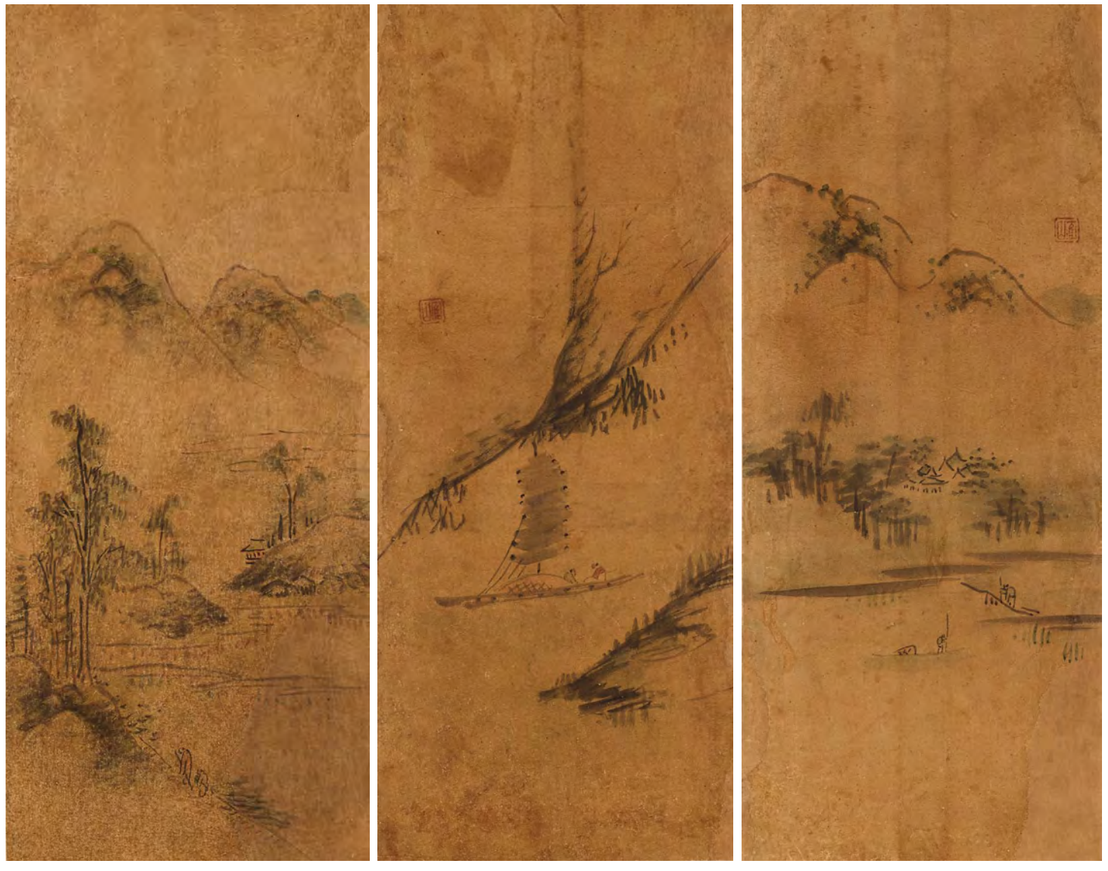
鶴山 金昌秀 Kim ChangSu

산수화첩 5폭 山水畫帖五幅 Landscape Album, Five Paintings

첩 Album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각 52×22㎝

₩ 5,000,000-20,000,000

[인문] 鶴山







학산 김창수는 학산 윤제홍(鶴山 尹濟弘 1764-?), 북산 김수철(北山 金秀哲, ?-?)과 같이 '학산파鶴山派'로 불리며, 조선후기에서 말기에 참신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색적인 화풍을 구사한 화가이다. 학산파 화가들은 수채화처럼 옅은 채색을 사용하여 사물을 간략하고 담백하게 표현하였다. 이들은 조선말기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의식의 변화 위에 전통남종화법을 토대로 서양화법을 수용하여 개성적인 이색화풍을 형성하고 새로운 시대감각을 지녔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김창수의 산수화는 전통 산수화의 계승과 변형이 동시에 일어났던 조선 말기 회화의 한 흐름을 보여준다. 본 작품은 과감한 형태 변형, 간결한 필선, 맑은 담채를 활용한 김창수 독자적인 회화 세계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화면은 전체적으로 여백이 있고 산과 나무 등 등장하는 경물을 간결한 필치로 표현하였다. 산봉우리는 굵은 먹선으로 그리고 청색, 담갈색으로 선염하여 먹이 번지는 효과로 연하산수煙霞山水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각 화면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다리를 건너거나 산을 오르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며, 초옥에 앉아 안개 낀 풍경을 바라보는 등 조용하고 여유로운 산속의 전경을 담았다.





[참고도판]
1. 김창수, <추경산수도>, 종이에 수묵담채, 91.5×4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건판 34613).
2. 김창수, <하경산수도>, 종이에 채색, 92×38.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030

학산 **김창수** ?-?

鶴山 金昌秀 Kim ChangSu

화훼도 6폭 花卉圖六幅 Landscapes, Six Pain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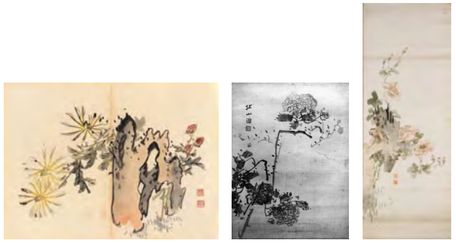
미표구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각 137×40㎝

₩ 18,000,000-30,000,000

김창수는 특히 산수도와 화훼도에 능했다. 본 작품은 여백을 강조한 화면구성, 자유분방한 태점, 청색, 담갈색 등 담채를 활용한 선염으로 맑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화훼도이다. 전통 화훼도에서 볼 수 없는 직선적인 윤곽선의 간략한 필법으로 바위의 형태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단순화하였다. 학산파의 대표적인 화가 북산 김수철 화훼도와도 매우 유사하다. 국화를 수레바퀴 모양과 같은 법륜문法輪紋으로 표현, 자양화를 원안에 X자로 표현, 능소화의 한쪽으로 치우진 구도와 묘사한 표현 등에서 두 화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가까운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도판 1-3]

각 폭에 학산의 서명과 소장인으로 보이는 인장이 낙관되어있다. 풍월주인風月主人은 바람과 달과 같이 자연을 즐기고 벗 삼아 사는 선비의 모습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이현주, 「이색화풍(학산파) 산수화에 관한 연구 : 윤제홍, 김수철, 김창수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5.



[참고도판]
1. 김수철, <자황양국>, 종이에 수묵담채, 33×45.3㎝, 간송미술관 소장.
2. 김수철, <자양화도>, 16.5×1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건판 36968).
3. 김수철, <능소화>, 종이에 수묵담채, 200×5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신수 715).



曾於天台山上見
일찍이 천태산 산중에서 보았노니
石橋南畔第三株
돌다리 남쪽 곁 세 번째 그루라네
雀山 학산

[인문] 風月主人



一緘情札卷而序
한 통의 정다운 편지인양 말렸다 펴지고
當窓鳳毛聲如碎
창가에 펼쳐진 봉황의 날개처럼 소리도 부서지네
雀山 학산

[인문] 風月主人



龍鍾老節誰先得
울퉁불퉁 늙은 마디는 누가 먼저 알아 보았는가
枕石由來覓紫黃
돌을 베개 삼고부터 붉고 노란 꽃을 찾아 헤맸도다
雀山 학산

[인문] 風月主人



凉露五更天
서늘한 이슬 내리는 오경의 하늘에
翠皮暑不關
푸른 껍질은 찌는 더위 상관도 않네
雀山寫 학산

[인문] 風月主人



剡溪餘種到文房
섬계의 남은 종자가 글 짓는 방에 이르니
案北硯東始見香
책상 북쪽 벼루 동쪽에서 비로소 향기를 보네
雀山 학산

[인문] 風月主人



美人輕蹴細塵生
미인이 살포시 차니 고운 먼지 피어나고
羅襪新鮮繡毬長
비단 버선은 산뜻하고 수놓은 공은 아름답네
雀山 학산

[인문] 風月主人

031

오원 **장승업** 1843-1897

吾園 張承業 Jang SeungYeop

기명절지도 10폭병풍 器皿折枝圖十幅屛風 Vessels and Flowers, Ten-panel Folding Screen

병풍 Folding Screen
비단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Silk
각 148.5×34㎝

₩ 40,000,000-80,000,000





吾園 張承業 오원 장승업

[인문] 吾園, 張承業印

기명절지도는 진귀한 옛 그릇이나 기물, 청동기 등과 꺾인 꽃가지, 과일 등을 함께 그린 그림으로 19세기에 유행하였다. 위창 오세창에 의하면, 오원 장승업은 흔히 그림 부탁을 받으면 기명절지도를 그려주곤 했다고 전한다.

본 작품은 과장된 형태와 호방한 필묵법이 특징인 오원 장승업의 전형적인 화풍과 양식을 보여준다. 마지막 10폭의 낙관과 서명도 자주 보이는 서체와 인장이다. 특유의 음영을 넣은 종정 기물을 불규칙하게 배치하였으며, 탁자와 청동기 등 기물의 다리를 늘리거나 크기를 변형했음에도 상쾌한 담채의 운용 솜씨로 오원 특유의 구도와 생동하는 필선의 미를 잘 나타낸다. 사군자와 벼루, 종이, 붓 등 문방구류, 모란, 연꽃 등 화초의 분재, 밤, 석류, 비파 등 열매를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다. 6폭과 9폭에는 각각 몰고기와 게를 넣어 유연한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오원 장승업의 기명절지도 10폭병풍은 남아있는 예가 드물어 희소가치가 크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장승업의 기명절지도 병풍이 참고된다. 1964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 미국대사인 새뮤얼 버거에게 기증한 작품이며, 그 가족이 보관하고 있다가 2014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참고도판].



[참고문헌 및 수록처]
포스코미술관, <人, 사람의 길을 가다> 전시도록, 2019.



[참고도판]
장승업, <기명절지도 10폭병풍>, 1894년, 종이에 수묵담채, 431.8×195.6㎝,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032

화조영모도 8폭병풍

花鳥翎毛圖八幅屛風

Birds, Flowers and Animals, Eight-panel Folding Screen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각 110×58㎝

₩ 40,000,000-80,000,000







033

괴석화조도 10폭병풍

怪石花鳥圖十幅屛風

Rocks, Birds and Flowers, Ten-panel Folding Screen

병풍 Folding Screen
비단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Silk
각 161×30.5㎝

₩ 50,000,000-100,000,000







본 작품은 꿩, 공작, 봉황, 꾀꼬리, 원앙, 오리, 참새 등 다양한 종류의 새들과 모란, 국화, 매화 등 여러 종류의 꽃들이 괴석과 함께 화려한 채색으로 그려졌다. 궁중 채색화의 전통 청록화법을 활용한 바위와 태점의 표현, 화사하고 진한 채색, 선명하고 세밀한 필치가 돋보인다. 물 위를 노니는 새, 새끼 새들을 돌보는 어미새, 보름달 뜬 밤에 매화나무에서 쉬는 새 등의 장면이 묘사되어 화폭에 생동감을 준다. 동시에 꽃과 새가 지니는 상징성인 축수, 부귀영화, 자손번영 등 기복을 염원하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

조선 후기 궁중 채색화의 유행은 상류층에서 중인층에게까지 파급되었고, 장식적인 도안풍의 양식으로 변형되어 민화로 저변화되는 유행을 이끌었다. 궁중의 각종 화사畵事를 담당했던 화원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궁중 장식용 작품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이 참고된다.[참고도판1-2] 대비감 있는 화려한 채색과 세밀한 묘사를 볼 수 있으며 괴석의 형태, 꽃과 새의 배치, 색채의 대비가 일정한 장식적 질서를 이룬다.

본 작품도 조선후기 궁중채색 화조화 병풍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도식적 도상과 동일한 화면구성을 지닌다. 각 폭의 화면에 쌍을 이루는 새들이 짝지어 노니는 모습과 괴석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배치하였으며, 세로로 긴 구성으로 꽃과 새를 짜임새 있게 담은 점 등이다.

[참고문헌]
이은하, 「조선시대 화조화 연구」, 고려대학교 미술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2.



[참고도판]
1. <화조도 병풍>, 종이에 채색, 각 167.3×54.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창덕 6494).
2. <화조도 병풍>, 종이에 채색, 각 175×5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창덕 6490).





034

자수십장생도

刺繡十長生圖

Embroidered Ten Symbols of Longevity

1905년 이전
액자 Framed
비단에 자수 Embroidery on Silk
188.2×109.5㎝

₩ 90,000,000-150,000,000

본 작품은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 문양을 자수로 수 놓은 2폭 가리개이다. 대한제국 외교관으로 근무한 미국 총영사 에드윈 모건[Edwin V. Morgan, 1865-1934]의 소장품이었다. 그가 1905년 12월 6일 주한 미국공사 일행이 철수하는 시기까지 재직하였고, 재직 중 소장하였으므로 작품은 1905년 이전에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조선에 체류했던 서양인들은 자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며, 이들의 미적 취향에 따라 궁중 자수품이 외교 선물로 활용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참고도판 1]

본 작품은 1992년 6월 5일 Sotheby's 경매 출품작으로 미국에서 국내로 환수되었다. 소더비 경매 당시 이 작품은 출품자의 종조부從祖父인 에드윈 모건이 20세기 초부터 소장한 것이며, Massachusetts의 Peabody Essex Museum에 전시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다.

화면에는 곧게 뻗은 소나무, 영지를 문 사슴, 오색구름 사이로 태양이 뜨고 있다. 하늘엔 학이 날아들고 괴석 주변으로는 대나무와 거북이 한 쌍이 서로를 향해 영기를 내뿜고 있다. 이 도상들은 전형적인 궁중 십장생도의 주요 도상이며 건강, 장수, 불로장생을 염원하는 상징성을 지닌다. 가늘고 촘촘히 꼰 실을 사용하여 장생물의 이목구비를 치밀하게 수 놓았고, 색조를 미묘하게 달리하며 변화를 주어 궁중 자수의 품격을 느끼게 한다.

본 작품의 도상과 관련하여 허준박물관 소장본이 참고된다.[참고도판 2] 작품의 도상, 배치, 화면구성 및 크기가 거의 동일하다. 같은 수본을 사용하여 비단에 자수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품이력]
Sotheby's, <Korean Works of art>, New York, Friday, June 5, 1992, Lot.45

[참고문헌 및 수록처]
서울공예박물관, 『더 하이브리드』, 2026.





[참고도판]
1. 1905년경 주한미국공사관 내부에 설치된 <자수 십장생도>, 미국 피바디에섹스박물관.
2. <자수 십장생도>, 비단에 자수, 186.6×104㎝, 허준박물관 소장.



035

영친왕 이은 1897-1970

英親王 李垠 Lee 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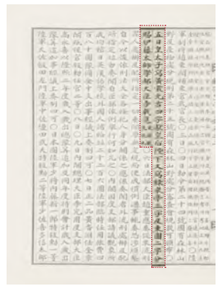
동원 東園 Dongwon

1908
배접 Mounted
비단에 먹 Ink on Silk
41.2×127.3㎝

₩ 20,000,000-40,000,000

戊申三月 무신년(1908) 3월
東園 동원
明新齋 명신재

[인문] 德潤身, 皇太子章, 皇太子垠光而明新齋



영친왕 이은(英親王 李垠, 1897-1970)의 12세 때 글씨이다. 이은의 호는 명신재明新齋로 고종의 일곱째 아들이며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이다. 영친왕英親王 또는 영왕英王이라 칭하기도 한다.
『조선왕조실록』 순종 1년(1908) 4월 5일자를 보면 본 작품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다.

"황태자가 '황상원길黃裳元吉' 네 글자를 써서 황후 폐하에게 바치고, 또 '녹천정綠泉亭' 세 글자와 '동원東園' 2글자를 써서 태사太師 이토오[伊藤]와 학부대신學部大臣 이재곤李載崑에게 나누어 주었다."

기록으로 보아 영친왕이 이재곤(李載崑, 1859-1943)에게 그의 호를 써서 하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재곤은 1907년 정미7조약에 서명한 인물로, 1910년에는 자작을 하사받아 이완용 등과 함께 대표적 친일 인물 중 한 명으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의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와 반대로 이재곤의 아들인 일성 이관용(一星 李灌鎔, 1894-1933)을 비롯한 형제들은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2008년 이관용은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기도 했다.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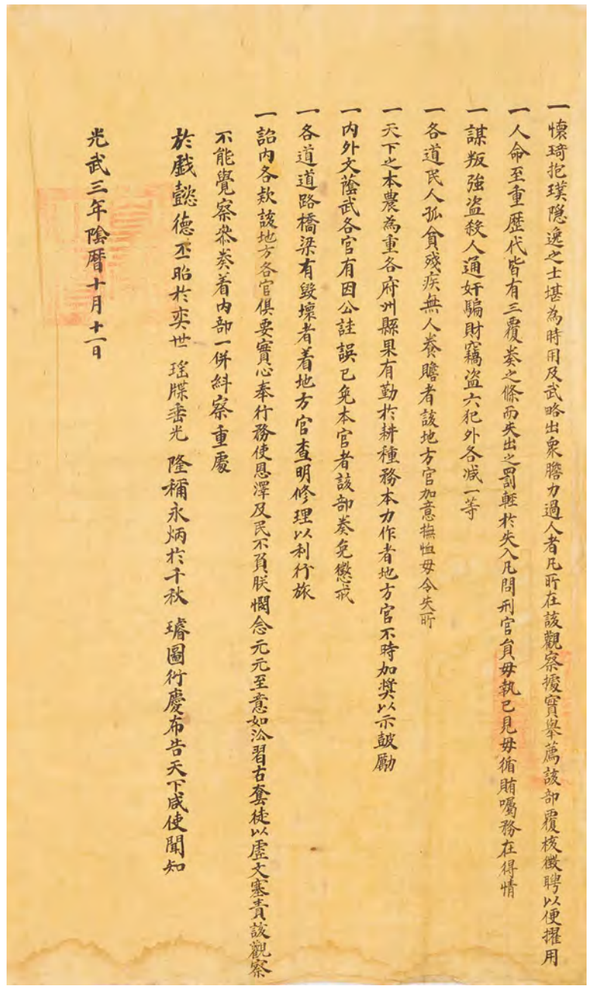
조령 4점

詔令四點

Four Royal Decrees

1899 외
미표구
종이에 먹 Ink on Paper
77.5×170㎝ 외

₩ 20,000,000-40,000,000


一懷琦抱璞隱逸之士堪為時用及武略出衆膽力過人者凡所在該觀察
一人命至重歷代皆有三覆奏之條而失出之罰輕於失入凡問刑官員毋
一謀叛強盜殺人通奸騙財竊盜六犯外各減一等
一各道民人孤貧殘疾無人養贍者該地方官加意撫恤毋令失所
一天下之本農為重各府州縣果有勤於耕種務本力作者地方官不時加奬以示
一內外文蔭武各官有因公註誤已免本官者該部查免懲戒
一各道道路橋梁有毀壞者着地方官查明修理以利行旅
一詔內各款該地方各官俱要實心奉行務使恩澤及民不負朕憫念元元至意如
不能覺察衆弊着內部一併糾參重處
於戲懿德丕昭於奕世瑤牒垂光隆稱永炳於千秋璿圖衍慶布告天下咸使聞知
光武三年陰曆十月十一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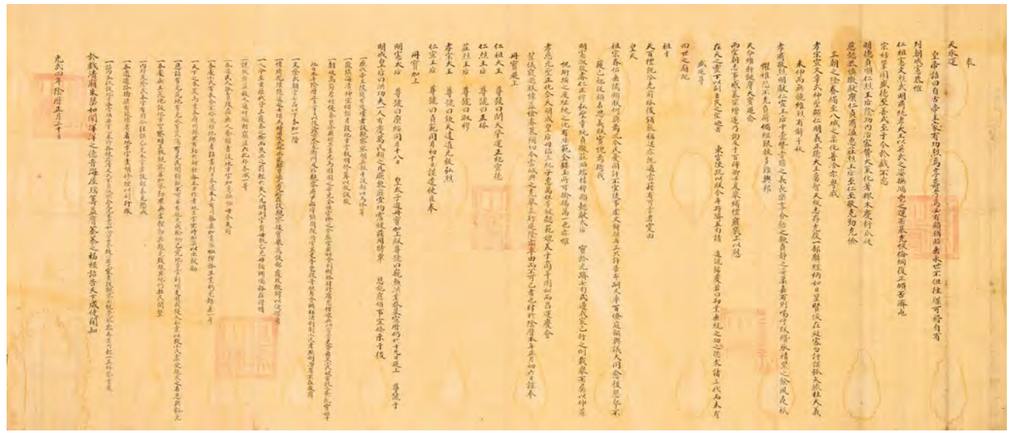
장헌세자莊獻世子와 혜빈을 추숭하며 특별히 은혜를 베푸니,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여 천하에 포고한다는 조령
*원문 해석은 『승정원일기』 고종 36년 기해(1899) 10월 9일 기사 참고.

一, 懷琦抱璞, 隱逸之士, 堪爲時用, 及武略出衆, 膽力過人者, 凡所在該觀察, 據實擧薦, 該部覆核徵聘, 以便擢用。 一, 人命至重, 歷代皆有三覆奏之條, 而失出之罰, 輕於失入。 凡問刑官員, 毋執己見, 毋循賄囑, 務在得情。 一, 謀叛·强盜·殺人·通奸·騙財·竊盜六犯外, 各減一等。 一, 各道孤貧·殘疾無人養贍者, 該地方官, 加意撫恤, 毋令失所。 一, 天下之本, 農爲重, 各府州縣, 果有勤於耕種, 務本力作者, 地方官, 不時加奬, 以示鼓勵。 一, 內外文蔭武各官, 有因公詿誤, 已免本官者, 該部奏免懲戒。 一, 各道道路橋梁, 有毁壞者, 着地方官查明修理, 以利行旅。 一, 詔內各款, 該地方〈各〉官, 俱要實心奉行, 務使恩澤及民, 不負朕憫念元元至意。 如沿習古套, 徒以虛文塞責, 該觀察, 不能覺察參奏, 着內部, 一併糾察重處。 於戲, 懿德丕昭於奕世, 瑤牒垂光, 隆稱永炳於千秋, 璿圖衍慶。 布告天下, 咸使聞知。

"…
다섯째, 훌륭한 덕을 지닌 채 은둔하고 있는 인사로서 현재 등용할 만한 자와 무략이 출중하고 담력이 뛰어난 자가 있으면, 그 지방의 해당 관찰사는 사실에 근거하여 천거하고 해부該部는 사실을 거듭 조사한 다음 초빙해서 발탁하여 쓰는 데에 편리하게 하라.
여섯째,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요하기에 역대에 모두 삼복三覆해서 아뢰는 규정이 있었고, 죄가 무거운데 가볍게 처벌한 벌이 죄가 가벼운데 무겁게 처벌한 벌보다 가벼운 것이다. 모든 문형관원(問刑官員, 심판관)은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지 말고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서 실정을 캐내는 데에 힘쓰라.
일곱째, 모반謀叛, 강도强盜, 살인, 통간通姦, 편재(騙財, 남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음), 절도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는 각각 1등씩 죄를 감해 주라.
여덟째, 각도의 백성 가운데 고아, 가난한 자, 병든 자로서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자는 해당 지방관이 더 마음을 써서 위로하고 보살펴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하라.
아홉째, 농업은 천하의 근본으로 중요하니, 각부各府, 각주各州, 각현各縣에 과연 부지런히 밭 갈고 씨 뿌려 최선을 다해 농사짓는 자가 있으면 지방관이 수시로 장려하여서 고무하고 격려하는 뜻을 보이라.
열째, 내외의 문관, 음관, 무관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일을 그르쳐 본관이 면직된 자가 있으면 해부該部가 아뢰어 징계를 사면하라.
열한째, 각도各道의 도로와 교량 가운데 훼손된 곳이 있는 것은 지방관이 분명하게 조사하여 수리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데에 편리하게 하라.
열두째, 조령 내의 각 조항을 해당 지방의 각 관원들은 모두 진심으로 받들어 시행하여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짐의 간절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 옛 버릇을 답습하여 단지 형식적인 문서로만 책임을 때웠는데도 해당 관찰사가 잘 살펴 죄상을 갖추어 아뢰지 않으면, 내부內部가 일체 규찰해서 엄하게 처벌하라.

아, 아름다운 덕이 대대로 성대하게 밝혀지니 요첩瑤牒이 빛나게 되었고, 훌륭한 이름이 천추千秋에 길이 빛나니 선도璿圖에 경사가 더해졌다. 이에 천하에 포고하여 모두 알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光武三年陰曆十月十一日 광무 3년 음력 10월 11일



인조대왕 등의 존호를 추상하며 특별히 은혜를 베푸니,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여 천하에 포고한다는 조령
*원문 해석은『승정원일기』고종 37년 경자(1900) 1월 20일 기사 참고.

奉天承運皇帝詔曰, 自古帝王家, 有功烈焉, 享壽考焉, 必有顯稱, 昭垂永世, 不但往牒可稽, 自有列朝成憲。 恭惟仁祖憲文烈武明肅純孝大王, 以英武之姿, 撫鴻毖之運, 丕基克恢, 倫綱復正, 傾否濟屯, 宗祐鞏固, 盛德至善, 式至于今, 於戲不忘。 明德貞順仁烈王后, 陰功內治, 密贊大策, 化著穆木, 慶衍瓜瓞。 慈懿恭愼徽獻康仁貞肅溫惠莊烈王后, 至仁至敬, 克勤克儉, 三朝之隆養備至, 八域之柔化普洽。 亦粵我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明義正德大王, 勇智天縱, 志存克復, 一部麟經, 炳如日星, 賢俊在廷, 密勿訏謨, 弧矢鐵柱, 大義木伸, 而無競維烈, 有辭千秋。 孝肅敬烈明獻仁宣王后, 中壺贊嘗膽之義, 長樂享含飴之歡, 貞靜之姿, 柔嘉有則。 嗚呼, 朕纘承積累之餘, 夙夜祗懼, 惟恐不克負荷, 備經艱棘, 多難興邦, 天命維新, 誕膺大寶, 追念兩聖朝志事, 感慕采增, 遂乃詢及于百辟卿士, 爰擧縡禮, 庶幾上以慰在天之靈, 下以副臣民之望。 迺者東宮陳疏, 以朕今年, 將躋五旬, 請進號飾慶, 若曰創業垂統之功之德, 求諸三代而未有盛, 追尊四世之廟, 配祖于天, 百禮旣洽, 光前裕後, 鋪張稱述, 亦旣過當, 藉有可言者, 寔由皇天祖宗, 眷佑垂隲, 顧朕何與焉? 況今民憂國計, 不宜徒事虛文, 辭拒再三, 只許告布, 嗣又率百僚庭籲, 輿議大同, 愈復懇摯, 不獲已勉從, 顧名思義, 朕實愧焉。 猶, 我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端禧粹顯懿獻太后, 寶齡光躋七旬, 式遵我家已行之例, 載擧丕彝, 以伸菲忱, 珩璜之度, 紘紱之化, 有非範金鏤玉所可揄揚萬一也。 亦惟孝慈元聖正化合天明成皇后, 母臨三紀, 子惠萬姓, 芳猷懿範, 媲美乎商莘周姒, 而昌運慶會, 翟儀寢邈, 朕懷益愴, 睿慕采切, 今當晬典之克擧, 竝行追隆, 亦率由而不可已者也。 肆於陰曆本年正月初六日, 謹奉冊寶, 追上仁祖大王尊號曰, 開天肇運正紀宣德, 仁烈王后尊號曰正裕, 莊烈王后尊號曰淑穆, 孝宗大王尊號曰, 欽天達道光毅弘烈, 仁宣王后尊號曰貞範。 同月初十日謹遣使臣, 奉冊寶, 加上明憲太后尊號曰康綏。 同月十八日皇太子進冊寶, 加上朕尊號曰巍勳洪業啓基宣曆。 仍於十九日, 追上尊號于明成皇后曰洪功。 夫一人有慶, 萬民賴之, 凡厥黎庶, 宜均霑被, 玆用特覃恩施應頒事, 宜條示于後。 一, 歷代帝王陵寢, 有毁壞者, 該觀察, 察明具報于該部, 以爲修葺。 一, 嶽鎭海瀆神室傾頹者, 該地方官報明修葺, 以致誠敬。 一, 朝廷高爵厚祿, 優養臣僚, 原欲其盡忠爲國, 國之安危, 全係官僚之貪廉, 官若奸貪, 則賄賂肆行, 庸惡倖進, 無功冒賞, 吏胥舞文, 小民被害, 政之紊亂, 實始于此。 自本年陰曆正月二十日以後, 凡在京大小各衙門及外觀察·府尹·郡守·鎭衛隊將官, 竝吏胥·皁役等, 但有貪賄枉法, 剝削小民者, 照例治罪, 不揀赦前。 一, 文蔭武朝官七品以下, 各加一階。 一, 懷琦抱璞隱逸之士, 堪爲時用及武略出衆, 膽力過人者, 凡所在該觀察, 據實擧薦, 該部覆核徵聘, 以便擢用。 一, 人命至重, 歷代皆有三覆奏之條, 而失出之罰, 輕於失入, 凡問刑官員, 毋執己見, 毋循賄囑, 務在得情。 一, 謀叛·强盜·殺人·通奸·騙財·竊盜六犯外, 各減一等。 一, 各道民人孤貧殘疾, 無人養贍者, 該地方官加意撫恤, 毋令失所。 一, 各處小民, 有衣食不給流移他鄕者, 詔書到日, 各還本土, 有司務要加意撫恤, 俾務生業, 仍免雜差一年。 一, 天下之本, 農爲重, 各府州縣, 果有勤於耕種務本力作者, 地方官不時加奬, 以示鼓勵。 一, 恩詔有免, 荒地有免, 水旱災傷有免, 民間額賦, 不可再有拖欠, 或輸納已完地方官, 別項支用, 或侵入私橐, 以致小民虛受拖欠之名, 悉與豁免。 一, 各處無主荒地, 該地方官, 察明呈報, 觀察再加察勘, 果無虛捏, 卽與題免錢糧, 其地仍招民開墾。 一, 內外文蔭武各官, 有因公詿誤, 已免本官者, 該部奏免懲戒。 一, 各道道路橋梁, 有毁壞者, 着地方官, 査明修理, 以利行旅。 一, 詔內各款, 該地方各官, 俱要實心奉行, 務使恩澤及民, 不負朕憫念元元至意, 如沿習古套, 徒以虛文塞責, 該觀察不能覺察參奏, 着內部, 一竝糾察重處。 於戲, 淸廟朱瑟, 如聞洋洋之德音, 海屋瑤籌, 益膺臻臻之福祿, 詔告天下, 咸使聞知。

봉천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가 조령을 내리기를,

"예로부터 제왕가帝王家에 공렬功烈이 있고 장수를 누리면 반드시 존호를 올려 길이 후세에 전하는 것은 단지 예전의 전적典籍에서만 상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열성조列聖朝의 성헌成憲에도 있었다. 삼가 생각건대, 인조헌문열무명숙순효대왕仁祖憲文烈武明肅純孝大王은 영민하고 용맹스런 자질로 큰 운수를 타고나서 국운을 넓히고 윤리를 다시 바로잡았다. 나쁜 운수를 물리치고 곤경을 수습한 결과 나라가 더욱 견고해져 성덕盛德과 지선至善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다. 명덕정순인열왕후明德貞順仁烈王后는 내치內治에 남몰래 공덕을 쌓았고 대책大策을 남모르게 도왔으므로 교화는 궁중에 퍼졌고 경사는 자손들에게 미치었다. 자의공신휘헌강인정숙온혜장렬왕후慈懿恭愼徽獻康仁貞肅溫惠莊烈王后는 지극히 어질고 공경스러우며 매우 부지런하고 검박하였으며 웃어른에 대한 봉양이 융숭하였고 온 나라에 덕화가 널리 퍼졌다. 또한 효종선문장무신성현인명의정덕대왕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明義正德大王은 용맹과 지혜를 타고났으며 예법을 회복하는 데에 뜻을 두었고 한 질의 《춘추春秋》를 빛나는 해와 별처럼 여기었다. 조정에 있는 어질고 준수한 이들과 원대한 계책을 부지런히 힘썼으며, 송 효종孝宗처럼 중원中原을 도모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북벌北伐이라는 큰 의리를 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더없이 열렬한 뜻은 영원토록 후세에 자랑할 만하다. 효숙경렬명헌인선왕후孝肅敬烈明獻仁宣王后는 왕비로 계실 때에는 나라의 원수를 갚는 일을 도왔고 왕대비로 계실 때에는 손자들의 재롱을 보는 즐거움을 누리었으며 정숙하고 조용한 자태는 부드러우면서도 법도가 있었다.

아, 짐은 선조들의 덕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까만을 걱정하였으며 간고艱苦함을 다 겪으면서 나라를 일으키는 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천명天命을 새롭게 받아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다. 인조와 효종 두 왕대의 남긴 뜻과 일을 추억하자니 감격과 사모가 더욱 깊다. 그리하여 모든 관리들에게 물어보고 성대한 예식을 거행하여 위로는 하늘에 있는 조상 신령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였다. 지난번에 동궁이 상소를 올려, 짐의 올해 나이가 쉰 고개에 오르게 되었다 하여 존호尊號를 올리고 경축하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왕업을 일으켜 자손에게 전한 공적과 덕행은 삼대三代 때를 찾아보아도 이처럼 클 수 없습니다. 4대의 선조를 추존하고 시조始祖를 하늘에 배향하였으며 모든 예절이 구비되어 선조를 빛내고 후손을 잘 살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드러내 칭송한 것이 역시 지나쳤다. 말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늘과 조상께서 보살펴 주고 도와준 때문이지 짐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백성들의 근심과 나라의 형편으로 보아 형식만 일삼고 있을 때가 아니므로 두 번 세 번 사절하고 다만 포고할 것만 허락하였는데, 이어 또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 뜰에서 호소하였고 여론이 다 같이 더욱더 간절히 원하였으므로 마지못해 따르기는 하였으나 그 명분과 의리를 생각해 볼 때 짐은 실로 부끄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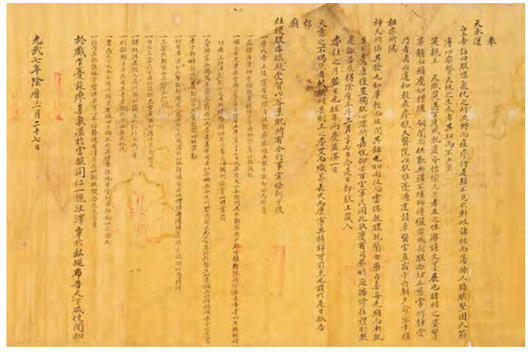
아, 명헌숙경예인정목홍성장순정휘장소단희수현의헌태후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端禧粹顯懿獻太后는 보령이 70세에 이르셔서 우리 가문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를 따라 의식을 차려 자그마한 정성이나마 표시하였지만, 그 깨끗한 풍도와 아름다운 덕화는 금자로 찍고 옥돌에 새겨 전한다 해도 만분의 일도 찬양할 수 없다. 또한 생각건대, 효자원성정화합천명성황후孝慈元聖正化合天明成皇后는 30년 동안 국모의 자리에 있으면서 만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였다. 아름다운 생각과 예의범절은 옛날의 어진 왕비처럼 아름다워서 좋은 운수와 경사가 집중되었으나 그 모습이 점점 멀어지자 짐의 마음은 더욱 더 슬프고 태자의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므로 이번에 성대한 의식을 거행할 적에 추숭하는 의식까지 행하려 하니, 이 역시 옛법을 따르는 것으로써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력으로 올해 1월 6일에 삼가 책보冊寶를 받들어 인조대왕仁祖大王에게는 '개천조운정기선덕開天肇運正紀宣德'이라는 존호를, 인열왕후仁烈王后에게는 '정유正裕'라는 존호를, 장렬왕후莊烈王后에게는 '숙목淑穆'이라는 존호를, 효종대왕孝宗大王에게는 '흠천달도광의홍렬欽天達道光毅弘烈'이라는 존호를, 인선왕후仁宣王后에게는 '정범貞範'이라는 존호를 추상하였다. 같은 달 10일에는 삼가 사신使臣을 보내어 책보를 받들어 명헌태후明憲太后에게 '강수康綏'라는 존호를 가상하였다. 같은 달 18일에는 황태자가 책보를 올려 짐에게 '외훈홍업계기선력巍勳洪業啓基宣曆'이라는 존호를 가상하였다. 이어 19일에는 명성황후明成皇后에게 '홍공洪功'이라는 존호를 추상하였다. 대체로 짐 한 사람에게 경사가 있으면 만백성이 힘입게 되는 법이니, 모든 백성들은 골고루 혜택을 입을 것이다. 이에 특별히 은혜를 널리 베풀어 반포하게 되는 사항을 아래에 조목별로 알린다.

첫째, 역대 제왕帝王의 능침陵寢 중에 훼손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관찰사가 분명하게 빠짐없이 기록하여 해부該府에 보고한 다음 수리하라.
둘째, 산과 바다의 신을 모신 신실神室 중에 허물어진 곳은 해당 지방관이 보고한 다음 수리하되 정성과 공경을 다하라.
셋째, 조정에서 높은 벼슬과 많은 녹봉으로 신하들을 극진하게 대우하는 것은 원래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려고 한 것이니, 국가의 안위安危는 전적으로 관료들이 탐욕스러우냐 청렴하냐에 달려 있다. 관리가 탐욕스러우면 뇌물이 횡행하게 되니, 소인배는 요행히 벼슬길에 진출하여 이룬 공적도 없이 상을 차지하고, 아전들은 법을 남용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입어 정치의 문란이 실로 여기에서 시작될 것이다. 올해 음력 1월 20일 이후로 서울에 있는 크고 작은 각 아문衙門 및 지방에 있는 관찰사, 부윤府尹, 군수郡守, 진위대장관鎭衛隊將官과 아울러 이서吏胥, 조역皁役들까지도 뇌물을 탐하고 법을 농락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규례를 살펴 죄를 다스리고 물간사전勿揀赦前하라.
넷째, 조정의 문관文官, 음관蔭官, 무관武官으로 7품 이하는 각각 한 품계를 올리라.
다섯째, 훌륭한 계책을 품고 은거하고 있는 선비 가운데 믿고 쓸 만한 사람과 무략武略이 출중하거나 담력이 빼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해당 관찰사가 실상에 근거하여 천거하고, 해부該部에서는 사실을 거듭 조사한 다음 초빙하여 발탁해 쓰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라.
여섯째,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귀중하므로 역대로 모두 죄수를 삼복三覆하여 아뢰는 규정이 있었다. 무거운 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보다 낫다. 무릇 문형관원問刑官員은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뇌물을 주어 청탁하는 것을 따르지 말며 실정을 알아내는 데 힘쓰라.
일곱째, 모반謀叛, 강도强盜, 살인殺人, 통간通奸, 편재騙財, 절도竊盜의 여섯 가지 범죄를 제외하고는 각기 1등을 감하라.
여덟째, 각도의 백성 중에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생활이 어려우며 병이 있으나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자는 해당 지방관이 더 신경써서 위로하고 도와주어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하라.
아홉째, 각처의 백성 중에 의식衣食이 부족하여 타향으로 떠돌아다니는 자가 있으면 조령이 도착하는 날에 각기 본토本土에 돌려보내고 유사有司는 그들에게 더 신경 써서 위로하고 도와주어 생업에 힘쓰도록 해 주고 이어 1년 동안 잡세雜稅를 면제해 주라.
열째, 농사는 천하의 근본으로 중대한 것이니, 각 부府 · 주州 · 현縣에 밭갈고 씨뿌리는 데에 부지런히 하고 최선을 다해 농사에 힘쓰는 자가 있으면 지방관은 수시로 장려하여 고무하고 격려하는 뜻을 보이라.
열한째, 은혜로운 조령에, 황무지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있고 수재와 한재를 입은 곳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있으며 민간에서 일정하게 내는 부세를 면제해 준 것도 있으니, 다시 세금을 내지 않고 오래 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완납했는데 지방관이 다른 항목으로 지출해서 쓴 경우이거나 사사로이 착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지 않고 오래 끌고 있다는 거짓 누명을 받게 한 경우는 다 면제해 주라.
열두째, 각처의 주인 없는 황무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관이 자세히 살펴 보고하고, 관찰사가 한번 더 조사하여 과연 허위 날조된 것이 없으면 공식적으로 처분을 내려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며, 그 땅은 그대로 백성을 불러다가 개간하도록 하라.
열셋째, 서울과 지방의 문관, 음관, 무관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견책을 당하여 본관에서 면직된 자는 해부該部에서 아뢰어 징계를 사면하도록 하라.
열넷째, 각도各道의 도로道路와 교량橋梁 중에 훼손된 것은 지방관을 보내어 조사하여 수리하게 함으로써 다니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라.
열다섯째, 조령 안의 각 조항에 대해 해당 지방의 각 관원들은 모두 진심으로 받들어 시행하여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도록 힘써서, 짐이 백성들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 예전의 관행을 답습하여 한갓 겉치레로 책임이나 때우는 식인데도 해당 관찰사가 잘 살펴 참작하여 아뢰지 않았으면 내부內部로 하여금 한결같이 규찰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라.

아, 종묘에서 제례악을 연주하니 덕음德音이 성대하게 들리는 듯하고, 궁중에서 장수를 누리니 무궁한 복록을 더욱 받을 것이다. 이에 온 세상에 조령을 고하여 모두 다 듣고서 알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光武四年陰曆正月二十日 광무 4년 음력 정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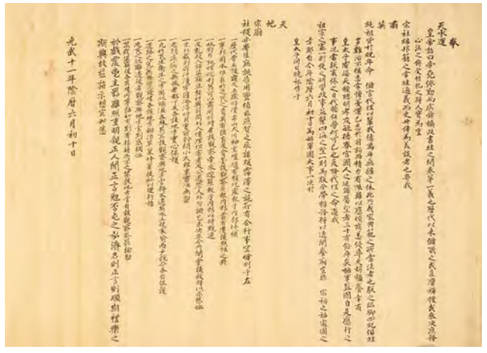


영친왕英親王이 천연두에서 회복된 것을 기뻐하며 특별히 은혜를 베푸니,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여 천하에 포고한다는 봉천승운 황제의 조령
*원문 해석은『승정원일기』고종 40년 계묘(1903) 3월 27일 기사 참고.

奉天承運皇帝詔曰, 朕惟氣化之所流轉, 而痘疹行, 雖不見於軒岐諸經, 而蕩滌人腸腑, 堅固人筋膚, 以參贊天地之生成者, 其功爲不少矣。 英親王, 天賦英邁, 百度夙就, 晨昏怡愉, 允矣孝友之性, 游嬉文墨, 展也聰明之姿, 擎華觴而稱慶如禮, 隨銅闈而供歡無壅, 不煩師傅, 儼若成長, 朕念切止慈, 常所鍾愛, 乃者適因違和, 旋表疹候, 太醫院以朕惟憂過度, 請率醫官, 直宿于內, 朝夕診察, 幸賴祖宗所黯, 神天所佑, 其發也, 如華敷而珠潤, 其斂也, 如雨收而雲捲, 既膿既靨, 勿藥自喜, 每先期而漸就, 遂不日而康復, 豈獨朕心, 深所嘉悅? 抑亦百官軍民, 同此欣慶。 有司奏昕庭播脩, 在禮則然, 爰諏吉辰, 得陰曆本年三月二十七日念是日, 卽朕上歲入耆社之月若日也。 經年兩慶, 竝湊一日, 天意之不偶然者, 較然明甚, 則王之耆艾而熾昌, 長久而康寧, 其禎祥, 可前見也。 玆於是日, 祗告郊·廟·社稷, 肆亦臨殿受賀, 以答景貺, 所有合行事宜, 條列于後。 一, 歷代帝王陵寢有毁壞者, 該觀察, 察明具報于該部, 以爲修葺。 一, 嶽·鎭·海·瀆神室傾頹者, 該地方官, 時加修葺, 以致誠敬。 一, 國之安危, 原係官僚之貪廉, 自陰曆本年三月二十七日, 凡在京大小各衙門及外觀察·府尹·郡守·鎭衛隊長官竝吏胥等, 如有賄賂肆行, 舞文枉法, 剝削小民者, 照律懲辦, 但有非常之功, 拔例施賞, 以明賞罰。 一, 民有鰥寡孤獨篤年瘵疾, 窮無以爲養者, 着有司, 另加存恤, 無令失所, 嬰兒衛生, 尤不可忽, 所在醫生, 加意調治, 以稱朕保赤子之至意。 一, 孝子節婦, 許所司保勘明白, 具實開報, 以昭奬勸。 一, 如有廉潔公正賢能幹濟之人, 或屈在下流, 或隱於山林, 許該官司, 以禮待遇, 隨時薦擧于該部, 以憑擢用。 一, 內外文蔭武朝官七品以下, 各加一階。 一, 謀叛强盜殺人通奸騙財竊盜六犯外, 各減一等。 一, 刑獄, 期乎平允, 司其責者, 務在廉公, 無或撓枉。 一, 農爲天下大本, 各府州郡, 果有服田力穡, 不失其時者, 該地方, 加奬鼓勵, 以示務本。 一, 詔內各款, 該地方, 俱要實心奉行, 務便恩澤及民, 以副朕憫念元元之意。 於戲, 乍憂旋瘳, 喜氣溢於宮掖, 同仁一視, 汪澤覃於紘埏, 布告天下, 咸使聞知。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가 조령을 내리기를,
“짐은 생각건대, 기화氣化가 유전流轉하여 천연두가 유행流行하는데, 이 병은 비록 여러 의학醫學 경전에는 보이지 않으나, 사람의 오장과 육부를 씻어 주고 사람의 근육과 피부를 견고하게 만듦으로써 천지天地의 생성生成에 참여하여 도우니, 그 공이 적지 않다.
영친왕은 천성이 영특하고 온갖 풍모가 일찍이 갖추어졌다. 아침저녁으로 온화한 얼굴로 부모를 문안하니 진실로 효우孝友한 성품이고, 책이나 붓을 가지고 놀이를 하니 참으로 총명한 자질이다. 술잔을 올려 예에 맞게 경하하였고, 황태자를 따라 끝없는 기쁨을 안겨 주었다. 번거롭게 가르치지 않더라도 의젓하게 성장하므로, 짐은 자애하는 마음이 절절하여 항상 총애하였다. 지난번 건강을 잃고서 곧 천연두의 증상이 드러났는데, 태의원에서는 짐의 근심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의관을 거느리고 궐내에서 직숙하겠다고 청하여 아침저녁으로 진찰하였다. 다행히 조종祖宗이 도우시고 하늘이 도우시어 발진이 돋아났을 때에는 마치 꽃이 핀 듯, 구슬이 영롱한 듯하였으며, 아물 때에는 마치 비가 갠 듯, 구름이 걷힌 듯하였다. 곪았다가 딱지가 앉자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기쁨이 있었다. 매번 예정보다 앞서 점차 나아지더니, 마침내 며칠이 안 되어 건강하게 회복하였다.
어찌 짐의 마음만이 심히 기뻤겠는가. 백관百官과 군민軍民도 이러한 기쁜 경사를 함께하였다. 유사有司가 조정에서 경사를 선포할 것을 아뢰었으니, 예로써 보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길일을 물어서 음력으로 올해 3월 27일로 날을 받았다. 생각건대, 이날은 곧 짐이 작년에 기사耆社에 들어갔던 그 날짜이다. 한 해가 지나서 두 가지 경사가 하루에 겹친 것으로 보면, 하늘의 뜻이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님이 매우 분명하니, 왕이 장수하면서 번창하고 오래도록 편안하리라는 길조임을 예견할 수가 있다. 이에 이날 천지, 종묘, 사직에 공경히 고하고, 짐 또한 정전에 임어하여 진하를 받음으로써 큰 경사에 답하노라.
시행해야 할 여러 사항은 다음에 열거한다.
첫째, 역대 제왕의 능침陵寢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으면 해당 관찰사가 분명하게 살피고 해당 부서에 갖추어 보고하여 수리하라.
둘째, 오악五嶽, 오진五鎭, 사해四海, 사독四瀆의 신실神室 가운데 퇴락頹落한 곳이 있으면 해당 지방관이 수시로 수리함으로써 정성과 공경을 다하라.
셋째, 나라가 편안해지느냐 위태로워지느냐의 근원은 관리가 탐학한가 청렴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음력으로 올해 3월 27일부터 서울에 있는 모든 대소 각아문衙門과 지방의 관찰사, 부윤, 군수와 진위대鎭衛隊의 장관將官과 아울러 이서吏胥들 중에 만약 뇌물 수수를 자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고 법을 농락함으로써 소민小民들에게 뜯어내는 자가 있거든 조율照律하여 처벌하되, 비상한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상하여 상벌을 분명히 하라.
넷째, 백성 중에 곤궁하여 돌보는 사람이 없는 환과고독鰥寡孤獨과 늙은이와 병든 자는 유사有司로 하여금 특별히 더욱 구휼하게 하여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영아嬰兒의 위생은 더욱이 소홀해서는 안 되므로 소재처所在處의 의생醫生은 조치에 더욱 유의하여 짐이 적자赤子를 보호하는 지극한 뜻에 부응하라.
다섯째, 효자와 절부節婦는 유사로 하여금 명백히 조사한 뒤 사실을 갖추어 보고하게 함으로써 권장하는 뜻을 밝히라.
여섯째, 만약 청렴결백하거나 공명정대하거나 덕과 재능이 뛰어나거나 일 처리에 능숙한 사람이 낮은 관직에 머물러 있는 경우, 또는 산림山林에 묻혀 지내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예로써 대우하게 하고 수시로 해당 부서에 천거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발탁하여 등용하라.
일곱째, 내직과 외직의 문관文官, 음관蔭官, 무관武官 가운데 7품 이하의 조관朝官은 각각 한 품계를 올려 주라.
여덟째, 모반謀叛, 강도, 살인, 통간通姦, 재물 탈취, 절도의 육범六犯 이외에는 각각 한 등급을 감減하라.
아홉째, 형옥刑獄은 공평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이니, 그 책임을 맡은 자는 청렴하고 공정하도록 힘쓰고 혹시라도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열째, 농업은 천하의 대본大本이다. 각 관찰부나 주州, 군郡에 농사에 힘써서 농사철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지방관이 칭찬하고 격려하여 농사에 힘써야 한다는 뜻을 보이라.
열한째, 조령의 각 사항을 해당 지방관들은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받들어 거행하여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도록 힘써서, 짐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염려하는 뜻에 부응하라.
아, 갑자기 근심하다가 곧 병이 나으니 기쁨이 궐내에 넘치고, 한결같이 인仁을 베푸니 넓은 은택이 사방에 퍼져 나갈 것이다. 이 조서를 천하에 반포하여 모두 들어 알게 하라.”
하였다.

光武七年陰曆三月二十七日 광무 7년 음력 3월 27일



오늘부터 나라의 대사는 일체 황태자(皇太子)가 처결할 것을 밝히며 시행해야 할 일들을 열거한다는 조령
*원문 해석은『승정원일기』고종 44년 정미(1907) 6월 10일 기사 참고.

詔曰, 帝堯倦勤而虞舜攝政, 書經之開卷第一義也。 歷代以來, 儲貳之或直膺禪授, 或參決庶務, 心法之傳受, 付托之得人, 實爲重宗社綿邦籙之常經通義, 而史冊傳美談者也。 粤我肅·英·純祖, 皆於晩年, 命儲宮代理, 以挈我億萬年無疆之休, 此乃我家典範之所當法者也。 朕之臨御四紀, 備經多難, 治不徯志, 常懷憂懼, 已悉於前詔, 而精力有限, 難以應煩, 疾恙侵尋, 久妨攝養。 幸有皇太子, 睿姿天授, 聰明孝友, 毓德春宮, 國人之延頸屬望者, 三十有餘年矣。 撫軍監國, 自是應行之事, 況當朕衰倦之日, 代聽任勞, 何可已也? 爰降代理之命, 遵我祖宗之憲, 一則使之明習政事, 益繫四海之望, 一則爲朕分勞擔務, 得以退閒養疴, 豈非宗祊之福家國之幸耶? 自今年陰曆六月初十日爲始, 軍國大事, 一決於皇太子, 同日曉, 祗告于天地宗廟社稷, 亦粤臣庶, 誕告用亶, 値玆燕賀之辰, 詎緩霈澤之施。 所有合行事, 宜條列于左, 一, 歷代帝王陵寢及五嶽·四瀆·名山·大川·神室·壇壝, 有頹圮處, 報于內部修補。 一, 寧邦固本, 惟在於近民之責, 其有循良及貪墨, 該觀察, 具報內部, 當有慶讓黜陟之典。 一, 林野斥弛懷抱利器, 可以需用於時者, 該觀察, 旁求搜羅, 報于內部, 以待甄選。 一, 反亂·殺人·强盜·竊盜·强奸與符同外人情理切害者及公逋罪人外, 勿論已·未決, 竝令內閣會議放釋, 以示慈恤。 一, 京外裁判所汗漫牢囚, 淹滯時月, 實所矜悶, 小大輕重, 審決無留。 一, 老弱疾病之無依者, 都下及各該地方, 實心保護。 一, 凡於民生衛生之方, 南北燥濕各殊, 其宜該觀察與地方官, 務求適其水土, 使家喩而戶說, 令各自保護。 一, 道路之荒蕪, 橋梁之毁壞, 各該地方, 鋤治草菜, 修葺徒杠, 以便行旅。 一, 流民之仳儷遷徙者, 觀察與地方官, 到底賙恤。 一, 禁戢盜竊, 使各其境內寧謐, 如有剽奪狼藉而不之禁, 該地方官, 自該觀察, 奏罷論勘。 於戲, 震鬯主器, 離照重明, 親正人聞正言, 勉否屯之弘濟, 名則正, 言則順, 期禮樂之斯興, 故玆詔示, 想宜知悉。

조령을 내리기를,
“요堯임금이 제위를 물려주어 순舜임금이 섭정攝政한 것이《서경書經》을 펼치면 첫 번째 나오는 뜻이다. 역대로 내려오면서 황태자가 직접 자리를 물려받거나 정사에 참여하여 각종 정무를 처결하면서 심법心法을 전수받고 부탁할 적임자를 얻는 것은 실로 종사宗社를 중시하고 국운을 계승하기 위한 정상적인 법이며 통용되는 의리로 역사책에도 전해지는 미담이다. 우리 숙종肅宗, 영조英祖, 순조純祖는 모두 말년에 세자에게 명하여 정사를 대리시킴으로써 우리의 억만년 무궁할 복을 공고히 하였다. 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전범典範으로 본받아야 할 일이다. 짐이 왕위에 오른 40여 년 동안 많은 난관을 겪으면서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아 늘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품고 지내 왔다는 점은 이미 전번 조령에서 다 말한 바이다. 정력精力에도 한도가 있어 번거로운 정사를 처리하기 어렵고, 병이 점점 찾아들어 오랫동안 섭생攝生을 방해하여 왔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슬기로운 천품天稟을 지닌 황태자가 총명과 효우孝友로 춘궁春宮에서 덕을 키웠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의 정사를 학수고대한 지가 30여 년이 되었다. 나랏일을 돌보는 것은 본래 응당 해야 할 일인데, 더구나 짐이 노쇠하여 권하는 때이니, 수고로운 일을 맡아 정사를 대리하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조종조祖宗朝의 법을 따라 대리하라는 명을 내린 것이니, 한편으로는 정사를 분명히 익혀 더욱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짐의 수고로운 일을 나누어 줌으로써 물러나 병을 조섭하려는 것이다. 어찌 종묘사직의 복이 아니며 국가의 행운이 아니겠는가. 금년 음력 6월 10일부터 나라의 대사는 일체 황태자가 처결할 것이다. 동일 새벽에 천지와 종묘사직에 삼가 고하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바이다. 이처럼 경사로운 때에 어찌 은택을 베푸는 일을 늦출 수 있겠는가. 시행해야 할 일들을 아래에 열거한다.

첫째, 역대 제왕帝王의 능침陵寢과 오악五嶽, 사독四瀆, 명산대천名山大川에 있는 신실神室과 제단祭壇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으면 내부內部에 보고하여 보수하도록 하라.
둘째, 나라가 편안하고 근본이 공고해지는 것은 오직 백성을 가까이하는 수령들의 손에 달려 있으니, 어진 정사를 편 수령과 탐학貪虐을 저지른 수령들을 해당 관찰사는 내부에 갖추 보고하도록 하라. 응당 그에 따른 포상과 문책이 있을 것이다.
셋째, 재야의 불우한 선비로서 이 시대에 등용할 만한 재능을 지닌 사람이 있으면 해당 관찰사는 널리 찾아 내부에 보고하여 선발에 대비하도록 하라.
넷째, 반란자反亂者, 살인자, 강도强盜, 절도竊盜, 강간범强姦犯과 외국인에게 부화뇌동하여 정리情理를 크게 해친 자 및 공곡公穀을 포흠逋欠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미결未決이나 기결旣決을 막론하고 모두 내각으로 하여금 회의하여 석방하게 함으로써 사랑과 은택을 보이도록 하라.
다섯째, 오랜 기간 처결이 지체된 채 경외京外의 재판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은 실로 측은하고 불쌍하니, 죄의 대소경중을 막론하고 지체 없이 심리하고 판결하도록 하라.
여섯째, 늙고 약하며 질병이 있어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은 도하都下 및 각 해당 지방에서 진심으로 보호해 주도록 하라.
일곱째, 모든 민생民生의 위생衛生에 대한 방도는 남쪽과 북쪽 지방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니, 해당 관찰사와 지방관은 그 수토水土에 적합한 방도를 힘써 찾아내어 가가호호 설득함으로써 각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
여덟째, 잡초가 무성한 도로와 무너진 다리는 각각 해당 지방에서 풀을 베고 다리를 수리하여 다니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라.
아홉째, 떠돌아다니는 유민流民들에 대해서는 관찰사와 지방관이 철저히 진휼賑恤하도록 하라.
열째, 도적질을 엄금하여 각각 그 관할 지역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되, 만일 도적이 횡행하는데도 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 관찰사가 해당 지방관의 파직을 상주上奏한 다음 논감論勘하도록 하라.

아, 태자는 종사를 잘 보존하면서 밝은 시대를 여는 훌륭한 임금이 되도록 하라. 바른 사람을 가까이하고 옳은 말을 들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 힘쓰고, 명분이 바르게 되고 말이 순해지면 예악의 흥성興盛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조령을 내려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光武十一年陰曆六月初十日 광무 11년 음력 6월초 10일

037

행행반차도

行幸班次圖

Painting of a Royal Procession

권자본 Scroll
비단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Silk
29.5×1364.5㎝

₩ 70,000,000-150,000,000

본 작품은 조선시대 국왕의 행차에 동원된 관원과 군사, 각종 의장물의 배치와 행렬의 순서를 장대한 화면에 묘사한 반차도班次圖이다. 가로 길이가 약 13.6m에 이르는 장권 형식으로, 수많은 인물과 말, 군기와 의장물을 일정한 질서에 따라 배열하고 각각의 명칭을 묵서로 기록하였다. 특히 국왕의 행차에 수반되는 실무 인원과 왕실 의장, 전후의 호위 군사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 조선 후기 왕실 행차의 규모와 운영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반차도는 국가적인 의례나 행사에 참여하는 인물과 의장물의 위치 및 순서를 정해진 격식에 따라 그린 기록화이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의 능행陵幸을 비롯한 궁궐 밖 행차와 왕실의 가례, 국장 등 다양한 국가 의례에서 반차도가 제작되었다. 본 작품 역시 자연경관이나 행차의 현장보다는 인물의 직책과 군사 편제, 의장물의 배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반차도의 성격을 지닌다.

행렬의 선두에는 청색 바탕에 붉은 글씨로 '淸道'라 적은 청도기淸道旗가 등장한다. 그 주변에는 '도로교량적간道路橋梁摘奸'이라는 묵서가 있어 국왕의 행차에 앞서 도로와 교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인원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로교량적간은 행차 경로의 도로와 교량을 사전에 조사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임무로, 『승정원일기』와 『각사등록』 등에서도 관련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양주목사楊州牧使'라는 직위가 나타나 행차에 지방관이 참여하였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양주 일대에는 건원릉을 비롯한 여러 왕릉이 위치하였으므로, 이러한 기록은 본 작품이 왕릉을 참배하는 능행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화면에서 특히 주목되는 기물은 '가교선예駕轎先詣'라는 묵서가 적힌 가교駕轎이다. 가교는 국왕의 행차에 사용된 가마로, 긴 가마채를 앞뒤의 말에 연결하여 이동하는 구조를 지닌다. 본 작품의 가교는 검은색 곡선형 지붕 위에 연화형 장식과 용두 장식을 갖추었으며, 붉은색 몸체에 금색 문양을 화려하게 채색하였다. 앞뒤에는 말이 배치되고 황색 복장의 인원들이 가마채를 받치거나 붙잡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실제 가교의 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가교선예駕轎先詣'라는 묵서는 가교가 행렬에 앞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왕실 행차에서 가교를 운용하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가교와 이어지는 행렬에는 국왕의 권위와 군사 지휘권을 상징하는 용대기龍大旗가 등장한다. 교룡기蛟龍旗라고도 불리는 용대기는 황색 바탕에 용과 구름을 화려하게 채색한 의장기로, 국왕의 공식 행차와 군사 의례에서 사용되었다. 본 작품에서는 말을 탄 기수가 깃발을 받들고 주변의 인원들이 끈을 잡아 지탱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왕실 의장기의 실제 운용 방식과 그 위용을 보여준다.

이어서 '별운검사別雲劍四', '보검이寶劍二', '어갑마御甲馬', '어보마御寶馬', '가전별초駕前別抄' 등의 묵서가 확인된다. 별운검은 국왕을 가까이에서 시위하며 의례에 참여하던 무관으로, 보검과 함께 왕의 권위와 호위 체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갑마는 국왕의 갑주와 관련된 기물을 운반하는 말이며, 어보마는 왕실의 인장을 운반하는 말이다. 그림에는 호피 또는 표피 무늬로 장식한 말과 원통형의 기물함을 실은 말이 각각 묘사되어 있어 왕실 행차에 수반된 기물의 종류와 운반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병조판서兵曹判書와 사복내승司僕內乘 등 행차에 참여한 관원들의 명칭이 확인되어 당시 왕실 의장과 시위 조직의 구성을 보여준다.

본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국왕의 행차를 호위하는 군사 편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화면에는 '선상진先廂陣', '중앙진中央陣', '후상진後廂陣'이라는 묵서가 각각 확인되며, 부대별로 수십 명의 기병과 보병이 정연한 대열을 이루고 있다. 선상진은 행렬의 전방을 호위하는 진영이며, 중앙진은 어가와 관련된 중앙 호위 진영, 후상진은 행렬의 후방을 담당하는 진영이다. 이들 부대에는 기사장騎士將, 마병별장馬兵別將, 금군별장禁軍別將 등 군사 지휘관들이 등장하며, 각 부대의 기치와 군악 관련 기물도 함께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조선 후기 국왕의 행차에 동원된 시위군의 조직과 군사 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특히 선상진·중앙진·후상진으로 구분되는 편제는 1880년 고종이 수릉·경릉·건원릉 등에 행차한 모습을 기록한 <경진행행반차도庚辰行幸班次圖>에서도 확인된다. <경진행행반차도>는 조선 후기 국왕 행차에서 변화한 시위군의 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본 작품 역시 이러한 19세기 왕실 행차의 군사적·의례적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화면의 상하단에는 불꽃이 타오르는 횃불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있다. 이는 국왕이 야간이나 새벽에 행차할 때 길 양쪽에 횃불을 세워 밝히던 식거植炬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거는 조선시대 왕실 행차에 사용된 조명 방식으로, 『영조실록』과 『정조실록』 등에서 그 설치와 운용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작품에서는 횃불을 화면의 양쪽에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행렬이 이동하는 길을 구획하고 있으며, 국왕의 행차에 필요한 조명 시설까지 시각적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표현 기법을 보면 인물들은 간결한 윤곽선과 선명한 채색으로 묘사되었으며, 동일한 복색과 동작을 지닌 군병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행렬의 질서와 규모를 강조한다. 청색과 녹색, 황색, 적색 등 다양한 색채를 활용하여 부대의 복색과 의장물의 종류를 구분하였고, 인물과 말의 형태를 일정한 양식으로 반복하여 화면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였다. 특히 장대한 화면에 수많은 인물과 기물을 배치하면서도 배경을 과감하게 생략하여 군사 편제와 의장물의 구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본 작품은 선두의 도로·교량 점검 인원에서부터 가교와 왕실 의장물, 중앙의 시위군과 후미의 호위 부대에 이르기까지 국왕의 행차에 수반되는 다양한 요소를 상세하게 담고 있다. 양주목사의 등장과 식거의 표현, 선상진·중앙진·후상진의 편제 등은 조선 후기 국왕의 능행과 관련된 기록화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특히 왕실 의장의 화려함뿐 아니라 군사 조직과 행차의 실무적인 운영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조선 후기 궁중기록화의 제작 전통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왕실 의례와 군사제도, 행차 운영의 실제를 살펴볼 수 있는 회화사적·역사적 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1.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가마』, 2006.
2. 제송희, 「18세기 행렬반차도 연구」, 『미술사학연구』273, 한국미술사학회, 2012.
3. 제송희, 「19세기 전반 의궤 반차도의 신경향」, 『미술사학연구』288, 한국미술사학회, 2015.
4. 설지희, 「조선시대 발인행렬 시 사용된 횃불과 제등(提燈)의 변천」, 『한국전통문화연구』 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7.







038

고균 **김옥균** 1851-1894

古筠 金玉均 Kim OkGyun

비경변구격양 非競辨求激揚 Calligraphy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39×87.5㎝

₩ 2,000,000-4,000,000

非競辨求激揚 말다툼이나 언쟁을 벌여 이름을 떨치려는 것이 아니다.
海南牧牛子金玉均試病腕. 해남의 목우자 김옥균이 병든 팔뚝을 시험하다.

[인문] 金玉均印, 古筠居士

중국의 <묘정거사 조관사청보설妙淨居士趙觀使請普說>에 나오는 구절이다.



039

해공 **신익희** 1894-1956

海公 申翼熙 Shin Ik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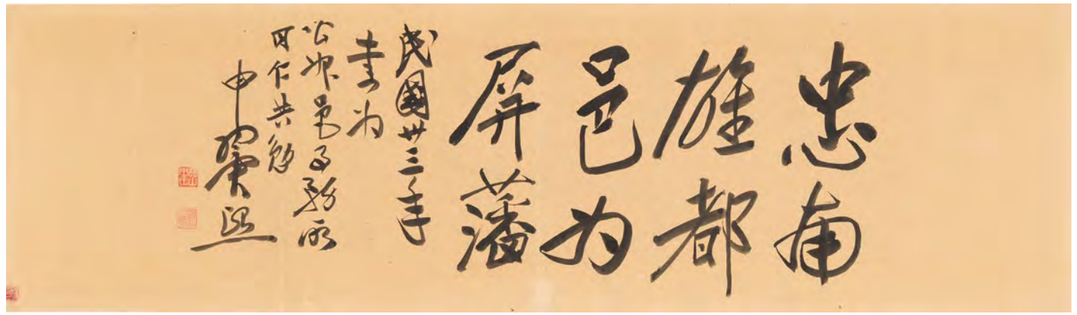
충남웅도읍위병번 忠南雄都邑爲屛藩 Calligraphy

1951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31×108.5㎝

₩ 1,200,000-2,500,000

忠南雄都邑爲屛藩 충남의 큰 도읍들이 나라의 울타리가 된다.
民國卅三年, 書爲公州邑事務所 同仁共勉 민국 33년, 공주읍 사무소의 모든 분들이 함께 힘쓰기를 바라며 써서 드린다.

[인문] 平山申氏, 翼熙之印



040

등왕각시서

滕王閣詩序
Preface to the Poem on Tengwang Pavilion

첩 Album
종이에 먹 Ink on Paper
35.5×18㎝

₩ 20,000,000-40,000,000





이 책은 당나라 왕발(王勃, 647-674)의 <등왕각서滕王閣序>를 해서로 필사한 1책의 선장본이다. 제목은 《등왕각시서滕王閣詩序》이고, 오침안법五針眼法으로 장정되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歲戊子秋八下浣□□□書"라는 관지가 적혀 있는데, 이름 부분을 일부러 삭제하여 필사자를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석봉 한호(石峯 韓濩, 1543-1605)의 글씨를 추종한 것으로 보인다. 그 아래에 소장인으로 추정되는 도장이 찍혀 있으나, 판독하기 어렵다.

책의 내용은 총 다섯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등왕각서》가 주인공이고 나머지 네 편의 글은 부록의 성격이다.

첫 번째가 큼직한 해서로 필사된 《등왕각서》인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나라 홍주자사洪州刺使 염백서(閻伯嶼, ?-?)가 등왕각滕王閣을 중수한 기념으로 중양절에 큰 연회를 베풀었을 때, 왕발이 어린 나이에 참석하여 이 글을 지어 좌중을 압도했다고 한다.

두 번째 글은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가 친척에게 보낸 편지 1건인데, 주희의 문집에도 누락된 것으로 송나라 나대경(羅大經, 1196-1242)이 편찬한 《학림옥로鶴林玉露》 권7에 실려 있다.

세 번째 글은 송나라 구양수(歐陽脩, 1007-1072)의 <추성부秋聲賦>이다.

네 번째 글은 당나라 이백(李白, 701-762)의 <여산폭포를 바라보며[望廬山瀑布水]>라는 시이다.

마지막은 당나라 이백의 <여산 오로봉을 바라보다[望廬山五老峯]>라는 시로 약간 큰 행서로 적혀 있다.



041

곡수정속난정회첩

曲水亭續蘭亭會帖

Album of the Orchid Pavilion Gathering at Goksuj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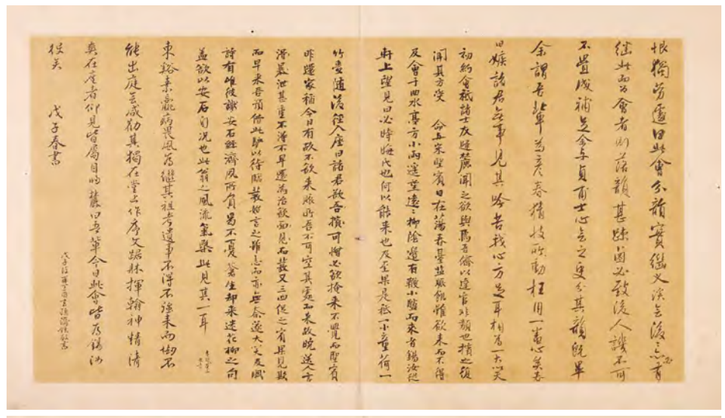
1733
첩 Album
종이에 먹 Ink on Paper
각 45×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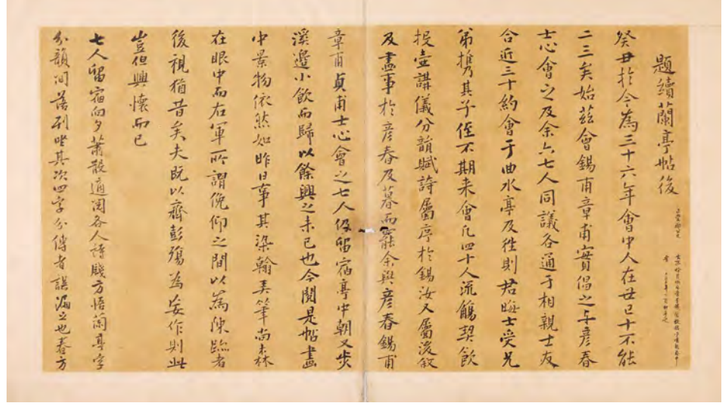
₩ 15,000,000-30,000,000


曲水亭續蘭亭會帖

曲水亭續蘭亭會帖







이 첩은 영조 계축년(1733) 3월 초에 동교東郊의 박사인동朴舍人洞에 있는 곡수정曲水亭에서 계모임을 하며 지은 시를 모은 2첩으로 된 계회첩이다. 박사인동은 현재 동대문구 청량리동과 제기동 부근에 있었던 지명인데, 조선 초기에 사인舍人을 지낸 박호(朴浩, 1653-1718)가 동대문 밖 산수 좋은 곳에 별장을 지은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난정회蘭亭會는 동진東晉의 왕희지(王羲之, 303-361)가 영화永和 9년(353) 3월 3일에 회계산會稽山의 난정蘭亭에서 사안謝安을 비롯한 당시의 명사 41인과 모여 친목을 다진 모임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 뜻을 계승한 모임이라는 의미로 '속續'자를 붙인 것이다.

첫 번째 첩의 앞에는 2편의 서문이 붙어 있다. 맨 앞의 서문은 지당 정하언(止堂 鄭夏彦, 1702-1769)이 썼는데, 계모임을 치른 36년 뒤인 무자년(1768, 영조44)에 지은 것이다. 실제 글씨는 정하언의 현손서玄孫婿 이희영(李曦榮, ?-?)과 정하언의 현손 정제현(鄭濟鉉, 1822-1868)이 1837년(헌종3) 겨울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나중에 써넣었다. 이어 동계 조귀명(東谿 趙龜命, 1693~1737)이 지은 서문이 있는데, 이는 계모임 당시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첩의 말미에는 임상원(林象元, 1709-?)의 발문이 실려 있어 계모임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정리하면 계모임은 계축년(1733, 영조9) 3월 초에 이뤄져 첩의 형태로 전해 오다가 무자년(1768, 영조44)에 정하언이 서문을 지었고, 이를 후손이 정유년(1837, 헌종3) 겨울에 대필하여 최종 완성한 것이라 하겠다.

맨 앞에 실린 정하언이 지은 제속난정첩후題續蘭亭帖後는 바로 이 첩의 서문격이다. 대략을 살펴보면, 이 속난정회는 계축년(1733, 영조9) 3월 초에 동진東晋 시대 왕희지의 난정수계蘭亭修稧를 이어서 다시 거행한 것이다. 이 모임을 주도한 이는 석보錫甫-조지명(趙祉命, 1707-?)-와 장보章甫-여면주(呂冕周, 1701-?)-가 주도하였고, 언춘彦春-임상원林象元-, 사심士心-조계명(趙啓命, 1708-?)-, 회지會之-조재우(趙載遇, 1708-?), 정하언이 동의하여 친한 사우士友 약 30명에게 통지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약속이 없이 모이거나 자질子姪을 거느린 사람까지 있어 총 40여 명에 달하는 거대한 모임이 되었다.

서문에 따르면 원래 첩에 임상원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던 듯한데, 현재는 붙어 있지 않다. 행사는 첫째가 술잔을 띄워 마시는 유상곡수, 둘째는 투호를 겨루며 용모를 바로잡는 것, 셋째는 시를 지어 흥취를 기록하는 세 가지에 중점이 맞춰졌다.

시를 지은 사람을 앞부분부터 약간 나열하면, 오수엽(吳遂燁, 1689-?), 조집명(趙集命, 1691-?), 조현명(趙顯命, 1690-1752), 오수채(吳遂采, 1692-1759), 남처관(南處寬, 1695-?), 이이헌(李彝憲, 1696), 이광도(李匡度, 1697-1746), 오명관(吳命觀, 1699-?), 유언국(兪彦國, 1701-?), 정하언, 여면주, 이정작(李廷焯, ?-?), 최창걸(崔昌傑, 1707-1781), 이현조(李顯祚, ?-?) 등 총 40편이 실려 있다. 정하언의 서문에 따르면 애초에 현달顯達한 관리는 모임에서 배제한다고 협의하였다고 하므로 눈에 띄는 고관대작은 잘 보이지 않으며, 대략 나이 순으로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모인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서울의 소론계 경화사족京華士族, 달리 말하면 영조의 탕평책蕩平策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소론少論 완론계緩論系 인물이 중심이 되었다 할 만하다.

시고의 바깥 상단에는 과거합격 여부, 참여자의 이름, 출생년이 단정한 해서로 적혀 있어 연구 자료로서 더욱 빛을 발한다.

042

겸재 **정선** 1676-1759

謙齋 鄭敾 Jeong Seon

무고송이반환 撫孤松而盤桓 Landscape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26×56.8㎝

₩ 150,000,000-300,000,000

撫孤松而盤桓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이다.
謙齋 鄭敾 겸재 정선

[인문] 鄭, 敾

본 작품은 겸재 정선의 선면扇面 형태의 고사인물 산수도이다.

겸재 정선(謙齋 鄭敾, 1676–1759)은 조선 후기 진경산수도의 확립자로 평가받는 화가이면서, 관념산수도와 고사인물도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 본 작품은 중국 진나라의 시인인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나오는 구절을 묘사한 그림이다. 귀거래사는 도연명이 관리 생활에서 벗어나 전원 속으로 들어가며 자신의 심정을 읊은 시이며, 화면 왼쪽 상단에 시 구절인 '무고송이반환撫孤松而盤桓'이 화제로 적혀있다.

화면 중심에는 도연명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먼 산을 응시하고 있다. 원경에는 산세들이 넓게 펼쳐지고 구름은 산봉우리에 피어나있으며 햇빛이 어스름해지며 저물고 있다. 본 작품과 동일한 주제의 작품이 겸재정선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참고도판] 미술관 소장본은 화면을 클로즈업하여 근경의 시점으로 소나무를 강조하며 인물을 작게 표현하였다. 본 작품은 이보다 넓은 시점에서 원경으로 그렸으며, 산세의 미점과 피마준의 표현이 겸재의 개정적인 필법이 돋보인다. 선면의 부채살이 접혀있던 흔적으로 보아 실제 부채에 그려져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도판]
겸재 정선, <무고송이반환撫孤松而盤桓>, 삼베에 수묵담채, 24.5×22.5㎝, 겸재정선미술관 소장.





謙齋鄭敾先生扇面山水圖 겸재 정선선생 선면산수도
癸亥冬至後, 紫金仙莊主菁南吳濟峯.
계해년(1983) 동지 뒤, 자금선장주인 청남 오제봉[1]

[인문] 吳印, 濟峯

1) 청남 오제봉(菁南 吳濟峰, 1908-1991)은 경상북도 김천 출생으로 아명 덕개德介, 법명은 동률東律이다. 1923년에 해인사 홍제암의 환경幻鏡 문하에서 출가하여 승려로 수행하였고, 1952년에 환속하여 이후 서예가로 활동하였다.





조선의 귀환

조선시대 한국과 일본은 외교 사절의 왕래와 무역, 문인들의 교유 등을 통해 활발한 문화교류를 이어왔다. 특히 회화와 서예는 양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교류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조선의 화원과 문인들이 일본에서 제작하거나 선물한 작품, 일본인의 주문과 수요에 따라 제작된 그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해졌다. 이들 작품은 일본의 사찰과 문인, 수장가들에 의해 오랫동안 전승되면서 조선 회화의 예술성과 미적 감각을 일본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번 《조선의 귀환》에서는 일본에서 전해져 온 조선의 회화 29점을 국내로 환수하여 소개한다. 이 가운데 조선통신사의 일본 사행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과 개항기 수신사 관련 회화, 부산 동래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을 위해 제작된 그림 등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다양한 회화 교류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에 전해진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조선 회화의 폭넓은 전승과 수용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일본에 전해진 조선의 회화는 국내에 전하는 작품이 드문 화가들의 작품세계를 확인하거나, 당시 회화의 유통 경로와 일본에서의 수용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번에 환수된 작품들은 오랜 시간 바다 건너에서 전승되어 온 조선 회화의 면모를 다시 살펴보고, 한일 회화교류의 역사와 한국 회화사의 흐름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한다.

043

자하 **신위** 1769-1847

紫霞 申緯 SinWi

산수도 山水圖 Landscape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28.3×36.9㎝

₩ 5,000,000-10,000,000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111.



[인문] 紫霞

044

금강산중고찰도팔경

金剛山中古刹圖八景

Eight Views of Ancient Temples

첩 Album
목판본 Woodblock Print
첩_67.5×43㎝
그림_61.5×37㎝

₩ 40,000,000-80,000,000



화첩의 표제는 금강산의 고찰 그림 팔경[金剛山中古刹圖八景]이라 되어 있으나, 내용을 보면 중국 명산과 고찰을 그린 판화로 장첩되어 있다.





[수록처]
1. 富山美術館, 『李朝の繪畫: 坤月軒コレクション』, 1985, No.050.
2. 『幽玄齋選 韓國古書畵圖錄』, 1996, No.012.



광려산匡廬山
만장암萬丈巖
낙가산落迦山
방선교訪仙橋



형산衡山
석교石橋
봉련묘사奉蓮妙寺
용문사龍文寺



석낭산 문수사文殊寺
만장폭萬丈瀑
보현사普賢寺
은선교隱仙橋



안탕산雁宕山
법흥사法興寺
우선교羽仙橋



호구산虎丘山
화엄사華嚴寺
왕원교王願橋
우산교雨散橋



항산恒山
향국사享國寺



종산鐘山
구품사九品寺
천화루天化樓
육도삼생교六道三生橋



동정군산洞庭羣山
고소대姑蘇臺

045

포은 **정몽주** 1337-1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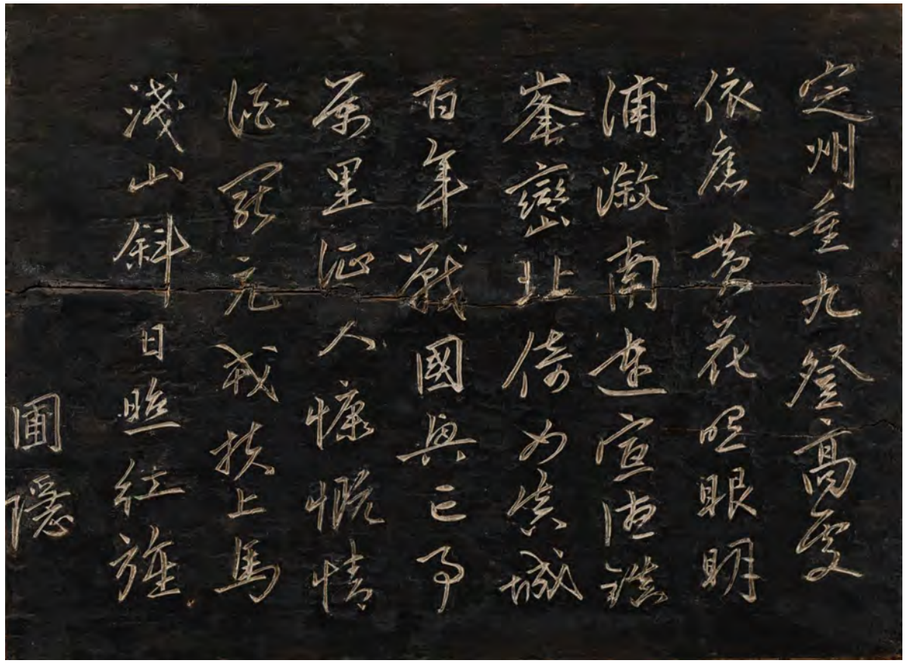
圃隱 鄭夢周 Jeong MongJu

정주중구한상명부 定州重九韓相命賦 Calligraphy

액자 Framed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31.8×43.5㎝



₩ 10,000,000-20,000,000



定州重九登高處 정주에서 중양절에 높은 데 오르니
依舊黃花照眼明 국화꽃 예전과 같이 환하게 눈에 비치네
浦溆南連宣德鎭 갯벌은 남쪽으로 선덕진에 이어졌고
峯巒北倚女眞城 봉우리는 북으로 여진의 성을 기대었네
百年戰國興亡事 백 년간 전쟁에 흥하고 망한 일에
萬里征夫慷慨情 만 리 밖 나그네는 강개한 심정일세
酒罷元戎扶上馬 술자리 끝나 대장이 부축 받고 말에 오르니
淺山斜日照紅旌 얕은 산 비낀 석양이 붉은 기를 비추네[1]

圃隱 포은

1) 이 시는《포은집圃隱集》권2에 <정주에서 중구일에 한 상공이 짓기를 명하다 [定州重九韓相命賦]>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447.

046

송벽당 **이정신** 1660-1727

松蘗堂 李正臣 Lee JeongSin

원객 遠客 Poetry Manuscript

미표구
종이에 먹 Ink on Paper
36.2×28㎝

₩ 5,000,000-15,000,000

江漢深無極 장강과 한수는 깊어 끝이 없고
梁岷不可攀 양산과 민산은 높아 오를 수 없네
山川雲霧裏 산천은 구름과 안개 속에 아득한데
遊子幾時還 나그네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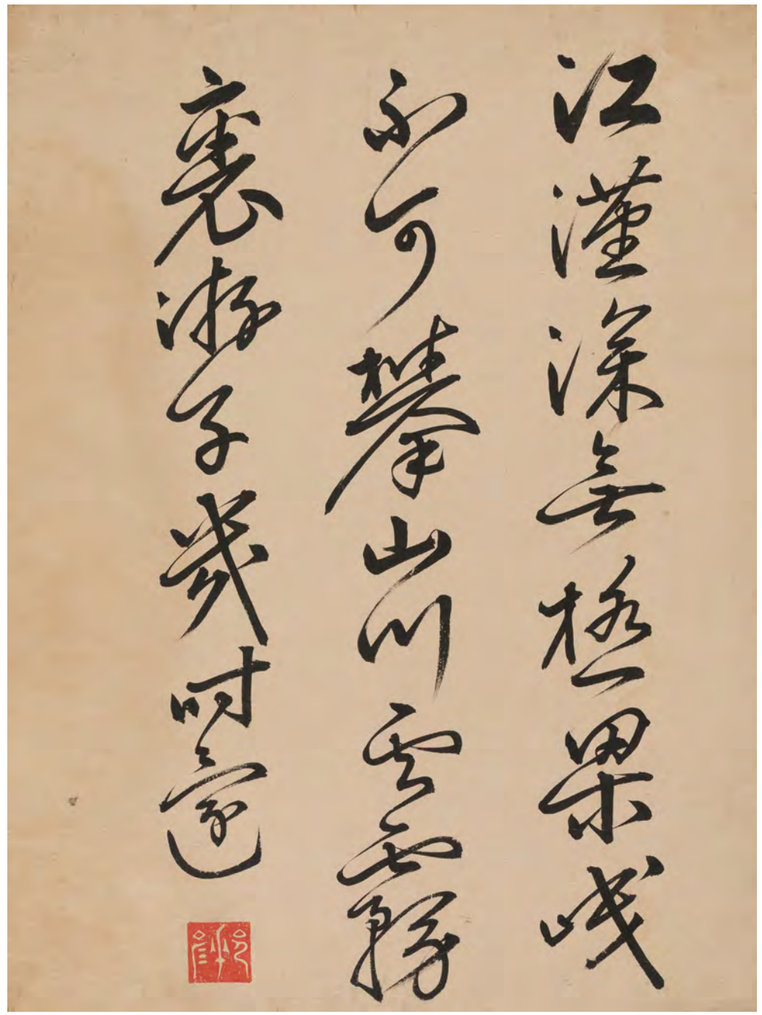
[인문] 邦彦

1) 이 내용은 당나라 두보杜甫의 <원객遠客>을 쓴 것인데, 타향을 떠돌던 두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애달픈 향수를 담아낸 시이다.

이 글씨는 '방언邦彦'이란 도장을 참고하면 조선 중후기의 문신이며 서예가인 이정신(李正臣, 1660-1727)의 글씨로 추정된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방언邦彦, 호는 송벽당松蘗堂이다. 이명한(李明漢, 1595-1645)의 증손으로, 군수 이봉조(李鳳朝, 1644-1701)의 아들이다. 연안 이씨 명문가의 후예로 1699년(숙종25)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승정원 등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글씨에 뛰어나 필적이 다수 전해 온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453.



047

귀휴당 **이배원** 1575-1653

歸休堂 李培元 Lee Bae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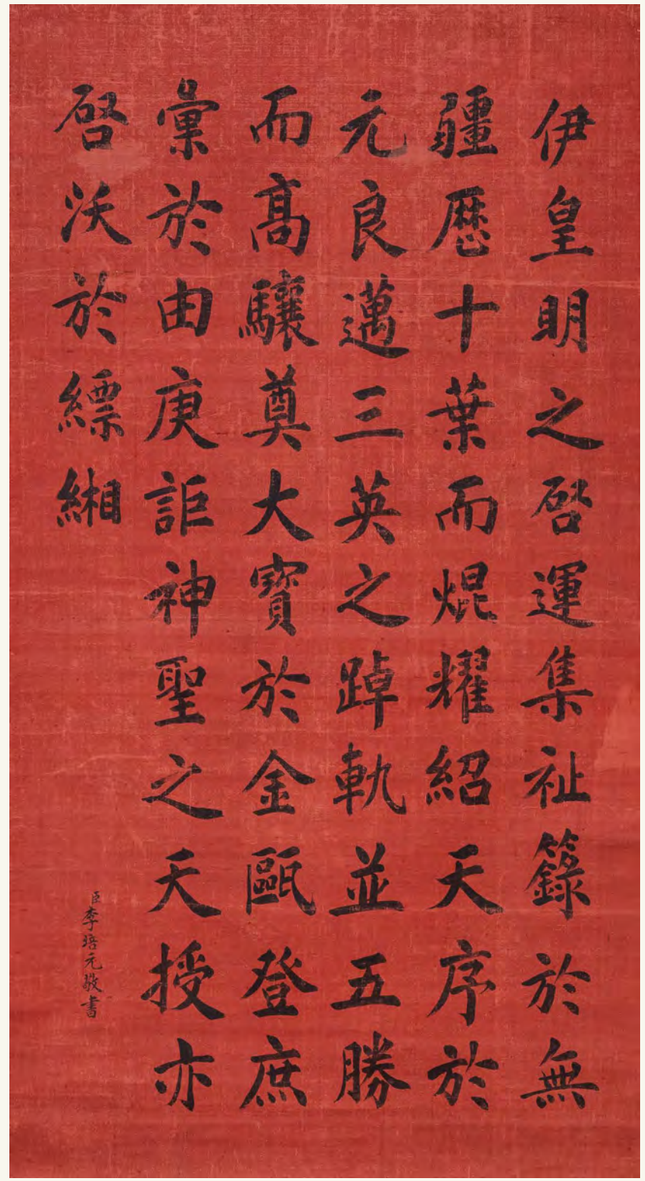
동궁저학부 절록 東宮儲學賦節錄

Excerpt from Rhapsody on the Education of the Crown Prince

족자 Hanging Scroll
비단에 수묵 Ink on Silk
136.8×74㎝

₩ 20,000,000-50,000,000





본 작품은 귀휴당 이배원이 명나라 문인 하종언(何宗彦, 1559–1624)의 「동궁저학부東宮儲學賦」 첫 부분을 옮겨 쓴 서예 작품이다. 이배원의 본관은 함평咸平, 자는 양백養伯, 호는 귀휴당歸休堂이다. 참판 이염(李琰, 1538-1588)의 아들로 1613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고 벼슬이 공조참의에 이르렀다.

하종언이 쓴 「동궁저학부」는 명나라 황태자의 학문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賦로, 명 광종 주상락(朱常洛, 재위 1601-1620)이 황태자로 책봉된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배원은 원문의 첫 열 구절을 붉은 비단 위에 검은 먹으로 쓰고 말미에 '臣李培元敬書'라고 서명하였다. 작품의 구체적인 제작 시기와 수신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명나라의 황태자 교육을 주제로 한 글을 선택하고 신하의 예를 갖추어 서명한 점에서 조선 후기 문인 관료의 유교적 정치의식과 서예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伊皇明之啓運 명나라가 새로운 국운을 열어주어
集祉籙於無疆 무궁한 후세까지 상서와 복록을 모았네
歷十葉而煜耀 열 임금을 거치도록 찬란히 빛나니
紹天序於元良 세자가 하늘의 순서를 이어 태어났도다
邁三英之踔軌 세 영재의 뛰어난 법도를 뛰어넘고
竝五勝而高驤 오승과 나란히 높이 뛰어오르네
奠大寶於金甌 큰 보물을 금 사발에 안치하고
登庶彙於由庚 만 백성을 바른 도리로 고양시키도다
詎神聖之天授 신령하고 성스러움을 어찌 하늘이 내려주랴
亦啓沃於縹緗 또한 서책으로써 세자를 보도해야 하리

臣李培元敬書 신 이배원이 공경히 쓰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464.

048

문자도 8폭병풍

文字圖八幅屛風

Character Paintings, Eight-panel Folding Screen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먹 Ink on Paper
각 50×33㎝

₩ 10,000,000-20,000,000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畵圖錄』, 1996, No.154.





049

자수화조도 2폭

刺繡花鳥圖二幅

Embroidered Birds and Flowers, Two Panels

액자 Framed
비단에 자수 Embroidery on Silk
60.8×37㎝ 외

₩ 3,000,000-6,000,000

[소장이력]
유현재幽玄齋 구장.





050

수운 **유덕장** 1675-1756

岫雲 柳德章 Yu DeokJang

묵죽도 8폭병풍 墨竹圖八幅屛風 Bamboo in Ink, Eight-panel Folding Screen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각 61.6×37.6㎝

₩ 30,000,000-80,000,000





[수록처]
1. 大和文華館,『(特別展)李朝の屛風』, 1987, No.017.
2.『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067.

수운 유덕장은 탄은 이정(灘隱 李霆, 1554- 1626), 자하 신위(紫霞 申緯, 1769-1845)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3대 묵죽화가로 평가된다. 본 작품은 유덕장의 개성적인 묵죽화풍이 잘 드러나는 8폭으로 구성된 묵죽도 병풍이다. 정갈하지만 비교적 날카로우면서 힘 있게 표현된 대나무 잎, 의도적으로 진한 줄기의 먹색은 강인하고 견고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인 풍죽, 비에 젖은 우죽, 오래된 나무인 노죽, 구름 사이로 핀 대나무, 대나무 줄기가 굵은 통죽, 눈 속의 설죽 등 대나무의 여덟가지 모습을 가지런하지만 단조롭지 않게 능숙한 필치로 표현하였다. 특히 마지막 폭의 설죽은 대나무에 눈이 소복하게 쌓인 모습에서 서정적인 정취와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모습에서 군자의 상징성을 화면에 구현하였다.



[참고도판]
1. 수운 유덕장, <묵죽도>, 종이에 수묵, 142×93.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 수운 유덕장, <묵죽도>, 종이에 수묵, 142×93.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 수운 유덕장, <묵죽도>, 종이에 수묵, 106×6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인문] 陰泉, 岫雲居士



051

북산 **김수철** ?-1862 이후

北山 金秀哲 Kim SuCheol

산루관해 山樓觀海 Landscape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132.2×30㎝

₩ 30,000,000-50,000,000





[인문] 金秀哲印, 北山

투명하고 담백한 색채가 돋보이는 북산 김수철의 산수도이다. 경물을 화면 우측에 치우치게 배치하여 좌측 여백을 넓게 살렸다. 원경에 솟아오른 암산이 표현되었고, 그 아래로 단풍이 든 듯한 나무와 건물, 인물이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수채화를 보는 듯한 부드럽고 습윤한 느낌이 김수철의 회화적 역량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김수철의 산수도는 중국에서 전해진『고씨화보顧氏畵譜』와『당시화보 唐詩畵譜』,『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수철은 화법서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화풍과 청으로부터 새로이 유입된 화풍을 수용하여 독특한 설채법設彩法을 형성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조미경,「北山 金秀哲의 繪畵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학위논문, 2005.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畵圖錄』, 1996, No.140.

052

정재 **홍장중** ?-?

淨齋 洪章中 Hong JangJung

수하호도 樹下虎圖 Tiger under a Tree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120.5×53.7㎝

₩ 30,000,000-50,000,000



조선 후기에 그림을 잘 그렸다는 것이 전하여오는 작가인 정재 홍장중(淨齋 洪章中, ?–?)의 <수하호도樹下虎圖>이다. 지금까지 유작으로 <교감도서도校勘圖書圖>이라는 고사인물화故事人物畵가 전하는데, 소략한 필치의 소나무와 배경 표현이 이채롭다. 반면, 이 작품은 호랑이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이 돋보인다. 배경의 소나무는 빠르고 율동적인 붓놀림으로 그려져 호랑이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킨다.

朝鮮 淨齋寫
조선 정재 그리다.





[수록처]
1. 富山美術館,『李朝の繪畫: 坤月軒コレクション』, 1985, No.030.
2.『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115.



053

취원 ?-?

翠園 Chwiwon

유점사 楡岾寺 Yujeomsa Temple

족자 Hanging Scroll
비단에 수묵 Ink on Silk
53.1×36.9㎝

₩ 40,000,000-80,000,000



楡岾寺 유점사

[인문] □□□□□, 翠園

岾爲內外山分界處. 內山多石而少土, 外山多土而少石, 多石故白峭, 多土故蒼而雄, 此內外山之別也. 안문점爲門岾은 내금강과 외금강의 분기점이다. 내금강은 바위가 많고 흙은 적으며, 외금강은 흙이 많고 바위는 적다. 내금강은 바위가 많기 때문에 희고 가파르며, 외금강은 흙이 많기 때문에 푸르고 웅장하니, 이것이 내금강과 외금강의 차이점이다.[1]

1) 농암 김창협(農巖 金昌協, 1651-1708)의 <동유기東游記>의 일부 구절이다.

[인문] □□, □行, 西村

본 작품은 정선 화풍이 여실히 드러나는 필력의 작품이며, 유일하게 본 작품만이 유점사를 원경(부감법)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한국학연구원 소장의 겸재 정선 유점사 작품은 건물을 클로즈업하여 그려진 것이다. 유점사를 그려 알려진 작품 또한 단 1점만이 존재 하며, 본 작품까지 하면 2점 뿐이다. 본 작품은 일본 유현재 컬렉션에 포함되어 올해 국내에서 최초 공개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참고도판 1]

유점사 실경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작품은 당시 금강산의 주변 경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구체적인 건축의 형태, 지역의 모습 등을 잘 알 수 있다. [참고도판 2]

제발은 농암 김창협(農巖 金昌協, 1651-1708)의 <동유기東游記>의 일부 구절이다. 농암 김창협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숙종대 유학과 한문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문古文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세련되며 자연스러운 문장이 특징이다. 김창협은 겸재 정선의 학문적 스승이자 유학자이자 시인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1653-1722)의 형이다. 조선후기 문인의 자연관은 우리 산천을 독자적인 조형언어로 구현한 진경산수화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문화적 토대가 되었다. 제발 주변으로 여러 과의 인장으로 보아 좋은 작품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별처럼 빛나는 기록의 향연』, 2025.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畵圖錄』, 1996, No.058.





[참고도판]
1. 겸재 정선, 《고화첩古畵帖》 中 <유점사楡岾寺> , 비단과 삼베에 수묵,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11681).
2. 금강산 유점사 실경 사진



수출회화
輸出繪畵

조선 후기에는 부산 동래의 왜관倭館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본인의 취향과 수요에 맞추어 회화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화가들도 활동하였다. 특히 18세기 후반 이후 통신사를 통한 공식적인 문화교류가 줄어들면서 왜관을 매개로 한 민간의 회화 교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에서 조선 회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자 동래 지역의 화가들은 호랑이와 매를 비롯하여 화조영모, 산수, 사군자 등 다양한 소재의 그림을 제작하였으며, 일부 작품에는 '조선朝鮮', '조선국朝鮮國' 등의 국명을 관서에 함께 표기하여 조선에서 제작된 회화임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일수출회화對日輸出畵는 통신사 수행화원들이 공식적인 사행 과정에서 남긴 작품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회화교류 방식이었다. 동래 지역에서는 변박(卞璞, ?-?), 변지순(卞持淳, ?-?), 변지한(卞持漢, ?-?), 김달황(金達晃, ?-?) 등 여러 화가가 활동하였으며, 이들은 당시 중앙 화단에서 유행하던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의 화풍과 남종문인화풍을 수용하면서도 일본인의 미적 취향을 반영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특히 이들의 작품은 조선의 전통적인 회화 기법과 일본의 회화 수요가 결합하여 형성된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래 지역 화단의 활동은 2022년 부산박물관에서 개최한 《조선시대 부산의 화가들》 전시를 통해서도 조명된 바 있다.

이번 파트에서는 괴원 변지한의 <매화선면도梅花扇面圖>와 <산수도山水圖>, 송수관 김달황의 <괴석응도怪石鷹圖>를 소개한다. 변지한은 동래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조선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화가로, 산수와 사군자, 화조 등 다양한 화목의 작품을 남겼으며, 그의 그림은 현재 일본의 여러 수장처에 전하고 있다. 김달황 역시 동래 왜관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가로, 매와 호랑이 등 일본에서 선호하던 소재를 비롯하여 산수와 인물 등 여러 화목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번에 소개하는 작품들은 조선 후기 동래 지역 화가들의 회화적 역량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그림의 제작 및 유통을 보여주는 자료로, 공식 사행뿐 아니라 민간의 교역을 통해서도 지속되었던 조선과 일본의 미술 교류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1. 이성훈, 「海夫 卞持淳과 19세기 전반 동래 지역 화단」, 『미술사학연구』278, 2013.
2. 부산박물관, 『조선시대 부산의 화가들』, 2022.

054

괴원 **변지한** ?-?

槐園 卞持漢 Pyeon JiHan



매화선면도 梅花扇面圖 Plum Blossoms

액자 Framed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20×50㎝

₩ 5,000,000-10,000,000

朝鮮槐園 조선 괴원.

[인문] □, □

변지한(卞持漢, ?-?)의 호는 괴원槐園으로, 19세기 조선 후기 동래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조선통신사 및 초량왜관을 통해 대일교역용 회화를 제작한 대표적 화가이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391.



055

괴원 **변지한** ?-?

槐園 卞持漢 Pyeon JiHan

조어도 釣魚圖 Landscape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100.6×28.7㎝

₩ 5,000,000-10,000,000

朝鮮槐園寫 조선 괴원이 그리다.

[인문] □, □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畵圖錄』, 1996, No.389.





056

송수관 **김달황** ?-?

松水館 金達晃 Kim DalHwang

괴석응도 怪石鷹圖 Hawk and Rock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82.2×51.2㎝

₩ 5,000,000-10,000,000

朝鮮松水館 조선 송수관

[인문] □

송수관 김달황(松水館 金達晃, ?-?)은 동래 왜관 일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상업작가로 대일교역용으로 호랑이, 매 등을 잘 그렸다고 전해진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畵圖錄』, 1996, No.374.







통신사
通信使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는 조선에서 일본 막부에 파견한 공식 외교 사절단으로, 양국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학문과 문화를 교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 전기부터 이어진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국교 회복을 계기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총 12차례 파견되었다. 초기에는 전쟁으로 단절된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조선인 포로를 송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1636년부터 통신사라는 명칭이 다시 사용되었고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양국의 학문과 예술을 교류하는 문화사절단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통신사에는 정사와 부사, 종사관을 비롯하여 제술관, 서기, 역관, 화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참여하였으며, 일본 각지의 문인과 승려, 학자, 화가들과 교유하였다.

특히 통신사의 일본 방문에서 서화는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일본인들은 조선 사절단의 글씨와 그림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사행에 참여한 화원과 문인들은 일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회화와 서예 작품을 제작하거나 선물하였다. 이러한 교류는 1655년 을미통신사乙未通信使를 전후하여 본격화되었고, 1682년 임술통신사壬戌通信使 이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행 과정에서 제작된 서화는 일본의 사찰과 문인, 수장가들에 의해 소중히 보존되었으며, 오늘날 조선시대 회화의 다양한 면모와 당시 양국의 문화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전하고 있다.

이번 파트에서는 1655년 을미통신사의 수행화원 설탄 한시각을 시작으로, 1682년 임술통신사에 참여한 창랑 홍세태, 1748년 무진통신사의 소와 현덕연과 농와 박윤한 관련 작품, 1763년 계미통신사의 제술관 추월 남옥, 그리고 1811년 마지막 신미통신사의 수행화원 신원 이의양과 역관 청옹 진동익의 작품을 소개한다. 1811년 신미통신사는 기존의 에도[江戶] 방문과 달리 쓰시마[対馬]에서 국서를 교환한 역지통신易地通信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의양과 진동익이 남긴 작품들은 마지막 통신사행에서 이루어진 서화교류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번 작품들은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이어진 통신사의 문화교류와 일본에 전해진 조선 회화의 전승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정은주, 「1811년 쓰시마 통신사행의 서화 교류」, 『동아시아문화연구』6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057

설탄 **한시각** 1621-?

雪灘 韓時覺 Han SiGak

포대화상도 布袋和尙圖 Budai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66.3×38㎝

₩ 35,000,000-70,000,000



手持白鸞尾,(山手白)夜掃南山雲,(青山水尾)
손으로 흰 난새 꼬리를 잡고, 밤에 남산의 구름을 쓰네.
青北(時年九十) 청북(당시 나이 90세)[1]

[인문] 南○○○, 青北之印

1) 청북青北이란 사람이 당나라 이하(李賀, 790-816)의 <신선[仙人]>이란 시에 "손으로 흰 난새 꼬리를 잡고, 밤에 남산의 구름을 쓰네.[手持白鸞尾, 夜掃南山雲.]"라는 구절을 화제로 쓴 것이다. 추가된 말은 후대에 누군가 덧붙여 쓴 것으로 보인다.

雪灘 설탄

[인문] 子裕

17세기를 대표하는 조선 도화서의 화원畫員인 한시각은 1655년 을미통신사행乙未通信使行으로 수행 화원을 다녀온 바, 이 당시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춰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수량의 작품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소재 포대화상布袋和尙은 실존인물로 당나라 말, 오대에 절강성浙江省 봉화현奉化縣 출신의 인물이다. 자칭 설차로 칭하며 얻은 자루를 메고 다니면서 무엇이든 동냥한 것을 그 속에 담아 다녔기 때문에 그를 포대화상이라 부른 것이다. 포대화상은 풍만한 체구와 불룩 튀어나온 배, 주름이 가득한 얼굴과 긴 눈썹의 외형적 특징을 가진다. 본 출품작을 살펴보면, 한시각 역시 선배 화원화가 김명국(金明國, 1600경–1663) 이후이 주로 사용했던 감필법減筆法을 이용하여 인물의 옷자락과 전신을 표현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윤곽선은 짙은 묵선으로 간결하게 처리하여 선종화 특유의 감필적 특징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시선 처리는 주저앉은 채 왼쪽 위를 향하고 있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해 보인다. 또한 본 포대화상은 간송미술관 소장의 <포대화상>과 얼굴 및 신체 표현 등에 있어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321.



[참고도판]
畵_설탄 한시각, 讚_모쿠안 쇼우토, <달마도>,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소장(구입8449).



058

창랑 **홍세태** 1653-1725

滄浪 洪世泰 Hong SeTae

추경산수도 秋景山水圖 Autumn Landscapee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84.2×31㎝

₩ 10,000,000-20,000,000



朝鮮滄浪 조선 창랑

[인문] 書畵之印

본 작품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위항시인이자 1682년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했던 창랑 홍세태의 산수화이다. 화면에는 높이 솟은 암벽과 깊은 골짜기, 산중에 자리한 누각과 수목을 묘사하였으며, 화면 좌측 중단에는 '조선창랑朝鮮滄浪'이라 서명하고, '서화지인書畵之印'이라는 인장을 찍었다. 특히 '朝鮮'이라는 국명을 호 앞에 명시한 점은 이 작품이 조선과 일본의 문화교류 속에서 제작되거나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홍세태는 본관이 남양南陽, 자가 도장道長, 호가 창랑滄浪·유하柳下이다. 1675년 역과에 합격하였으며, 1682년 윤지완(尹趾完, 1635-1718)을 정사로 하는 조선통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그는 뛰어난 한시 창작 능력을 바탕으로 김창협(金昌協, 1651-1708), 김창흡(金昌翕, 1653-1722) 등 당대의 문인들과 교류하였으며, 중인층의 문학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대표적인 위항문인이었다. 또한 1713년에는 위항시인들의 작품을 모은 『해동유주海東遺珠』를 편찬하는 등 조선 후기 위항문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682년 일본에 파견된 홍세태는 현지 문인들과 시문을 주고받으며 활발한 문화교류를 펼쳤다. 당시 조선통신사는 외교적 임무뿐 아니라 조선과 일본의 학문 및 예술을 교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홍세태는 뛰어난 한시로 일본 문인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와 일본 문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문학적 교류는 현재까지 전하는 『조선통신사수창시朝鮮通信使酬唱詩』 등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일본 교토 상국사 자조원에도 홍세태가 현지 승려의 시에 화답하여 남긴 글씨가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의 작품이 일본에 남겨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화면의 구성은 간결하면서도 대담하다. 중앙에는 험준한 암벽과 깊은 골짜기가 자리하고, 그 사이에 여러 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어 은근의 공간을 연상시킨다. 가늘고 긴 선으로 암벽의 윤곽과 굴곡을 표현하고, 옅은 청록색과 먹의 농담을 활용하여 산세의 깊이를 나타냈다. 산기슭에는 붉게 물든 나무를 배치하여 가을의 정취를 강조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건축물의 처마와 지붕은 섬세한 선묘로 처리하였다. 특히 넓은 여백과 산봉우리의 배치를 통해 화면에 깊이와 여유를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구성은 자연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 자연 속에서 누리는 고요한 삶과 산수의 정취를 표현한 전통적인 문인 산수화의 성격과 연결된다. 강한 윤곽선과 옅은 채색, 청록과 주홍의 대비는 화면에 생동감을 더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담박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조선통신사행을 통해 일본에 전해진 서화는 외교적 예물의 성격뿐 아니라 양국 문인들이 서로의 학문과 예술을 이해하고 우의를 나누는 매개체이기도 하였다. 본 작품 역시 '朝鮮滄浪'이라는 서명과 홍세태의 일본 방문 이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화교류의 맥락에서 제작되거나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홍세태는 주로 시문과 문학적 업적으로 알려진 인물로, 그의 이름으로 전하는 회화 작품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소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작품은 조선 후기 문인들의 산수화 제작과 감상 문화를 살펴보는 동시에, 17세기 후반 조선통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일 서화 교류의 양상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고문헌]
1. 황은영,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 통신사행 회화자료의 특성 연구」, 『조선통신사연구』30, 조선통신사학회, 2020.
2. 홍인국, 「조선통신사 수창시(朝鮮通信使 酬唱時)」, 『동아연구』39,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20.
3. 한태문, 「1682년 통신사 필담창화집 『和韓唱酬集』에 반영된 한일문화교류 연구」, 『한국민족문화』7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畵圖錄』, 1996, No.322.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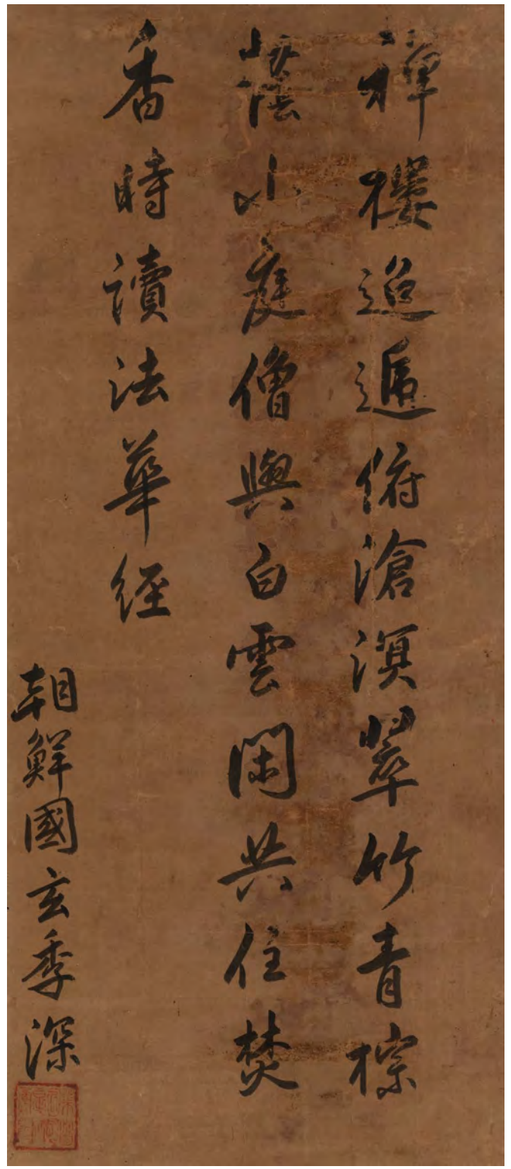
소와 **현덕연** 1694-?

疏窩 玄德淵 Hyeon DeogYeon

선루초체부창명 仙樓迢遞俯滄溟 Calligraphy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78.4×33.5㎝

₩ 5,000,000-10,000,000



仙樓迢遞俯滄溟 신선의 누각 높고 아득하여 너른 바다 굽어보고
翠竹青棕蔭小庭 푸른 대와 종려나무로 작은 뜰에 그림자 지네
僧與白雲閑共住 스님은 흰 구름과 한가로이 함께 머물며
焚香時讀法華經 향을 사르고 때로 법화경을 읽네
朝鮮國玄季深 조선국 현계심

[인문] 華山一月 良谷煙霞

현덕연(玄德淵, 1694-?)의 본관은 천녕川寧, 자는 계심季深이다. 1714년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 교회倭學敎誨, 부산 훈도釜山訓導, 충익위장忠翊衛將 등을 역임하였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340.

060

농와 **박윤한** ?-1805

聾窩 朴潤漢 Pak YunHan



묵죽도 墨竹圖 Bamboo in Ink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18×50.5㎝

₩ 5,000,000-15,000,000

朝鮮聾窩 조선 농와

[인문] 惠源

박윤한(朴潤漢, ?-?)의 자는 덕원德源, 호는 농와聾窩이다. 조선 후기 부산 초량왜관과 대마도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선 후기 왜학倭學 역관이자 소통사小通事, 서화가이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352.



061

농와 **박윤한** ?-1805

聾窩 朴潤漢 Pak YunHan

작주회림 酌酒會臨 Poem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먹 Ink on Paper
100.6×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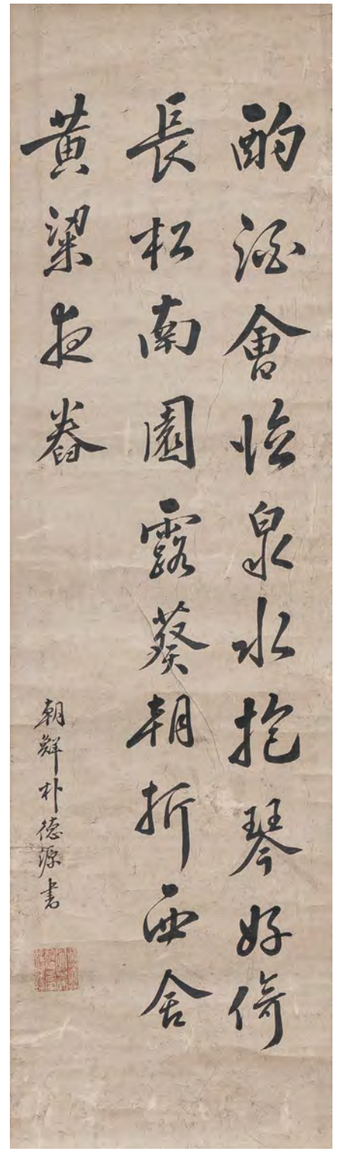
₩ 5,000,000-15,000,000

酌酒會臨泉水 술을 따라 샘물가에 모여 마시고
抱琴好倚長松 거문고 안고 높은 소나무에 늘 기대네
南園露葵朝折 남쪽 채마밭 아욱은 아침에 꺾고
西舍黃粱夜舂 서쪽 집의 기장은 밤에 절구질하네[1]
朝鮮朴德源書 조선 박덕원이 쓰다.

1) 당나라 왕유(王維, 699-759)의 <전원락田園樂> 7수 중의 마지막 수인데, 동곡東谷을 서사西舍로 바꿔 썼다.

[인문] 澹如秋水閒中味 和似春風靜後功

박윤한(朴潤漢, ?–1805)의 자는 덕원德源, 호는 농와聾窩이다. 정조 연간에 부산에서 활동한 소통사小通事로, 통신사나 문위행 때 일본인과 교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1805년 서계書契 위조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당했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354.



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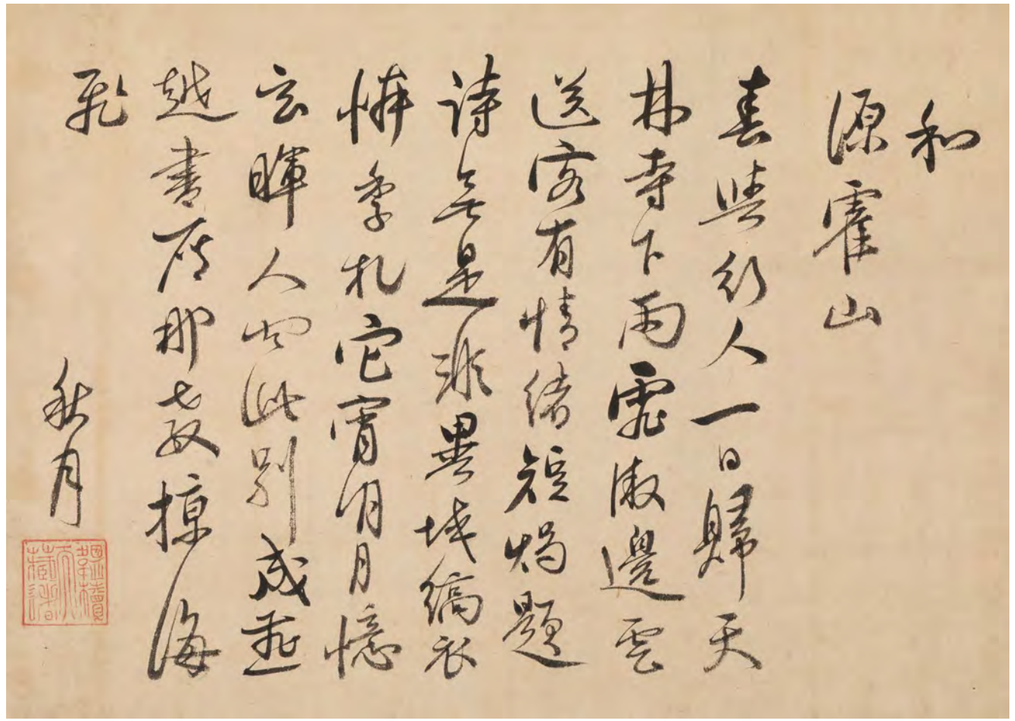
추월 **남옥** 1722-1770

秋月 南玉 Nam Ock

화원학산 和源鶴山 Calligraphy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먹 Ink on Paper
30.8×43.3㎝

₩ 5,000,000-10,000,000



和源鶴山 원학산에[1] 화답하다
春與行人一日歸 봄날은 길손과 함께 같은 날 돌아가려는데
天林寺下雨霏微 천림사 아래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네
邊雲送客有情緒 변방의 구름도 나그네를 보내며 아쉬운 정 품고
短燭題詩無是非 짧은 촛불에 시를 지으니 세속의 시비는 사라지네
異域縞衣憐季札 이국에서 흰 옷 지으니 계찰과[2] 같아 어여쁜데
它宵明月憶玄暉 훗날 밤 밝은 달 아래 현휘를[3] 그리워 하리
人間此別成燕越 인간세상 이번 이별에 연나라 월나라처럼 멀어지면
書雁那敎掠海飛 소식 전할 기러기가 어찌 넓은 바다를 스치게 하리
秋月 추월

[인문] 韞櫝而藏諸[4]

1) 원학산源鶴山 일본의 문인 이름으로 추정되나, 미상이다.
2) 계찰季札은 춘추시대 오吳나라 계찰이 노魯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신의와 고결함에 탄복하여 '노나라에서 호의縞衣 즉 하얀 비단 옷을 선물한 고사가 있다. 여기서는 자신이 타국에서 깊은 신의를 나눔을 비유한 말이다.
3) 현휘玄暉는 남북조 시대 남제南齊의 대시인 사조(謝朓, 464-499)의 자字이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시문이 사조처럼 빼어남을 비유한 말이다.
4) 온독이장제韞櫝而藏諸는 《논어 자한論語 子罕》에서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상자 속에 그냥 보관해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좋은 값을 받고 팔아야 합니까?[有美玉於斯, 韞櫝而藏諸, 求善賈而沽諸.]" 하고 묻자, 공자가 "팔아야지, 팔아야 되고말고. 나 역시 제값을 주고 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沽之哉, 沽之哉, 我待賈者也.]"라고 대답하였다.

이 시고는 남옥(南玉, 1722-1770)이 통신사 제술관製述官으로 일본에 갔을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남옥은 1763년에 8월 3일에 계미년 통신사행의 제술관製述官으로 일본을 향해 떠났다가 다음해 7월 8일에 복명復命하였다. 일본 여행을 기록한 《일관시초日觀詩草》, 《일관창수日觀唱酬》, 《일관기日觀記》 등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344.

063

신원 **이의양** 1768-?

信園 李義養 Lee UiYang

산정일장 山靜日長 Landscape

족자 Hanging Scroll
비단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Silk
108.7×39㎝

₩ 30,000,000-60,000,000

朝鮮而信 조선 이신

[인문] 信園, 李義養印



신원 이의양(信園 李義養, 1768–?)은 조선 후기 도화서 화원으로, 본관은 안산安山, 자는 이신爾信, 호는 신원信園·운재雲齋·팔송관八松觀이다. 산수와 인물, 영모 등 다양한 화목에 능하였으며, 특히 남종산수화풍을 바탕으로 세밀한 묘사와 간결한 필묵을 구사하였다. 1811년(순조 11) 마지막 신미통신사의 수행화원으로 일본 쓰시마對馬島에 다녀왔으며, 사행 과정에서 일본의 문인 및 화가들과 교류하며 여러 회화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때 일본 문인화가 다니 분초[谷文晁, 1763–1840]의 작품을 본떠 산수화를 그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조선 후기 한일 회화교류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본 작품은 거대한 산봉우리 아래 수목과 누각이 어우러진 한적한 산수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화면 상단에는 높게 솟은 주산과 그 뒤로 이어지는 원산을 배치하였으며, 중경에는 완만하게 이어지는 언덕과 수목을 그려 산세의 깊이를 나타내었다. 화면 하단에는 소나무와 나무들이 둘러싼 누각과 정원을 세밀하게 묘사하였으며, 누각 안에는 편안하게 쉬는 인물과 시중드는 인물, 정원에는 학으로 보이는 새들을 배치하여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문인의 이상적인 생활공간을 표현하였다. 특히 누각의 건축적 구조와 주변의 돌담, 나무와 인물 등을 치밀하게 묘사하여 세부적인 경물 표현이 돋보인다. 이러한 화면 표현은 산정일장山靜日長을 묘사한 듯 하다. 산정일장은 중국 남송대 학자 나대경羅大經의 『학림옥로鶴林玉露』에 나오는 구절로 산속의 고요함 속에서 여유롭고 평화로운 은거閑居 생활을 뜻한다.

화풍에서는 전통적인 남종산수화법과 화원화풍의 정교한 묘사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산봉우리는 엷은 황갈색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잡고 능선과 골짜기에 짧고 가는 준찰을 반복하여 입체감을 나타냈으며, 멀리 떨어진 봉우리에는 담청색을 가하여 원근감을 강조하였다. 반면 근경의 소나무는 줄기의 굴곡과 가지의 움직임, 솔잎의 형태를 세필로 치밀하게 묘사하였고, 누각의 지붕과 기둥, 난간과 석축 등은 정확한 선묘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원경의 부드러운 산수 표현과 근경의 섬세한 경물 묘사를 대비시키면서도 화면 전체에 은은한 담채를 가하여 조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화풍은 부산박물관 소장의 <이의양 필 산수도> 등 그의 현존 작품과 비교할 만하다.[참고도판] 특히 부산박물관 소장본은 1811년 통신사행 당시 일본 화가 다니 분초의 산수화를 본떠 제작한 작품으로, 화면의 상단에 주봉을 배치하고 하단에 수목과 인물이 등장하는 산수 공간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본 작품과 상통한다. 다만 본 작품은 전경의 누각과 정원, 소나무 등을 보다 세밀하게 묘사하고 수묵과 담채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온화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한편 화면 왼쪽 상단에는 '조선이신朝鮮爾信'이라는 서명과 '신원信園', '이의양인李義養印' 두 과의 인장이 찍혀 있다. 이의양이 일본에 전한 작품 가운데에는 '朝鮮'이라는 국명과 자신의 자인 '爾信'을 함께 기록한 사례가 확인되며, 이러한 형식은 당시 일본인들과의 서화교류 속에서 형성된 특징으로 이해된다. 본 작품 역시 1811년 신미통신사행 당시 또는 그 전후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제작되거나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본 작품은 세로로 긴 화면에 자연의 웅장함과 인간의 생활공간을 조화롭게 구성하고, 치밀한 필선과 부드러운 담채를 통해 이의양의 뛰어난 산수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일본에 전해진 조선 회화라는 전래 배경과 함께 19세기 초 조선 화원화풍의 특징 및 통신사를 통한 한일 회화교류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1. 박성희, 「신미(1811) 통신사의 회화 활동과 19세기 전반의 한일 회화 관계: 이의양筆 倣谷文晁山水圖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41, 한국미술연구소, 2015.
2. 정은주, 「1811년 쓰시마 통신사행의 서화 교류」, 『동아시아문화연구』6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3. 조화영, 「이의양(李義養, 1768–?) 필(筆) 《이신원사생첩(李信園寫生帖)》 연구: 조선후기 중·일 사행관(使行觀) 비교를 중심으로」, 『미술사학보』61, 미술사학연구회, 2023.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108



[참고도판]
<이의양 필 산수도>, 1811년, 130.8×54.8㎝,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소장(구입4744),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제79호.



064

신원 **이의양** 1768-?

信園 李義養 Lee UiYang

죽호도 竹虎圖 Tiger and Bamboo

족자 Hanging Scroll
비단에 수묵 Ink on Silk
132×41cm

₩ 15,000,000-30,000,000

朝鮮而信 조선 이신

[인문] 李義養印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382.

065

청옹 **진동익** 1777-1830 이후

清翁 秦東益 Jin Donglk

빈주무간 賓主無間 Poem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먹 Ink on Paper
121.3×38.7㎝

₩ 3,000,000-8,000,000



賓主無間 손님과 주인이 간격이 없네[1]
朝鮮淸翁 조선 청옹

1) 북송北宋의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지은 <진솔명眞率銘>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인문] 存心養性, 淸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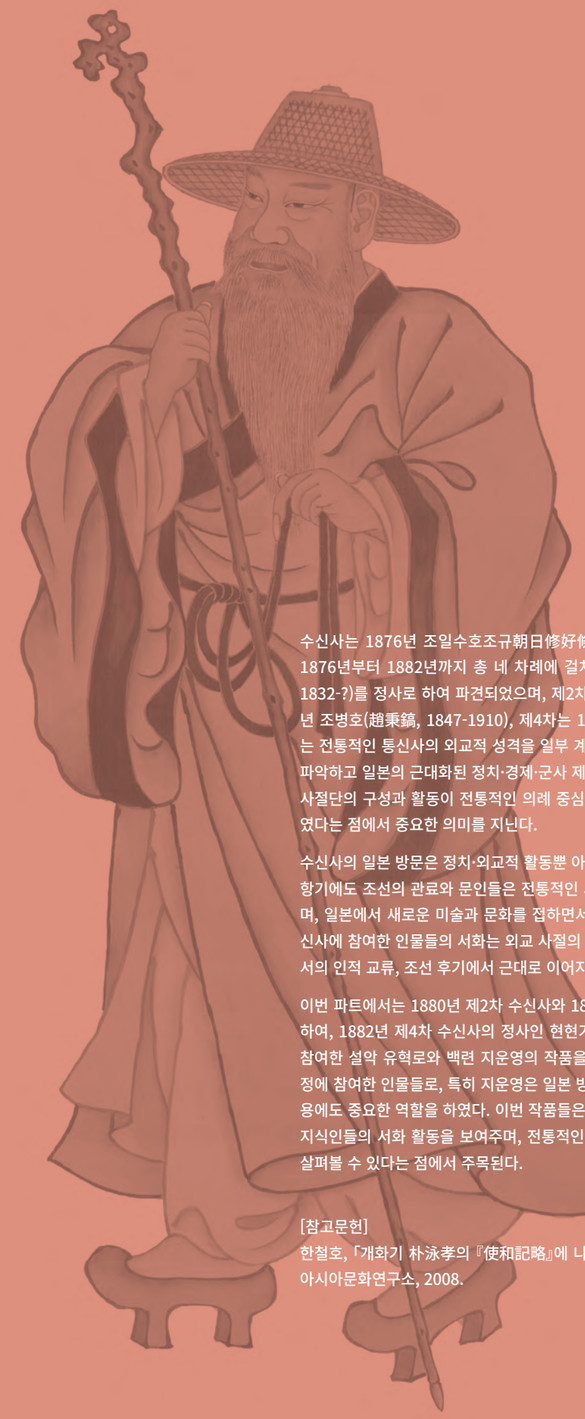
진동익(秦東益, 1773-?)의 본관은 풍기豊基, 자는 직재直哉, 호는 청옹淸翁이다. 역관으로서 지중추부사에 이르렀고, 글씨를 매우 잘 썼다. 신미년(1811) 통신사행에 차상판사次上判事로 파견되었는데, 이때 쓴 것으로 보인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404.



수신사
修信使



수신사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체결 이후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단으로, 1876년부터 1882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파견되었다. 제1차 수신사는 1876년 김기수(金綺秀, 1832-?)를 정사로 하여 파견되었으며, 제2차는 1880년 김홍집(金弘集, 1842-1896), 제3차는 1881년 조병호(趙秉鎬, 1847-1910), 제4차는 1882년 박영효(朴泳孝, 1861-1939)가 이끌었다. 수신사는 전통적인 통신사의 외교적 성격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개항 이후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일본의 근대화된 정치·경제·군사 제도와 새로운 문물을 살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외교사절단의 구성과 활동이 전통적인 의례 중심의 교류에서 근대적 외교와 국제 정세의 탐색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신사의 일본 방문은 정치·외교적 활동뿐 아니라 서화를 통한 문화교류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개항기에도 조선의 관료와 문인들은 전통적인 시서화詩書畵의 교양을 바탕으로 일본인들과 교유하였으며, 일본에서 새로운 미술과 문화를 접하면서 전통 회화와 서예의 다양한 표현을 지속하였다. 특히 수신사에 참여한 인물들의 서화는 외교 사절의 공식적인 활동과 함께 당시 문인들의 예술적 소양, 일본에서의 인적 교류, 조선 후기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서화문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1880년 제2차 수신사와 1881년 제3차 수신사에 연이어 참여한 완서 이조연을 비롯하여, 1882년 제4차 수신사의 정사인 현헌거사 박영효, 종사관으로 참여한 위산 서광범, 수행원으로 참여한 설악 유혁로와 백련 지운영의 작품을 소개한다. 이들은 개항기 조선의 정치·외교와 근대화 과정에 참여한 인물들로, 특히 지운영은 일본 방문을 계기로 사진술을 습득하는 등 새로운 시각문화의 수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번 작품들은 근대적 외교 관계로 전환되는 시기에 일본을 방문한 조선 지식인들의 서화 활동을 보여주며, 전통적인 시서화 문화가 근대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되었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고문헌]
한철호, 「개화기 朴泳孝의 『使和記略』에 나타난 일본 인식」, 『동아시아문화연구』44,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8.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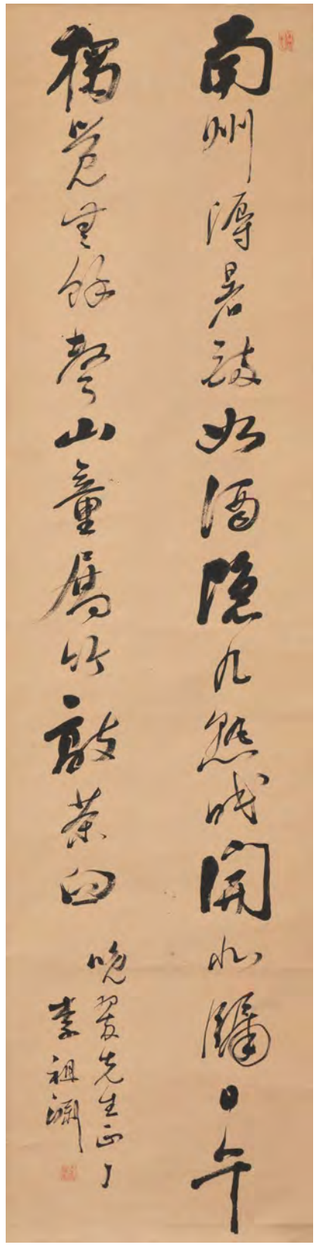
완서 **이조연** 1843-1884

甎西 李祖淵 Lee JoYeon

남주욕서취여주 南州溽暑醉如酒 Calligraphy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먹 Ink on Paper
136.5×34.2㎝

₩ 5,000,000-10,000,000



南州溽暑醉如酒 남쪽 지방의 찌는 더위는 흡사 술에 취한 듯
隱几熟眠開北牖 북쪽 창문 열고서 안석에 기대 깊은 잠에 들었네
日午獨覺無餘聲 대낮에 홀로 깨니 사방엔 아무런 소리 없는데
山童隔竹敲茶臼 대숲 건너편에서 산골 아이가 차 절구를 찧네
晩翠先生正之, 李祖淵 만취선생께 가르침을 청하며, 이조연

[인문] 恨不到古人佳處, 李祖淵印

이조연(李祖淵, 1843-1884)의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경집景集, 호는 완서甎西이다. 1880년 사헌부감찰로서 개항 후 처음으로 파견되는 수신사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이듬해 다시 수신사 조병호(趙秉鎬, 1847-1910)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1882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개항기에 기계국 총판, 이조 참의, 협판군국사무 등을 역임하였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604.

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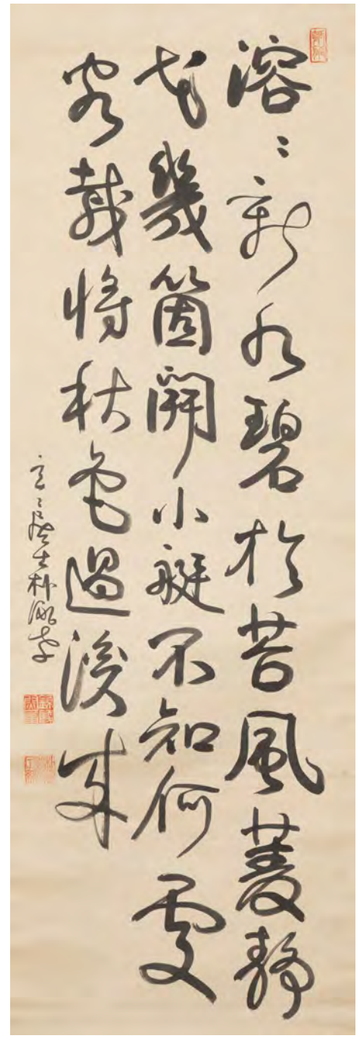
현현거사 박영효 1861-1939

玄玄居士 朴泳孝 Park YoungHyo

용용신수벽어태 溶溶新水碧於苔 Calligraphy

족자 Hanging Scroll
비단에 먹 Ink on Silk
128.2×43㎝

₩ 1,000,000-3,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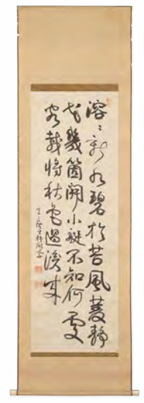


溶溶新水碧於苔 출렁이는 새 물은 이끼보다 더 푸른데
風菱靜花幾箇開 바람 고요한 물가엔 마름꽃 몇 송이 피었네
小艇不知何處客 작은 배 탄 나그네는 어디서 온 사람인지
載將秋色過溪來 가을 빛을 싣고서 시냇물 건너 다가오네[1]
玄玄居士朴泳孝 현현거사 박영효

[인문] 瓠船, 錦陵尉章, 朴泳孝字子純

1) 명나라 유태(劉泰, 1422-1459)의 <청계방도도清溪放棹圖>라는 시이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672.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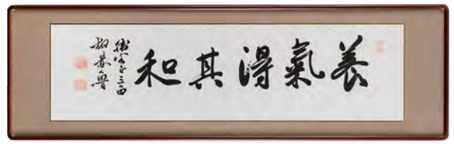
설악 **유혁로** 1851-1945

說嶽 柳赫魯 Yu HyeokRo

양기득기화 養氣得其和 Calligraphy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33.3×123㎝

₩ 1,000,000-3,000,000



養氣得其和 기운을 길러 조화를 얻는다
韓客正三品, 柳赫魯 한국 나그네 정3품, 유혁로

[인문] 水淵, 柳赫魯印, 雪岳山人

유혁로(柳赫魯, 1851-1945)의 호는 설악산인雪嶽山人·설강雪岡이다. 충청남도 아산 출신으로 구한말의 무신이자 일제강점기 관료 및 서화가로 활동한 인물이다. 박규수(朴珪壽, 1807-1877)와 오경석(吳慶錫, 1831-1879)의 문하에 출입하며 김옥균(金玉均, 1851-1894), 박영효(朴泳孝, 1861-1939), 서광범(徐光範, 1859-1897), 유길준(兪吉濬, 1856-1914) 등과 교유했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654.

069

위산 **서광범** 1859-1897

緯山 徐光範 Kenneth Suh

하산봉승지 山逢勝地 Calligraphy

1882
족자 Hanging Scroll
비단에 먹 Ink on Silk
150×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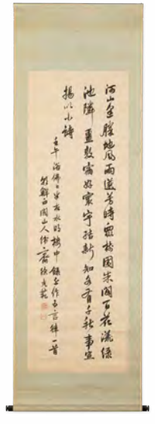
₩ 1,000,000-3,000,000

河山逢勝地 강산에서 빼어난 경치를 만나니
風雨選芳時 비바람은 꽃다운 시절을 골라 내리네
衆樹圍朱閣 울창한 나무들은 붉은 누각을 에워싸고
百花灑綠池 만발한 꽃잎들은 푸른 못 가에 신선하네
隣壘敦宿好 이웃 나라와는 오랜 친교를 두텁게 하고
寰宇結新知 온 세상과는 새로운 사귐을 맺어가네
各有千秋事 각자에게 천추에 남을 사업 있으니
宣揚以小詩 작은 시 한 편으로 널리 드러내노라
壬午浴佛日半夜, 水明樓中錄近作五言律一首 임오년(1882년) 사월 초파일 한밤중에 수명루에서 근래 지은 오언율시 1수를 적는다.
朝鮮白閣山人, 緯齋徐光範 조선 백각산인, 위재 서광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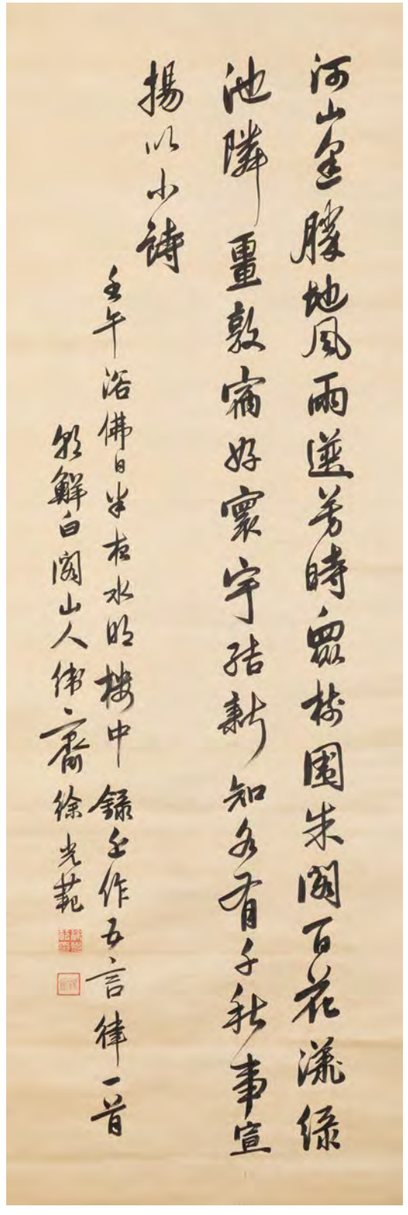
[인문] 徐光範印, 緯齋

이 작품은 승정원 가주서假注書로 있던 서광범이 1882년 무렵에 외국 사절단들과 어울리며 우호를 다지던 도중에 지어둔 오언율시를 사월초파일 밤에 쓴 것으로 보인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667.



070

백련 **지운영** 1852-1935

白蓮 池雲英 Ji UnYeong

동파선생입극도 東坡先生笠屐圖 Su Dongpo in a Hat and Clogs

1929
족자 Hanging Scroll
비단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Silk
112×49㎝

₩ 5,000,000-15,000,000





東坡先生笠屐圖 동파선생입극도

心似已灰之木 마음은 이미 재가 된 나무 같고
身如不繫之舟 몸은 묶여 있지 않은 배와 같네
問我平生功業 그대의 평생 공적과 사업이 무엇인가
黃州儋州惠州 황주, 담주, 혜주의 유배생활이라네[1)]
七十八翁, 白蓮池雲英 78세 노인, 백련 지운영

[인문] 如是我聞, 池雲英, 白蓮

1) 이 글은 송나라 소식蘇軾의 <금산의 자화상에 쓰다 [自題金山畫像]>라는 시이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187.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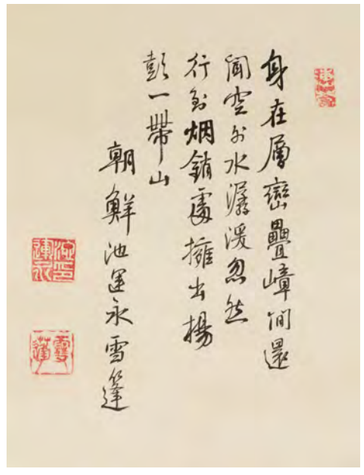
백련 **지운영** 1852-1935

白蓮 池雲英 Ji UnYeong

산수도 山水圖 Landscape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130.5×51.1㎝

₩ 5,000,000-15,000,000







身在層巒疊嶂間 몸이 겹겹이 둘러싸인 봉우리 사이에 있는데
還聞空外水潺湲 도리어 허공 너머로 물소리만 졸졸 들려오네
忽然行到烟銷處 문득 발길이 안개가 걷힌 곳에 이르니
擁出楊彭一帶山 양주 팽성 일대의 산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네
朝鮮池運永雪蓬 조선 지운영 설봉

[인문] 憲蒼, 池運永印, 雪蓬, 墨海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184.



PART 2

도자

陶磁

CERAMICS

Lot.072 - 108

072

백자철화초화문소병

白磁鐵畵草花紋小甁

White Porcelain Small Bottle with Floral Design in Underglaze Iron

高 7.8
口徑 3
底徑 4

₩ 1,500,000-3,000,000





073

백자철채육각연적

白磁鐵彩六角硯滴

White Porcelain Hexagonal Water Dropper with Iron-brown Decoration

高 3.2
5.3×5.3㎝

₩ 4,000,000-8,000,000





074

백자철화계형연적·
백자철채추형연적

白磁鐵畵鷄形硯滴·白磁鐵彩雛形硯滴

White Porcelain Chicken-shaped and Chick-shaped Water Droppers



닭_ 高 10　　병아리_ 高 5
　底徑 5.4　　底徑 6

₩ 4,000,000-8,000,000



075

백자청화철화마형도우

白磁靑畵鐵畵馬形陶偶

White Porcelain Horse Figurine in Underglaze Blue and Iron Brown

高 9
長 9.5

₩ 15,000,000-30,000,000

감상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마형도우馬形陶偶이다. 말은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 선 자세로 표현되었으며, 음각과 청화, 철화 등 다양한 장식기법이 조화롭게 사용되었다. 갸웃한 머리에는 음각으로 눈의 생김과 얼굴선을 나타내고, 눈동자는 철화로 점을 찍어 생동감을 더했다. 곧게 세운 귀에도 철화로 장식했으며, 입에 물린 재갈과 가슴 장식은 청화로 표현하였다. 안장은 별도로 만들어 붙여 입체감을 살렸고, 안장 덮개에는 격자문과 점각 장식 위에 철화점을 더해 세부를 정교하게 마무리하였다. 안정된 비례와 섬세한 표현, 다채로운 장식기법이 어우러져 도우 특유의 아기자기한 조형미가 돋보인다.



076

백자청화철화새형연적

白磁靑畵鐵畵鳥形硯滴
White Porcelain Bird-shaped Water Dropper
in Underglaze Blue and Iron Brown

高 5.3
長 10

₩ 4,000,000-8,000,000







62nd MYART A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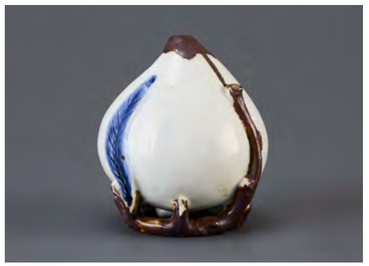
077

백자청화철화복숭아형연적

白磁靑畵鐵畵桃形硯滴
White Porcelain Peach-shaped Water Dropper in Underglaze Blue and Iron Brown

高 9.5
底徑 6

₩ 7,000,000-15,000,000





078

백자복숭아형연적

白磁桃形硯滴
White Porcelain Peach-shaped Water Dropper

高 9
底徑 6.5

₩ 8,000,000-15,000,000





079

백자청화접문육각화장기·백자청화녹문육각소병

白磁青畵蝶紋六角化粧器·白磁青畵鹿紋六角小甁
Blue and White Porcelain Hexagonal
Cosmetic Container and Small Bottle

화장기_ 高 1.5
口徑 4.5
底徑 2.8

소병_ 高 5
口徑 1.7
底徑 2.5

₩ 3,000,000-6,000,000





080

백자청화매죽문소호

白磁青畵梅竹紋小壺
Blue and White Porcelain Small Jar
with Plum and Bamboo Design

高 8
口徑 4.2
底徑 4

₩ 4,000,000-8,000,000







081

백자청화화당초문환형연적

白磁青畵花唐草紋環形硯滴
Blue and White Porcelain Ring-shaped Water Dropper with Floral Scroll Design

高 5
口徑 11.1
底徑 10.6

₩ 5,000,000-9,000,000





082

백자유병

白磁油甁
White Porcelain Bottle

高 9
口徑 2.3
底徑 6.5

₩ 5,000,000-8,000,000





083

백자잔·화형잔탁 2점

白磁盞·花形盞托二點

White Porcelain Cup and Flower-shaped Cup Stand, 2 Pieces

잔_高 5.2　　잔탁_長 15.2
口徑 7　　底徑 6.4 외
底徑 3.7 외

₩ 20,000,000-40,000,000











084

청자화형접시

青磁花形楪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高 4
口徑 9
底徑 5.5

₩ 8,000,000-15,000,000



085

청자반구병

青磁盤口甁

Celadon Bottle with Wide Mouth

高 14
口徑 8.5
底徑 5.5

₩ 25,000,000-50,000,000





<청자반구병青磁盤口甁>은 구연이 넓게 벌어지고 긴 목에서 어깨가 각지게 꺾여 내려오는 형태의 병이다. 이러한 기형은 금속기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것으로 여겨지며, 고려 전기 청자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확인된다. 특히 북송北宋 여요汝窯와 장공항요張公巷窯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반구병이 전하고 있어 당시 중국 도자와의 관련성 또한 주목된다. 본 작품은 별도의 문양 없이 기형 자체를 강조하였으며, 단정한 몸체와 은은한 비색이 어우러져 무문無紋 청자 특유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참고도판]
1. <청자반구병青磁盤口甁>, 중국 하남성문물고고연구원 소장, 장공항요 출토.
2. <청자반구병青磁盤口甁>,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아타카컬렉션 소장(00213).

086

청자상감운학문사이호

青磁象嵌雲鶴紋四耳壺

Celadon Four-lugged Jar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高 14
口徑 8.5
底徑 8

₩ 10,000,000-20,000,000

어깨 네 곳에 귀를 붙인 작은 청자호로, 단정한 기형 위에 상감문양을 치밀하게 구성하였다. 구연부 주변에는 뇌문대와 연판문대를 둘렀으며, 동체에는 운학문을 흑백상감으로 촘촘히 시문하였다. 동체 중심에는 이중원문 안에 모란문을 넣어 사방에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반복되는 문양과 구획이 안정된 질서를 이루며, 소형 기물 안에 세밀한 상감기법과 정제된 장식미가 응축되어 있다. 고려 상감청자의 섬세한 문양 구성과 균형감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087

분청사기인화국화문대접

粉青沙器印花菊花紋大楪

Buncheong Bowl with Stamped Chrysanthemum Design

高 9.3
口徑 18.2
底徑 5

₩ 2,000,000-4,000,000





088

분청사기철화당초문호

粉青沙器鐵畵唐草紋壺

Buncheong Jar with Iron-painted Scroll Design

高 12
口徑 10
底徑 6

₩ 4,000,000-8,000,000





089

분청사기철화당초문병

粉青沙器鐵畵唐草紋甁

Buncheong Bottle with Iron-painted Scroll Design

高 21
口徑 5.6
底徑 6.3

₩ 8,000,000-15,000,000





090

백자호

白磁壺

White Porcelain Jar

高 31.5
口徑 13.5
底徑 13

₩ 50,000,000-100,000,000













091

백자철화운룡문호

白磁鐵畵雲龍紋壺

White Porcelain Jar with Dragon Design in Underglaze Iron



高 31.2
口徑 18.4
底徑 14.9

₩ 80,000,000-160,000,000

견부에서 크게 벌어진 동체가 저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백자호이다. 풍만한 동체에는 몸을 길게 휘감은 용을 철화로 그렸으며,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운문을 배치하였다. 용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앙 다문 모습으로, 길게 뻗은 뿔과 휘날리는 수염, 굽이치는 몸체가 역동적인 인상을 준다. 얼굴은 눈과 코, 이빨 등의 특징을 강조하여 묘사하였으며, 몸체의 비늘은 철화의 농담을 달리한 점과 선을 반복하여 표현하였다. 동체에는 용과 구름을 자유롭게 배치하였으며, 선의 굵기와 농담에 변화를 주어 문양을 표현하였다. 철화 특유의 자연스러운 필선과 소박하면서도 활달한 표현이 돋보인다.







092

백자철화운룡문호

白磁鐵畵雲龍紋壺

White Porcelain Jar with Dragon Design in Underglaze Iron

高 34
口徑 16.5
底徑 15.7

₩ 90,000,000-180,000,000

짧고 두터운 구연 아래로 어깨가 둥글게 벌어지며, 동체 하단에서 좁아져 굽으로 이어지는 백자호이다. 동체 상부에는 한 마리의 용이 항아리의 둘레를 따라 길게 이어지도록 그려져 있으며, 곳곳에 구름을 배치하였다. 용의 얼굴은 둥글게 돌출된 눈과 길게 내민 주둥이, 여러 방향으로 뻗은 수염이 어우러져 익살스러운 인상을 준다. 몸통은 크게 굽이치며 이어지고, 비늘은 짙은 철화의 점과 반원형 선을 빠르게 반복하여 표현했다. 문양은 동체의 상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넓은 여백을 남겨 장식의 밀도에 차이를 두었다. 특히 과장된 얼굴의 묘사와 기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용의 모습은 정형화된 표현에서 벗어난 독특한 조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093

백자청화동화운룡문호

白磁靑畵銅畵雲龍紋壺

White Porcelain Jar with Dragon Design in Underglaze Blue and Copper Red

高 35
口徑 13.2
底徑 14

₩ 10,000,000-20,000,000





구연이 짧게 직립하고 견부에서 풍만하게 벌어졌다가 저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백자호이다. 구연부에는 선문과 간략화된 운문을, 견부에는 여의두문을 둘렀으며, 동체에는 두 마리의 용이 구름 사이를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부리부리한 눈과 크게 벌어진 입, 휘날리는 수염과 역동적으로 굽이치는 몸체가 용의 생동감을 강조한다. 비늘은 청화의 농담을 달리하여 세밀하게 묘사하였으며, 눈동자와 뿔에 동화의 붉은빛을 더해 장식적 효과를 높였다.

조선시대 운룡문 백자는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기물로, 왕실의 연향과 제례에서 술을 담는 주준酒樽이나 꽃을 꽂는 화준花樽 등으로 사용되었다. 용문은 왕권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으로, 운룡문 백자의 의례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본 작품은 동체를 휘감는 두 마리 용의 역동적인 표현과 청화·동화의 색채 대비가 어우러져 풍부한 장식미를 드러낸다.









094

백자청화운룡문병

白磁靑畵雲龍紋甁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with Dragon Design

高 31.3
口徑 7
底徑 13.5

₩ 15,000,000-30,000,000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목이 길게 뻗어 있으며, 완만하게 벌어져 둥근 동체를 이루는 백자병이다. 긴 경부에는 별다른 장식을 두르지 않고, 동체 전체에 구름 사이를 유영하는 용의 모습을 청화로 표현하였다. 용은 몸체를 크게 휘감으며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세밀하게 묘사된 비늘과 힘 있게 뻗은 발톱이 생동감을 더한다.

길게 뻗은 경부의 여백과 동체를 가득 채운 운룡문의 구성이 대비를 이루며, 청화의 짙고 옅은 발색과 자유로운 필치가 어우러져 회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기면의 곡면을 따라 펼쳐지는 용의 움직임은 기형과 문양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095

백자청화운룡문병

白磁青畵雲龍紋甁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with Dragon Design

高 20
口徑 5.5
底徑 8.5

₩ 3,000,000-10,000,000





096

백자청화모란문병

白磁青畵牡丹紋甁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with Peony Design

高 24.5
口徑 3.5
底徑 10.7

₩ 8,000,000-15,000,000





097

분청사기철화초화문병

粉青沙器鐵畵草花紋甁

Buncheong Bottle with Iron-painted Floral Design

高 26
口徑 6.5
底徑 7.5

₩ 14,000,000-25,000,000







098

백자철화초문호

白磁鐵畵草紋壺

White Porcelain Jar with Grass Design in Underglaze Iron

高 19.5
口徑 13.5
底徑 9

₩ 10,000,000-20,000,000









099

백자청화산수주름문연적

白磁靑畵山水皺紋硯滴

Blue and White Porcelain Water Dropper with Landscape Design

高 6
8.4×7.6㎝



₩ 20,000,000-40,000,000

반듯한 사각형의 몸체에 윗면을 평평하게 만들고, 측면에는 세로 방향의 주름문을 촘촘하게 장식한 백자연적이다. 윗면에는 청화로 산수문을 그렸으며, 중앙에 주입구를 뚫고 한쪽 가장자리에 작은 출수구를 마련하였다. 화면 상단에는 둥근 해를 에워싼 구름을 배치하고, 그 아래로 멀리 이어지는 산봉우리를 묘사하였다. 전경에는 수면 위에 떠 있는 배와 나무, 바위 등을 표현하였으며, 짧은 선으로 물결을 나타내었다. 원경의 산세는 옅은 청화로 처리하고 가까운 경물은 짙게 표현하여 화면에 깊이감을 더하였다. 측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세로 골을 내어 주름이 연속되는 형태를 만들었으며, 굴곡에 따라 생기는 음영이 단조로운 사각 기형에 입체감을 부여한다. 윗면의 회화적인 산수문과 측면의 정연한 주름문이 대비를 이루며, 장식과 조형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100

백자청화복숭아주름문호

白磁靑畵桃皺紋壺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with Peach Design

高 18.5
口徑 10
底徑 11

₩ 15,000,000-30,000,000







101

백자청화모란문호

白磁靑畵牡丹紋壺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with Peony Design

高 29
口徑 12.4
底徑 15

₩ 15,000,000-30,000,000















102

백자청화수복문'임ᄌᆞ큰뎐고간ᄉᆞ듁'명발

白磁靑畵壽福紋'壬子큰뎐고간ᄉᆞ듁'銘鉢

Blue and White Porcelain Bowl with Longevity and Fortune Design and Inscription

1852
高 15.7
口徑 26
底徑 14.5

₩ 30,000,000-70,000,000

유백색의 기면에 푸른 청화로 수복문壽福紋을 장식한 대형 백자발이다. 외면에는 이중의 선문을 두르고 그 아래에 수壽자와 복福자를 사방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였으며, 내저면에는 이중 원권 안에 단정한 필치로 수壽자를 시문하였다.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굽 바닥 가장자리에 점각으로 새겨진 한글 명문이다. '임ᄌᆞ큰뎐고간ᄉᆞ듁'이라는 명문에서 '임ᄌᆞ'는 임자년壬子年, 즉 1852년을 가리키며, '큰뎐고간'은 대전大殿의 곳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ᄉᆞ듁'은 4죽을 뜻하며, 죽竹은 그릇을 10벌씩 묶어 세는 단위이다. 조선 후기 한글 점각 명문은 반상기와 호, 병 등 일상용 기물에서 주로 확인되며, 이 시기에는 사용처와 제작 목적, 연대, 수량, 크기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표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본 작품의 명문 역시 제작 연대와 사용처, 수량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당시 백자 기물의 제작과 관리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1. 곽희원, 「朝鮮後期 王室磁器의 銘文과 意味」,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5.
2. 박정민, 「조선시대 소비 유적 출토 명문 백자의 연구 양상과 활용 가치」, 『동양미술사학』22, 동양미술사학회, 2026.



임ᄌᆞ큰뎐고간ᄉᆞ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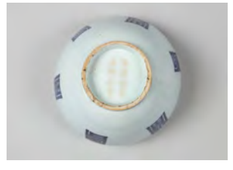














[참고도판]
<백자청화 '임자큰뎐'명 수복문 대접白磁靑畵'壬子큰뎐'銘壽福文大楪>, 高 11.6, 口徑 19.1, 底徑 8.9,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소장(구입 10202).



103

백자청화그물문잔·잔탁

白磁靑畵漁網紋盞·盞托

Blue and White Porcelain Cup and Saucer with Chain Design

잔_高 5
口徑 8.6
底徑 4.3

잔탁_高 2.5
口徑 11.7
底徑 6

₩ 2,000,000-4,000,000

잔은 구연이 완만하게 벌어지는 형태이며 잔탁은 넓고 얕은 접시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잔의 외면과 잔탁의 내면에는 청화로 그물문을 반복하여 장식하였다. 그물문은 작은 고리들이 서로 연결되는 형태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는 문양이 기면 전체에 펼쳐져 있다. 잔의 구연 아래와 동체 하단, 잔탁의 가장자리에는 선을 둘러 문양의 범위를 구획하였다. 잔의 내저면과 잔탁 중앙에는 각각 원형의 구획 안에 도안화된 '수壽'자문을 배치하였다. 백색의 바탕 위에 청화의 가는 선으로 표현한 그물문이 정연하고 섬세한 인상을 준다.







104

백자유병

白磁油甁

White Porcelain Oil Bottle

高 8.5
口徑 1.8
底徑 5.5

₩ 3,000,000-6,000,000





105

백자타구

白磁唾具

White Porcelain Spittoon

高 11.7
口徑 9.5
底徑 8

₩ 3,000,000-6,000,000





106

백자양이잔

白磁兩耳盞

White Porcelain Two-handled Cup

高 4.5
口徑 8
底徑 3.5

₩ 2,000,000-4,000,000





107

백자명기 14점 일괄

白磁明器十四點一括

A Set of 14 White Porcelain Funerary Vessels

高 4
口徑 2.5
底徑 2.5 외

₩ 2,500,000-5,000,000





명기明器는 상례를 위해 제작된 기물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릇이라기보다 사후 세계를 위해 마련된 부장품의 성격을 지닌다. 형태는 당시의 실용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대체로 크기를 작게 만들어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사대부층을 중심으로 16세기에 널리 제작되었으며, 17세기 초 이후에는 점차 그 예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본 작품은 병과 호를 비롯해 여러 형태의 완과 받침이 함께 남아 있어, 조선 중기 상장례에 사용된 명기의 다양한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108

백자녹유장생문병

白磁綠釉長生紋甁

White Porcelain Bottle with Green Glaze and Longevity Design

高 29.1
口徑 6.1
底徑 12



₩ 8,000,000-20,000,000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경부가 어깨에서 넓게 벌어져 풍만한 동체로 이어지는 병이다. 기면 전체에 녹유를 입혔으며, 견부와 동체에는 사슴과 학, 대나무, 구름, 바위 등 장수를 상징하는 다양한 소재를 양각으로 장식하였다. 동체에는 나무 아래에 서 있는 사슴과 두 마리의 학을 중심으로 주변의 경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문양의 높낮이에 따라 녹유의 농담이 달리 나타나 입체감이 강조되며, 황록색과 짙은 녹색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색감을 이룬다. 녹유의 독특한 발색과 입체적인 양각 장식이 어우러진 보기 드문 작품이다.





PART 3

공예

工藝

CRAFTS

Lot.109 - 128

109

표주박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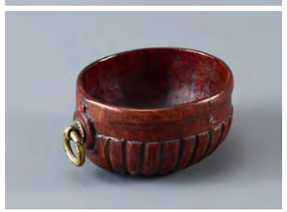
瓢箪三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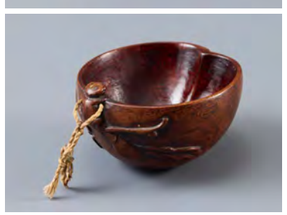
Gourd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高 4
長 7.5 외

₩ 2,000,000-4,000,000









110

석제과형연적

石製瓜形硯滴

Stone Melon-shaped Water Dropper

돌에 조각 Carved Stone
高 4
徑 8

₩ 3,000,000-6,000,000





111

고사인물문벼루·벼루함

故事人物紋硯·硯函
Inkstone and Case

돌에 조각 Carved Stone
硯_高 3　　硯函_高 6
30.5×20㎝　　33.5×23.5㎝

₩ 4,000,000-8,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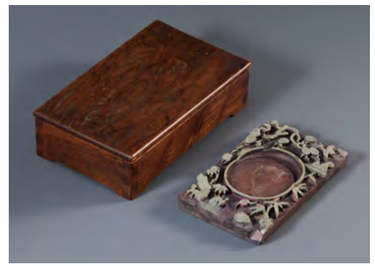
112

장생문벼루·벼루함

長生紋硯·硯函
Inkstone and Case

돌에 조각 Carved Stone
硯_高 1.5　　硯函_高 6.5
17×10.5㎝　　22.5×13.5㎝

₩ 800,000-1,500,000





113

구족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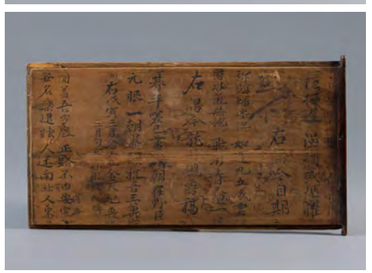
狗足硯床

Inkstone Table

나무에 금속장식 Wood with Metal Fittings
高 17.2
18×32.8㎝

₩ 5,000,000-10,000,000







114

지승만자문삼형제필통

紙繩卍字紋三兄弟筆筒

Set of Three Paper-cord Brush Holders with Swastika Design

종이에 투각 장식 Paper with Openwork Decoration
高 12.3

₩ 5,000,000-10,000,000







115

수파어학문삼형제필통

水波魚鶴紋三兄弟筆筒

Set of Three Brush Holders with Wave, Fish and Crane Design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高 14.4

₩ 25,000,000-40,000,000

높이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원통을 결합하고 몸체 전면에 파도와 물고기, 학을 조각하여 장식한 삼형제필통이다. 각 원통은 상단과 하단에 두꺼운 테두리를 두어 안정감 있게 마감하였으며, 서로 다른 높이의 원통이 조화를 이루어 입체적인 조형미를 드러낸다.

이 작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몸체 전체를 빈틈없이 채운 수파문水波紋의 정교한 조각이다. 반원형의 물결을 여러 겹으로 중첩하여 율동적인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그 사이로 크고 작은 물고기와 날개를 펼친 학, 바위와 산봉우리 형태의 문양을 배치하였다. 특히 물고기의 눈과 비늘, 지느러미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물결 위를 가로지르는 학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단순한 반복 문양을 넘어 하나의 장식적인 자연 경관을 형성하였다. 깊게 파낸 음각과 도드라진 조각면의 명암 대비 역시 문양의 입체감과 장식적 효과를 한층 강조한다.

이러한 문양 구성은 조선 후기 회화와 도자공예에서 유행한 어해문魚蟹紋 및 수파문의 전통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청화파어수금문병白磁青畵波魚水禽文甁>은 부채꼴의 수파문을 바탕으로 물고기와 물새 등 다양한 생물을 묘사하고 있어 본 작품과 비교할 만하다. 또한 조선 후기 어해도와 민화에서도 물고기는 풍요와 다산, 입신양명을 기원하는 소재로 널리 활용되었다. 본 작품 역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물고기에 장수와 고결함을 의미하는 학을 결합함으로써 길상적 의미를 담아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 필통은 서양화가이자 고미술 수장가였던 권옥연(權玉淵, 1923–2011)의 구장품으로 전한다. 권옥연은 한국 전통 목공예와 고가구의 조형미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그의 소장품은 2012년《조선목기, 그 아름다움—권옥연 화백 구장품》전시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다.

본 작품은 문방구의 실용적인 기능에 정교한 조각과 길상적 도상을 결합한 공예품으로, 세 개의 원통이 만들어 내는 균형 잡힌 구성과 몸체 전면에 펼쳐진 화려한 수파어학문의 표현에서 조선시대 목공예 특유의 장식미와 조형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참고도판]
1. <백자청화파어수금문병>, 高 27.3, 口徑 4.6, 底徑 12.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동원516).
2. <어해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31241).









116

고비

藁備
Wall-mounted Document Holder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高 11
55.5×23.6㎝

₩ 3,000,000-5,000,000



[참고도판]
<고비>, 長_2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건희4734).





117

혼서지·유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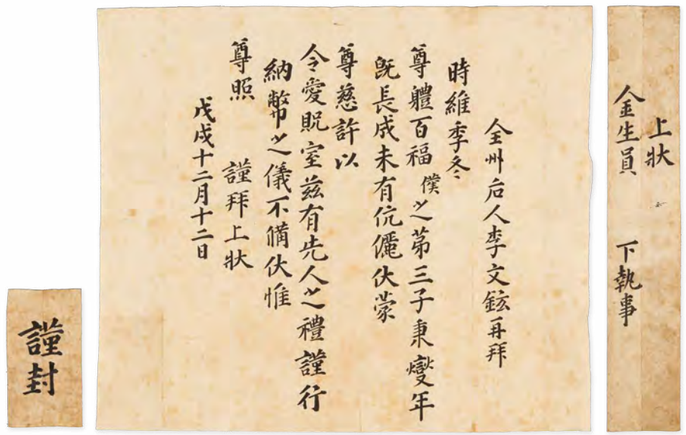
婚書紙·諭書筒

Marriage Letter and Royal Edict Case

1898
나무에 금속장식 Wood with Metal Fittings
長 52.5
8×8㎝

₩ 4,000,000-8,000,000





金生員 下執事 김생원 하집사께
上狀 편지 올림
謹封 근봉

全州后人李文鉉再拜
時維季冬, 尊體百福. 僕之第三子秉燮, 年既長成, 未有伉儷. 伏蒙尊慈, 許以令愛貺室. 茲有先人之禮, 謹行納幣之儀, 不備. 伏惟尊照, 謹拜上狀.
戊戌十二月十二日.

전주후인 이문현이 두 번 절합니다.
때는 늦겨울인데 존형의 체후가 두루 복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셋째 아들 병섭이 이미 장성한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배우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존형의 자애로우신 은혜로 영애를 아내로 주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조상 때부터 행해온 예가 있어서 삼가 납폐의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존형께서 살펴주시기 바라며 삼가 편지 올립니다.
무술년(1898) 12월 12일.

이문현(李文鉉, 1843-?)이 아들 이병섭(李秉燮, ?-?)을 장가보내면서 납폐納幣, 즉 신부집에 예물을 보낼 때 작성한 혼서지이다. 이문현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무景武이다. 1859년 증광시 음양과에 합격하였고, 장흥 봉사長興庫奉事, 금부 도사, 안산 군수安山郡守, 맹산 현감孟山縣監, 삭녕 군수朔寧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118

투각당초수자문주칠상

透刻唐草壽字紋朱漆床
Red-lacquered Table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高 26
28.5×56㎝

₩ 5,000,000-10,000,000





119

나전포도문상 2점

螺鈿葡萄紋床二點

Two Mother-of-pearl Inlaid Tables with Grape Design

나무에 나전장식, 흑칠, 주칠 Wood with Mother-of-Pearl Inlay, Black Lacquer and Red Lacquer
각 高 32.2
35×90.5㎝

₩ 50,000,000-100,000,000













120

동자상

童子像
Figure of a Boy

나무에 조각 채색 Carved and Painted Wood
高 47

₩ 10,000,000-20,000,000

본 작품은 양쪽 머리를 둥글게 틀어 올린 쌍계雙髻의 동자가 두 손으로 원형 지물을 받쳐 들고 서 있는 목조상이다. 둥글고 통통한 얼굴에 가늘게 표현한 눈과 작은 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입을 조각하여 어린아이 특유의 천진하고 온화한 인상을 나타내었다. 몸에는 소매가 넓고 아래로 길게 내려오는 포袍를 착용하였으며, 양팔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지물을 공손히 받쳐 든 자세에서 단정하고 안정적인 조형미가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표현을 절제하고 간결한 선과 넓은 면으로 형태를 구성하였으며, 얼굴과 의복 등에 남아 있는 채색 흔적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동자상은 동아시아의 불교와 도교, 민간신앙에서 신성한 존재를 시중들거나 공양하는 모습으로 널리 제작되었다. 불교에서는 부처와 보살을 보좌하는 선재동자와 명부전의 시왕을 시중드는 선악동자 등이 대표적이며, 도교에서도 신선과 여러 신격을 보좌하는 금동옥녀金童玉女 등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대체로 양쪽 머리를 묶어 올린 쌍계형의 머리 모양과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손에 다양한 지물을 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작품 역시 이러한 조형적 전통과 상통하며, 특히 둥근 얼굴과 간결한 복식 표현, 지물을 가슴 앞에 받쳐 든 자세는 조선시대의 목조동자상을 비롯한 중국 명·청대의 불교 및 민간신앙 계통 동자상과도 비교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자가 두 손으로 받쳐 든 원형 지물이다. 지물의 정면에는 검은색과 붉은색 안료로 표현된 태극문으로 보이는 문양이 남아 있다. 태극은 음양의 조화와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상징하는 도상으로, 중국의 도교 사상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성리학과 불교미술, 민간신앙 등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서 활용되었다. 따라서 본 작품의 지물은 음양의 조화와 길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불교와 도교 및 민간신앙의 도상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동아시아 종교미술의 특징과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본 작품은 오랜 세월에 걸친 채색의 박락과 목재의 균열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얼굴과 단정한 자세, 지물을 받쳐 든 양손 등 주요 조형 요소가 남아 있다. 특히 태극문으로 추정되는 원형 지물을 지닌 점은 일반적인 동자상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동아시아 목조동자상의 다양한 도상과 신앙적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121

팔각소반

八角小盤

Octagonal Tray-table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高 15.5
27.5×27.5㎝

₩ 1,000,000-2,000,000





122

투각장생문목침 2점

透刻長生紋木枕二點

Two Openworked Wooden Pillows with Longevity Design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高 8.2
13×24㎝ 외

₩ 5,000,000-15,000,000



123

가마

轎子

Palanquin

나무에 조각 채색 Carved and Painted Wood
高 106.7
98×83㎝

₩ 10,000,000-20,000,000

본 작품은 한 사람이 안에 타고 네 사람이 들던 사인교四人轎이며, 상부의 둥근 아치형 지붕 아래에는 붉은색 벨벳 천과 다채로운 색상의 실 술 장식이 둘러져 있어 가마의 화려한 품격을 드러낸다. 몸체 측면에는 미닫이 형태의 창호를 배치하여 실용적인 통풍 구조와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였으며, 하단 양옆에는 네 사람이 가마채를 끼워 멜 수 있는 사각형 구멍이 대칭으로 뚫려 있다. 몸체 정면 및 각 면은 사각형 프레임으로 정교하게 분할되어 있으며,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어지며 양각·음각의 조각 기법과 주황·황색 계열의 다채로운 채색 기법이 다층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외곽 기둥과 테두리 부분에는 금속 장석과 채색 장식을 더해 세부를 견고하게 마무리하였다. 네 사람이 메는 사인교의 실용적 구조 위에 목조각의 정교함, 화사한 채색, 그리고 섬유 및 금속 장식이 어우러져 전통 의례 공예품 특유의 조형미가 돋보인다.





[참고도판]
1. <신부가마>, 119.4×89×106㎝, 영남대학교박물관소장(소장11383).
2. <사인교(四人轎)>, 117×88×104㎝, 국립민속박물관소장(민속040397).







124

나전수렵문상

螺鈿狩獵紋床

Mother-of-Pearl Inlaid Table with Hunting Scenes

1938
나무에 나전장식 Wood with Mother-of-Pearl Inlay
床_高 26　　箱_高 18
32.3×74.5㎝　79×35.5㎝

₩ 3,000,000-6,000,000

時局對策調査會記念 시국대책조사회 기념
昭和十三年九月 쇼와 13년(1938) 9월.
朝鮮總督府 조선총독부

1938년 9월에 시국대책조사회時局對策調査會 발족을 기념하여 만든 상이다. 시국대책조사회는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8년 7월 7일, 조선총독부 주도로 조선인 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강제 동원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한 대표적인 친일 총동원 관변단체이다. 윤치호(尹致昊, 1865-1945), 박영효(朴泳孝, 1861-1939), 한상룡(韓相龍, 1880-1947), 최린(崔麟, 1878-1958), 김활란(金活蘭, 1899-1970) 등 당시 조선 사회의 영향력 있는 상류층, 언론인, 종교인, 관료 출신 친일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상 바닥면]



125

은제칠보수문다기세트

銀製七寶壽紋茶器一括

A Set of Silver and Enamel Teaware with Longevity Design

은, 칠보장식 Silver with Cloisonné Enamel
高 10.8
口徑 5.8
底徑 7 외

₩ 4,000,000-8,000,000

본 작품은 은으로 형태를 잡고 청록색 칠보 유약을 입혀 완성한 다기 세트이다. 주전자와 찻잔, 잔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짧은 세로 결 패턴을 새긴 후 투명한 유약을 얹어 구워냄으로써, 고유의 빛깔과 질감을 살렸다. 주전자 몸통과 찻잔 중앙에는 원형 테두리 안에 장수를 기원하는 '수壽' 자 문양을 새겨 넣었고, 주전자 뚜껑 측면과 어깨, 잔 받침 외곽 테두리를 따라서는 기쁨과 행복이 겹친다는 뜻의 '희囍' 자 문양이 연속 띠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주전자 바닥에는 이화문李花紋과 함께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굳은 절개와 지조를 지킨 상商의 백이(伯夷, ?-?)·숙제(叔齊,?-?)의 맑고 높은 기풍을 뜻하는 '고죽청풍孤竹淸風'이라는 명문銘文이 음각되어 있다.







126

동제도철문제량유

銅製饕餮紋提梁卣

Copper-Alloy You Vessel with Taotie Design

동 Copper Alloy
高 34
口徑 12.5
底徑 14.5

₩ 15,000,000-30,000,000



본 작품은 손잡이가 달린 술통인 제량유提梁卣 형태이며, 중국 상商의 청동기 양식을 본떠 제작되었다. 용기 동체에는 뇌문雷紋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잡아먹는다고 알려진 신화 속 동물인 도철문饕餮紋이 새겨져 있다. 인간에게 탐욕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전하는 도철은, 고대에 재물을 바쳐 재앙을 막고 세상을 평온하게 하고자 했던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 작품의 위엄을 더한다. 개蓋 안쪽에는 이화문李花紋이 새겨져 있다.



[참고도판]
<소유召卣>, 高 29.8, 口徑 17.2,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소장.





子作祖乙寶尊彝 자손이 조을을 위하여 귀중한 제기를 만드노라.



127

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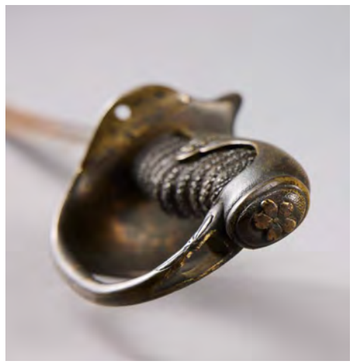
禮刀
Ceremonial Sword

나무에 금속장식 Wood with Metal Fittings
長 76.5

₩ 20,000,000-40,000,000

본 작품은 양쪽으로 날을 세운 형태의 끝이 뾰족한 형태이며, 손잡이는 이화문李花紋을 양각한 금속을 씌워 장식했다. 측면에는 손잡이를 주조하고 끝부분을 구름형으로 말아 올렸고 그 옆으로는 반달형 경첩을 달아 칼집과 칼자루를 열고 잠글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칼집은 나무를 깎아 만들고 상단과 하단에는 금속 장식으로 마감하였으며, 하단부에는 2개의 환형 고리를 달았다.

[참고문헌]
이석재, 「조선시대 도검변천사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문화유산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24.





[참고도판]
<예도>, 長 77,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장(구입292).



128

예도

禮刀
Ceremonial Sword

나무에 금속장식 Wood with Metal Fittings
長 95.5

₩ 10,000,000-20,000,000

본 작품은 칼과 칼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쪽에만 날을 세우고 끝이 뾰족한 군도軍刀의 하나이다. 날이 등쪽으로 약간 휜 형태이며, 손잡이는 이화문李花紋을 양각한 금속을 씌워 장식했다. 측면에는 손잡이를 주조하고 끝부분을 구름형으로 말아 올렸다. 칼집은 칼집 하단부에는 환형 고리 1개를 달았다.





[참고도판]
<예도>, 長 82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28991).



응찰등록신청서
BIDDING APPLICATION FORM

응찰방법 Bidding Method	☐ 현장 응찰 Open Bidding	☐ 서면 응찰 Bidding in Writing	
	☐ 전화 응찰 Telephone Bidding	☐ 비공개 응찰 Confidential Absentee Bidding	
소 속 Company			
성 명 Name		*Membership No.*	
생년월일 Birth of Date		M | F	
주 소 Address			

경매회차 Auction Round	제 회 / 20 . .
접 수 일 Date of Receipt	20 . .
응찰전화번호 Bid Phone Number	
연 락 처 Direct Number	
이 메 일 E-mail Address	

No.	Lot No.	작가명 Artist	작품명 Title	응찰가격 Bid Price
1				
2				
3				
4				
5				
6				
7				

낙찰수수료 불포함 Buyer's Premium is not included

NOTICE

1. 상기 경매 물품에 대하여 기재한 응찰가격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마이아트옥션이 응찰하는 것을 위임하며, 경매 참여에 대하여 ㈜마이아트옥션 경매 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임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2. 공개(현장)응찰 또는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의 응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면, 공개(현장), 전화 응찰자 순위로 낙찰에 대한 우선권이 있고, 서면응찰이 동일한 가격으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 응찰등록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분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3. 비공개 응찰은 경매일에 공개되므로 응찰자는 입찰 자격을 부여받은 후 입찰금액을 직접 작성하여 봉인 상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시가 된 해당 물품은 입찰 방식으로만 응찰하며 동일한 금액으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응찰 등록번호 순위로 낙찰에 대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4. 경매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낙찰을 부득이하게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경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마이아트옥션이 서면 및 낙찰철회비용을 수령하는 즉시 경매는 취소됩니다. 위약금과 별도로, 낙찰철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는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I delegate the bidding of the MYART Auction on behalf of myself to the bidding price described in the auction Lot. I agree that the auction participation is subject to the MYART Auction terms.
2. If the bidding price is all the same by open (saleroom) bidding or writing and telephone bidding, there is a priority of winning bidding in the order of writing, open (saleroom), and telephone. If the bidding in writing competes at the same price, the person who first applied for the bidding registration has a priority.
3. Since the confidential absentee bidding is disclosed on the auction date, the bidder must submit the bidding price directly after being granted the qualification for the bidding and submit it in a sealed state. ◆marked Lot is bid only by the bidding method. If it competes with the same price, there is a priority for the winning bid by the bidding registration number.
4. Not with stan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uction, if the successful bidder inevitably withdraws the winning bid, the auction shall be made clear in absentee within 7 days from the auction date. Need to pay 30% of the hammer price for the penalty. Apart from the penalty, if the withdrawal of the winning bid causes damage, we can claim damages to the successful bidder. The auction will be canceled once the MYART Auction receives the absentee and winning withdrawal fee.

상기 응찰자 본인은 응찰 및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잘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 없이 동의함과 동시에 위탁 계약서에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I, the bidder, listened to and understood the bidding and related terms from MYART Auction without objec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bidder will keep one copy of the Agreement each after signing the contract.

Date 20

신청인 Name 서명 Signature

접수자 Receptionist

MAINSTAY ART AUCTION
03146 B1/ 5F/ 6F, Chunghun Bldg. 62-5, Insadong-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02-735-1110 F.02-737-5527 http://www.myartauction.com myart@myartauction.com

회원가입 신청서
MEMBERSHIP APPLICATION

회 원 Member	☐ 정회원 VIP Member	☐ 준회원 Regular Member	
성 명 Name			
생년월일 Birth of Date	M | F		
주 소 Address			
관심분야 Interest	☐ 고화 Korean Traditional Art ☐ 고서 ☐ 도자기 Ceramic ☐ 민예품 Folk Art ☐ 근현대 미술 Modern & Contemporary Art ☐ 해외 미술 Foreign Art ☐ 기타 ( ) Other		
정보수신 Receive Information	☐ 문자메세지(SMS) ☐ E-mail ☐ ( ) ☐ ( ) ☐ 수신거부 Unsubsribe		

소 속 Company	
연 락 처 Direct Number	
이 메 일 E-mail Address	

MAINSTAY ART AUCTION

마이아트옥션 회원가입 3가지 방법 MYART Auction membership three ways

01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www.myartauction.com]
Register through online at MYART website [www.myartauction.com]

02 회원가입 신청서를 절취 팩스로 접수 [F.02-373-5527]
Apply membership application form by stealing fax [F.02-373-5527]

03 당사 또는 프리뷰 전시장에서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Register at our company or at the preview showroom

국내 거주
연 회 비 KRW 100,000
은 행 명 농협은행
계좌번호 317-0009-8112-11
예 금 주 (주)마이아트옥션

OVERSEA RESIDENCE
Annual Fee KRW 200,000
Name of Bank NONGHYUP BANK
Account Number 452 0016 6793 01
Account Name MYART AUCTION
Swift Code NACFKRSE

*계좌 입금 후 마이아트옥션으로 연락 바랍니다.

정회원 VIP Member

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를 마치면 경매 도록과 함께 각종 정보를 제공 받게 되고 경매에 자유롭게 응찰하실 수 있으며, 수장고 이용료 및 감정수수료의 10% 할인 혜택도 부여됩니다.

Registering for membership and paying the annual fee will allow you to bid without limitation and get the auction's catalog with various information.

준회원 Regular Member

회원 가입을 마치면 경매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마이아트옥션 서비스의 이용 정도에 따라 경매 도록까지 제공 받으실 수 있으나, 경매 응찰은 제한됩니다.

Registering for membership and paying the annual fee will get various information and the auction's catalog depending on your service use. However, you will get a limitation on bidding.

☐ 마이아트 옥션의 경매약관을 정확히 읽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I clearly read MYART Auction's terms and conditions.

☐ 마이아트 옥션의 경매약관에 동의합니다.
I agree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MYART Auction.

Date 20

신청인 Name 서명 Signature

접수자 Receptionist

MAINSTAY ART AUCTION
03146 B1/ 5F/ 6F, Chunghun Bldg. 62-5, Insadong-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02-735-1110 F.02-737-5527 http://www.myartauction.com myart@myartauction.com

주식회사 MYART AUCTION 경매약관

본 약관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아트옥션 오프라인 경매 및 매매계약은 아래 내용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경매 또는 계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본 약관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목적

본 경매 약관과 관련하여 경매도록 등에 포함된 유의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마이아트옥션(이하 "마이아트옥션"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경매의 절차와 제반기준 및 관련자들의 권리·의무 단, 마이아트옥션과 위탁자간의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탁계약서에서 규율한다.

2 정의

2.1 "경매"라 함은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옥션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경매를 의미한다.
2.2 "물품"이라 함은 경매 및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물품, 미술품, 창작물 등과 이용권, 교환권 등의 권리를 의미하고 "경매물품"이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경매에 출품되거나 경매 전 또는 후 세일, 상설 판매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한다.
2.3 "경매도록"이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경매와 관련하여, 마이아트옥션이 발간하는, 마이아트옥션 경매에서 경매될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설명과 정보가 실린 도록(전자도록 포함)을 의미한다. "경매도록 등"이라 함은, 경매도록 및 해당 경매와 관련하여 마이아트옥션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리스트북, 브로셔, 컨디션리포트, 제안서, 리서치자료, 경매장의 스크린, 홍보물, 광고물, 인쇄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의미한다.
2.4 "경매일"이라 함은, 경매물품이 경매에 부쳐지는 일자를 의미한다.
2.5 "경매기간"이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경매가 실시되는 일자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
2.6 "응찰자"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경매에 응찰하기 위하여 마이아트옥션에 응찰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마이아트옥션이 그 신청을 접수했거나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수령한 사람을 의미한다.
2.7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력일을 말한다.
2.8 "낙찰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사에 의해 최고가 응찰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2.9 "낙찰철회비"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낙찰 받기를 포기함으로써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10 "낙찰자비용"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대리인이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라 경매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환전수수료, 보관료, 포장, 인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세금, 경비,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서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11 "구매수수료"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2.12 "위탁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마이아트옥션 경매 시작일 이전에 경매물품을 마이아트옥션 경매에 출품하기 위하여 마이아트옥션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탁한 사람을 의미한다.
2.13 "추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판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이아트옥션에게 위임된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추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2.14 "시작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판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이아트옥션과 경매사에게 위임된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경매 시작 가격을 의미한다.
2.15 "낙찰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가격으로서,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리고 최고가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확정된 최고 응찰가를 의미한다.
2.16 "구매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에 구매수수료를 합한 가격을 의미한다.
2.17 "내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만약 위탁자가 매도인인 경우) 위 경매 물품의 매도인과 마이아트옥션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또는 (만약 마이아트옥션이 매도인인 경우) 마이아트옥션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최저매도가격을 의미한다.
2.18 "매도인"이라 함은, 경매 등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마이아트옥션 또는 위탁자를 의미한다.
2.19 "계열회사"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자회사 또는 마이아트옥션에 의해 지배되거나 마이아트옥션과 같은 지배 하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3 대리인 또는 매도인으로서의 마이아트옥션

마이아트옥션이 매도인인 경매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가 위탁한 경매물품을 경매함에 있어 마이아트옥션은 위탁자(즉,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 경매물품의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낙찰자 간에 성립한다.

4 전시회

4.1 마이아트옥션은 경매에 출품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본 전시회는 공중에 개방되고 무료이다. 단,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전시회에의 입장 이전에 전시회 입장을 희망하는 자에게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4.2 마이아트옥션은 마이아트옥션의 홈페이지 또는 경매도록 등에 전시회의 장소, 일시 및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이아트옥션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그리고 사전 공지 없이,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회의 장소, 일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관련 전시회에 전시된 경매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5 응찰 등록

관련 경매기간의 시작일 이전에 마이아트옥션과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상, 경매에 처음 응찰하는 응찰 희망자를 포함한 응찰 희망자는 관련 경매도록 등에 따라 위 경매도록 등에 명시된 해당 응찰등록신청서와 이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및 마이아트옥션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기타 보충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응찰 등록을 한다. 응찰 희망자의 경매 참가 등록과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 신청은 관련 경매도록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시된다. 마이아트옥션은 경매 참가 등록과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등록 또는 신청의 불시행, 지연 또는 위 등록 또는 신청과 관련한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및 그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와 누락에 대해서도 마이아트옥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6 추정가

6.1 마이아트옥션은 당해 경매물품의 관련 경매기간에 각 경매물품에 대하여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를 한국원화, 미국달러, 일본엔화로 경매도록 등에 제공한다. 추정가는 공지 없이 각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판매가 위탁자의 궁극적 이익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마이아트옥션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추정가는 구매수수료 및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마이아트옥션에 의해 제공된 추정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경매물품의 실가나 낙찰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마이아트옥션은 추정가가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6.2 경매도록 등에 한국원화, 미국달러, 일본엔화로 표시된 추정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별도로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응찰과 대금지급은 한국원화(KRW)에 의한다. 경매도록에 표시된 추정가와 관련하여,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를 미국달러, 일본엔화로 환산하기 위해 이용된 환율이 관련 경매도록 등에 명시된다. 위 환율은 경매도록의 인쇄 이전 가장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그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다. 본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미국달러 또는 일본엔화 등으로 표시된 어떠한 금액도 한국원화 금액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장하지 않으며, 또한 위 금액이 특정한 환율로 계산된 경우의 한국원화 금액(또는 그 역)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응찰희망자는 정확한 환율을 계산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한다. 마이아트옥션은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의 미국달러, 일본엔화로의 환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 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매매

7.1 마이아트옥션은 홈페이지 그리고 경매 도록 등에 경매의 예정 일시 및 기간을 공지한다. 단, 당해 경매의 예정 시작일 이전에 공지 없이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를 취소하거나 그 일시, 기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7.2 마이아트옥션과 경매사는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참여자들의 권리보호 및 경매의 공정성 확보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매에의 출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공개응찰, 서면응찰, 전화응찰 및 온라인응찰 등 각각의 응찰에 불문하고 어떠한 응찰도 거부할 수 있다.
7.3 모든 경매물품은 내정가에 구속되며, 내정가 미만의 응찰은 경매사에 의해 수락되지 않는다. 경매사는 내정가를 공개하지 않는다. 각 경매물품의 내정가는 위 경매물품의 낙찰일 당시의 낮은 추정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경매사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연속적인 호가 또는 각각의 응찰에 대한 응답으로 내정가 미만의 호가를 할 수 있다. 경매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물품의 내정가 미만의 금액에서부터 경매를 시작할 수 있다. 경매사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내정가 이상으로 응찰하지 않는다. 경매사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입찰한 응찰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7.4 응찰자는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 규정에 따라, 각각의 응찰을 할 수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절대적 재량으로 응찰자의 입찰에 관한 담보로서 필요한 재정 조회, 보증, 예탁금 및 기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7.5 모든 응찰은 녹음, 녹화 또는 기록(이하 "응찰기록"이라 하고, 전산기록도 포함) 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응찰을 함으로써 응찰기록되는 것에 동의하며, 응찰의 유효성 등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마이아트옥션이 보관하는 응찰기록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기록으로서 그 해결을 위한 자료로 사용됨에 동의한다.
7.6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7.6.1 공개응찰의 경우, 응찰자는 경매사의 응찰 초청 후 자신의 패들을 들어 응찰의 의사를 표시한다.
7.6.2 서면응찰의 경우, 경매사는 공개응찰 또는 전화응찰을 수령하기 이전에 서면응찰에 의한 응찰을 공개한다.
7.6.3 전화응찰의 경우, 마이아트옥션의 직원은 응찰자를 대리하여 경매장에서 응찰한다.
7.6.4 온라인응찰의 경우 오프라인 경매의 호가단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이아트옥션 온라인경매약관이 적용된다.
7.6.5 동일한 응찰자가 동일한 경매물품에 대하여 공개응찰, 서면응찰, 전화응찰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응찰하며 연속된 호가로 응찰하는 경우 응찰자는 그 응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마이아트옥션과 경매사는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동일한 응찰자로부터의 연속된 호가의 응찰을 거절할 수 있다.
7.6.6 비공개 응찰의 경우, 최고가에 낙찰되는 입찰 방식이며, 응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봉인 상태로 응찰하고 경매사가 경매장에서 개찰한다.
7.7 경매물품에 관하여, 마이아트옥션은 각각의 응찰을 수령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각각의 응찰의 불수령, 수령 지연, 전산 장애, 전산 지연, 전송망의 속도 차이 또는 위 각각의 응찰의 수령과 관련한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또는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마이아트옥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8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각각의 응찰이 마이아트옥션에 수령된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위 각각의 응찰이 실시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각각의 응찰의 불시행, 지연 또는 위 각각의 응찰과 관련한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서도 마이아트옥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9 경매물품에 관하여, 만약 서면응찰과 공개응찰 또는 서면응찰과 전화응찰의 응찰가가 동일한 경우 서면응찰자에게 낙찰된다. 만약 서면응찰의 응찰가가 동일한 경우 해당 경매물품은 마이아트옥션이 먼저 수령한 서면응찰자에게 낙찰된다. 마이아트옥션과 경매사는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동일한 응찰가가 있는 경우 제7.11조에 의하여 최고가 응찰이 수락되기 전까지 그 우선순위를 고지할 수 있고, 다음 호가를 수령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10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i) 예정된 경매일 이전 어느 때나 사전 공지 없이 경매물품의 경매를 철회;
(ii) 사전 공지 없이 둘 이상의 경매물품을 일괄하여 경매;
(iii) 경매기간동안 경매에 부쳐졌으나 판매되지 않은 경매물품의 경매를 같은 경매기간 중에 사전 공지 없이 재개;
(iv) 응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응찰의 유효성에 대하여 응찰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낙찰자를 결정, 응찰 절차를 진행, 경매를 취소 또는 경매물품을 재경매.
(v) 물품의 진위여부 또는 경매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마이아트옥션의 단독 판단에 의할 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거나 응찰 절차를 중단 또는 경매를 취소.
경매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 제7.10조에 따른 마이아트옥션의 조치가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본 제7.10조에 따라 응찰 절차가 중단되거나 경매가 취소된 경우, 마이아트옥션 또는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낙찰자가 구매가를 기지급한 경우). 마이아트옥션이나 매도인은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한, 간접적인 또는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마이아트옥션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11 제7.2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매도인과 낙찰자 간의 경매물품의 매매는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린 후 최고가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하여 최고가 응찰을 수락함으로써 즉시 성립한다. 경매물품의 낙찰자는 (낙찰자가 공개응찰을 하고 낙찰일 당일에 경매장소에 있는 경우) 낙찰일에, (낙찰자가 공개응찰을 하지 않았거나 낙찰일에 경매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낙찰을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확인서에 서명한다. 다만 경매 물품의 낙찰자가 낙찰확인서를 직접 또는 전자통신망(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제공받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즉시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낙찰확인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7.12 경매물품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i)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초과된 날 및
(ii) 낙찰자에 의한 위 경매물품의 인수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낙찰자에게 이전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낙찰자가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대금을 마이아트옥션이 하자 없이 완전하게 변제받지 않는 이상, 경매물품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7.13 제7.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자신의 출품작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응찰을 할 수 없다.

8 흥보물

마이아트옥션은 모든 경매물품에 대해 경매도록 등에 관련된 이미지 및 정보 등을 게재하는 등 당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마이아트옥션에 의해 또는 마이아트옥션을 위하여 생성된 경매도록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매물품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및 서면에 대한 저작권은 마이아트옥션에게 있다. 이는 마이아트옥션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낙찰자 또는 다른 제3자에 의해 이용될 수 없다. 마이아트옥션이나 매도인은 모두 경매물품의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과 관련된 저작권 또는 다른 복제권을 취득하였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9 구매수수료, 위탁수수료, 제세금

9.1 경매물품과 관련된 구매수수료는: 구매수수료는 낙찰금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마이아트옥션은 경매 물품의 특성 등에 따라 홈페이지, 경매도록 등에 사전 고지 후 변경된 구매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
9.2 구매수수료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9.3 위탁수수료는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위탁계약서가 별도로 체결되지 않는 경우 위탁수수료율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10%(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 기타 비용들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
9.4 당사자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제세금(이하 '제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실 및 마이아트옥션이 제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다만, 제세금의 최종적인 납부의무는 위탁자와 낙찰자 등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그 납부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하고 그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9.5 경매물품의 낙찰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위탁자와 낙찰자 등 당사자에게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응찰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응찰 전까지 확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정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이를 이유로 낙찰의 취소 또는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0 구매가의 지급 및 경매물품의 인도

10.1 마이아트옥션은 낙찰받은 물품의 목록,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라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가, 구매수수료, 부가가치세 및 모든 낙찰자비용을 기재한 송장을 경매물품의 낙찰일 또는 그 낙찰일로부터 최대한 가능한 시기에 낙찰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 또는 전자통신망(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제공한다.
10.2 낙찰자에 의해 구매된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는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다음 각호를 지급한다. 물품의 소유권은 마이아트옥션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전액을 수령하는 때까지는 이전되지 않는다. 10.2.1 송장에 기재된 총대금; 및
10.2.2 송장이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비용.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낙찰가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단 구매가의 30%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마이아트옥션에 위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마이아트옥션에 위 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납입기일(불산입)부터 연체대금 및 가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산입)까지 월 2%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다만, 마이아트옥션의 재량에 의하여 지연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는 관련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구매가를 분할지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10.3 낙찰자와 마이아트옥션 사이에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상,
(i) 해당 경매물품 관련하여 낙찰자는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구매가 및 낙찰자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ii)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가(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낙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지급받지 않는다.
10.4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만약 마이아트옥션이 (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각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금액을 낙찰자로부터 완납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와 마이아트옥션 사이에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0.4.1 경매의 취소 및 마이아트옥션의 지급요구 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낙찰철회비를 낙찰자에게 청구;
10.4.2 해당 경매물품을 다른 마이아트옥션 경매에 회부;
10.4.3 위탁자의 낙찰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의 개인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
10.4.4 기타 마이아트옥션이 판단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조치.
상기의 조치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마이아트옥션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5 낙찰자는 당해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조건 하에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10.5.1 마이아트옥션에게 서면에 의한 경매취소의 의사표시; 그리고
10.5.2 마이아트옥션에게 낙찰철회비용을 지급.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마이아트옥션이 위 서면 및 낙찰철회비용을 수령하는 즉시 경매는 취소된다.
10.6 마이아트옥션과 응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마이아트옥션은 제10.6조에 따라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경매물품을 인도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신이 매수한 경매물품을 직접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수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마이아트옥션은 경매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10.6.1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제10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총대금을 마이아트옥션이 하자없이 완납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10.6.2 마이아트옥션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수인의 신원확인 증명 및 (권한있는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증명이 없는 경우.
10.7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의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가 매수한 경매물품의 포장, 인도 및 운송보험의 가입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유를 불문하고, 마이아트옥션은 위 포장 및 인도 기간동안 발생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8 마이아트옥션은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도과되는 날까지 경매물품을 무료로 보관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경매물품은 위 기간이 도과된 이후 낙찰자의 위험부담 하에 마이아트옥션이 보관한다.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제10.6조에 따라 마이아트옥션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여 마이아트옥션이 경매물품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를 불문하고, 낙찰자가 위 기간 이내에 경매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매 경매물품마다 위 기간이 도과된 날로부터 인수될 때까지 보관비용(운송료, 보험료 포함)을 부담하며, 이 때의 보관비용은 마이아트옥션이 운영하고 있는 보관을 위한 창고의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10.9 낙찰자에 의해 회수되어야 할 경매물품이 당해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사유를 불문하고 낙찰자 또는 그 권한있는 대리인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당해 경매물품에 대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1 수출/수입 허가증

경매물품의 해외 반출/반입에 필요한 면허 및 허가 (이하 "허가"라 한다)를 취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낙찰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의 비용과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에게 필요한 허가 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운송업체를 주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선과 관련하여 마이아트옥션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경매물품에 대한 허가 발급 거부 및 지연은 낙찰자에 의한 매수 취소 또는 제10조에 따라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총 대금 지급의 거절 또는 지연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 등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응찰자는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임해야 한다.

12 경매 전, 경매 후 세일

12.1 관련 경매에서 최고응찰가가 내정가에 이르지 않아 경매물품이 유찰된 경우 (이하 "경매후 경매물품"이라 한다), 마이아트옥션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1.1 위 경매후 경매물품에 대하여 내정가의 구속을 받는 응찰의 접수; 그리고
12.1.2 제12조에 따른 최고가 응찰자의 응찰 수락
단,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관련 응찰자가 제12.2조에 의해 제공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응찰도 수락할 의무가 없다. 12.2 경매후 경매물품에 관하여 응찰 시, 응찰자는 마이아트옥션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보충서류를 마이아트옥션이 위 요구 시 정한 기간 이내에 마이아트옥션에 제공한다.
12.3 경매후 경매물품의 경매는, 마이아트옥션이 위 응찰자의 응찰에 대한 수락을 통지하는 송장에 기재된 일자에 성립한다. 그 송장은 낙찰자에 의해 구매된 경매물품,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부담하는 낙찰가, 구매수수료, 부가가치세 및 모든 낙찰자비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12.4 본 경매약관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리인 또는 매도인으로서의 마이아트옥션), 제6조(추정가), 제7조(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매매), 제8조(홍보물), 제9조(구매수수료, 위탁수수료, 제세금), 제10조(구매가의 지급 및 경매물품의 인도), 제11조(수출/수입 허가증), 제13조(진술, 보증 및 책임의 부존재), 제14조(제한보증), 제15조(제한책임), 제16조(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개정), 제17조(정보보호관련), 제19조(기타), 제20조(관할권과 준거법) 및 경매도록 등의 관련 조항은, 본 제12조에 따른 경매후 경매물품의 경매에 준용된다.
12.5 마이아트옥션은 위탁계약에 따라 경매물품에 대하여 상설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경매 전 또는 경매 후 세일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3 진술, 보증 및 책임의 부존재

13.1 응찰자는 모든 경매도록에 표시된 그리고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대리인, 피용인 및 매도인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제공된 경매물품에 대한 작가, 제목, 소재, 크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 진술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 의견에 대한 진술이란 점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승인한다.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묵시적, 규정적·관습적을 불문하고 모든 진술, 보증, 조건, 보증과 명시는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는 소유권, 처분권, 분쟁 없는 권리,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 전매가능하거나 충분한 품질, 목적부합성, 성상, 크기, 품질, 속성, 진품, 소재, 계보 또는 위 경매물품이 저작권에 의한 제한을 받는지,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13.2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가 경매장소에 참석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물품은 위 경매물품의 경매 시간에 "있는 그대로" 출품된다. 경매도록 등에 때때로 경매물품의 특정한 훼손이나 결함에 대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설명의 부재가 해당 경매물품에 훼손이나 결함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훼손, 복원을 포함한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 마이아트옥션은 응찰자가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응찰자로부터 응찰을 수령한다. 마이아트옥션은 그 사유와 무관하게 프레임 및 액자의 파손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3.3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이아트옥션 및 매도인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3.3.1 사유를 불문하고,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이들의 대리인 및 매도인이 제공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관한 오류나 정보의 누락 등
13.3.2 사유를 불문하고,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이들의 대리인 및 매도인에 의한 경매의 실시 또는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14 제한보증

14.1 마이아트옥션은, 경매물품에 대하여 경매도록 첫 줄에 굵게 검은색으로 인쇄된 표제사항 (이하 "표제 사항"이라 한다) (관련 경매기간동안 경매장에 전시되는 판매실 공지 사항에 따라 수정되는 대로)에 대하여 위 경매물품의 낙찰일을 기준으로, 위 사항이 진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하 "제한보증"이라 한다). 다만 마이아트옥션은 일부 표제 사항에 대하여는 경매도록 및 경매도록 등에 사전 고지 후 보증을 제한할 수 있다.
14.2 낙찰자가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제14조에 따라 (이하에서 정의된) 청구서면을 마이아트옥션에 제시하지 않은 이상, 마이아트옥션은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하 "보증 기간"이라 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4.3 제14.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한보증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길 원하는 낙찰자는
(i) 제한보증의 잠재적/현실적 위반이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매물품의 낙찰일, 경매 번호와 청구

사유를 기재한 서면 (이하 "청구 서면"이라 한다)을 마이아트옥션에 제시하고,
(ii) 경매물품의 판매 당시와 같은 상태로 위 경매물품을 마이아트옥션에게 반환해야 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4.4 낙찰자와 마이아트옥션 사이에 제한보증에 근거한 낙찰자의 청구 사유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의 비용으로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두 명의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에 의해 제공된 서면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의 비용으로 다른 전문가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4.5 낙찰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4.5.1 낙찰일 당시에 관련 표제사항이 학자 또는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던 경우;
14.5.2 관련 표제사항에 대하여 학자 또는 전문가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매도록 또는 경매장 전시된 판매실 공지에 표시된 경우; 또는
14.5.3 경매도록의 출판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 또는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이나 경매물품에 훼손을 가하는 방법으로만 제한보증 위반이 증명되는 경우.
14.6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경매물품의 경매를 취소하고, 낙찰자에게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가를 환불한다.
14.7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마이아트옥션 및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경매의 취소 및 위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 마이아트옥션 및 매도인은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이아트옥션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4.8 낙찰자는 제한보증으로 부여받은 이익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송장에 표시된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제한보증 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위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은 경매물품과 관련된 이익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경매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9 위탁자를 대신하여 마이아트옥션이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책임을 부담한 경우, 위탁자는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원을 즉시 마이아트옥션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 외에 마이아트옥션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10 마이아트옥션이 경매 물품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낙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이 낙찰자에게 제공되는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만 이를 보증한다. 마이아트옥션은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서 또는 감정서의 진위 또는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5 제한 책임

15.1 상기 제13조 및 제14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및 매도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해당 경매물품의 구매가를 상한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다. 마이아트옥션이나 매도인은 모두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이아트옥션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5.2 본 경매약관의 어떠한 사항도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이들의 대리인의 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한 작위•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기, 사망 또는 인적 손해에 대하여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밝혀지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6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개정

16.1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경매약관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일반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효력발생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30일 이전까지 공지하고, 경매도록 등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16.2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경매도록 등을 포함한 경매도록 상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본 변경 사항은 관련 경매기간동안 마이아트옥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17 정보 보호 관련

17.1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경매에서의 응찰 및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될 수 있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본 경매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개인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모든 개인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i) 마이아트옥션 사업의 관리와 경영 및 마이아트옥션 서비스의 홍보와 제공에 관한 모든 문제
(ii) 대한민국 안팎으로 이러한 정보를 이전
(iii) 모든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와 관련된 목적.
17.2 모든 개인 정보, 고객정보, 경매물품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로 보유되며, 위탁자, 응찰희망자, 응찰자, 낙찰자, 기타 대리인 등은 그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내외에 존재하는지를 불문하고, 다음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공개 또는 그에 의하여 관련된 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
(i) 마이아트옥션, 마이아트옥션의 계열회사 및 그룹
(ii) 마이아트옥션 및 계열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마이아트옥션 및 계열회사의 모든 관리자, 직원 또는 피용인;
(iii) 모든 대리인, 계약자, 제3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행정, 통신, 컴퓨터, 보험, 운송, 또는 그룹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룹에게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그룹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
(iv) 신용조사기관 및 기한이익의 상실 시 미수금회수기관;
(v) 그룹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기타 사람
(vi)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그룹이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사람.
17.3 일반적으로, 특정한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다음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17.3 (i)조 와 제17.3 (ii)조의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그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i) 개인 정보의 입수 청구;
(ii) 개인 정보에 대한 정정 청구;
(iii) 정보 입수 또는 정정이 거부되거나 40일 이내에 제공/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의 제공.
17.4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개인 정보의 입수, 정정, 혹은 마이아트옥션의 정보 보호 정책과 실례 및 마이아트옥션이 보유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문의를 제18.7조에 따라 할 수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정보 입수 청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17.5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법인인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위 법인이 정보수집 당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목적 또는 위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마이아트옥션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위 법인이 제공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위 법인은 관련 응찰등록신청서에 서명날인함으로:
(i)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통지를 불문하고, 마이아트옥션이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 정보가 제17.1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ii) 위 법인이 상기 (i)에 규정된 통지를 불이행함으로써 마이아트옥션에 초래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할 것에 동의한다.

18 기타

18.1 다음의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해당 시점까지 마이아트옥션의 관리하에 있는 위탁자와 낙찰자의 물품을 점유할 수 있다.
18.1.1 위탁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또는 계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전액 지불하는 시점까지
18.1.2 경매물품의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마이아트옥션이 인지하게 되거나 진품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까지
18.1.3 마이아트옥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고객 확인 및 등록절차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18.1.4 관련 법령에 따라 또는 정부 조사로 인해 해당 물품을 마이아트옥션이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시점까지, 이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해당 위탁자 또는 낙찰자에게 보관료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제3자 또는 마이아트옥션 창고로 물품을 이동시키고 운송료, 보관료 및 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다.
18.2 위탁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또는 계열회사에 특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마이아트옥션이 보유중인 위탁자 혹은 낙찰자의 물품을 마이아트옥션의 판단 하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
18.3 위탁자 또는 낙찰자는 마이아트옥션 또는 계열회사가 위탁자 또는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18.3.1 위탁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지불
18.3.2 위탁자 또는 낙찰자를 대신하여 계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지불
18.4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한국원화(KRW)에 의한다. 만약 낙찰자가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마이아트옥션이 자신에게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낙찰자는 은행수수료 및 경비를 포함하여 그로 인해 추가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모든 환전은 지급일에 서울외국환중개에 의해 제공된 한국원화 환율에 의하며, 위 환율과 관련한 마이아트옥션의 증명은 최종적이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이아트옥션은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8.5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수표, 은행계정송금을 포함하는 현금과 동등한 방식에 의해 하자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지급은 본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른다.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지급기일로 간주된다.
18.6 만약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의 일부가 법원에 의해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그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며,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경매도록 등의 나머지 부분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
18.7 모든 공지, 요청, 청구, 요구 및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른 마이아트옥션에 대한 통신은 한글 또는 영문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인편, 등기우편, 접수확인서가 첨부된 팩스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답신을 받은 이메일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로 다음의 주소로 행해진다 (그리고 도달로 인해 행해졌다고 간주된다).

마이아트옥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5,6층 601호 (관훈동,충훈빌딩)
전화번호: 02) 735 1110
팩스: 02) 737 5527
이메일: myart@myartauction.com

응찰자 및 낙찰자 등 관련자에 대한 통지는 관련 등록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거나 전자통신망(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제공한다. 관련자는 주소 및 연락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마이아트옥션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기로 한다. 만약 관련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마이아트옥션의 통지 등이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이아트옥션의 통지가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8.8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언급된 일시, 기간 및 본 경매약관이나 당사자들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대체될 수 있는 일시와 기간에 관하여, 시간은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서 본질적인 사항이다.
18.9 마이아트옥션의 또는 마이아트옥션을 위한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 상의 어떠한 권리 포기도 반대당사자의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의한 나머지 의무의 완전이행을 면제하지 않는다. 마이아트옥션이 경매약관이나 경매도록 등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 불행사, 지연행사 하거나 마이아트옥션이 반대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의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이 경매약관이나 경매도록 등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를 침해, 또는 제한하지 않으며, 마이아트옥션이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의 위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후속 또는 연속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18.10 본 경매약관에 따라 개정된,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은 전체 계약 및 법에 내포되고 계약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의 배제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구성하며,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사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를 대체한다.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또는 보증에 의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동의하도록 강제되지 않았음이 합의되었다.
18.11 국문, 영문, 중문 상의 어떠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이 우선한다.

19 관할권과 준거법

본 경매약관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있다. 모든 당사자는 재판의 송달절차 또는 다른 법원에서의 절차와 관련된 기타 서류에 대하여 팩스, 인편, 우편, 또는 대한민국법에 의해 허용되는 송달방법으로 마이아트옥션에 통지된 당사자의 최후주소지 또는 기타 통상적인 주소로의 송달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다.

부 칙

본 개정 약관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MYART AUCTION
경매 출품 안내

제63회 마이아트옥션 경매에 출품할 소중한 작품의 위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매일정	2027년 2월
작품위탁일정	2026년 12월 - 2027년 1월
출품방법	
Homepage	www.myartauction.com
E-mail	myart@myartauction.com 을 통한 사진 자료 송부
우편	03146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6F (주) 마이아트옥션으로 사진 송부
Tel	02-735-1110 (대), 735-9938을 통한 상담
Fax	02-737-5527

*** 고객님께서 편리하신 방법으로**
작품 사진(jpg 파일 또는 인화사진)과 작품정보,
출품희망가,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이메일)를 보내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작품 위탁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AINSTAY ART AUCTION

03146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5F, B1 03146 5F, B1 62-5 Insadonggil, Jongno-gu, Seoul, KOREA

Tel +82 2 735 9938 **Fax** +82 2 737 5527 **Homepage** www.myartauction.com **E-mail** myart@myartauction.com